

1. 베트남 전쟁, '인류 양심의 상처'

- 1-1.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 (1971년 『문학과 지성』, 전논)
- 1-2. 「베트남전쟁」 (1972년 『창작과 비평』, 전논)
- 1-3. 「베트남 35년 전쟁의 총평가」 (1975년 『창작과 비평』, 우상)
- 1-4. 「베트남-그 후」 (1984년, 80년대)
- 1-5. 「베트남에 먼저 사죄를 하자」 (1999년, 반세기)
- 1-1.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 (1971년 『문학과 지성』, 전논)

우화옷을 입지 않은 임금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한 소년의 우화는 그 소년의 순진함이나 용기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진실은 반드시 진실대로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인간생활의 진리를 말하려는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 우화의 해석은 대체로 그 우화를 구성하는 일련의 인과적 요인들이 엮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그 보이지 않는 비단옷이라는 것을 팔러 온 형제 상인은 어째서 그토록 맹랑한 술책이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임금에게 있지도 않은 옷을 입혀놓고 아름답다고 한 임금 측근자들의 이해관계는 어디를 향해 있던 것일까. 임금이란 으레 아침배에 속게 마련인 것일까. 그리고 옷을 걸치지 않고도 입었다고 우기는 '통치자의 진리와 권위'는 임금의 것인가 측근 아침배의 것인가. 이와 같은 '허구와 허위'는 통치자들의 속성이어야 하는가. 허위가 진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그 사회의 제도와 풍토는 어떤 것일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임금의 알몸뚱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모두들 입을 다물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또는 못했을까. 가장 어리석은 소년에 의해 온 사회의 허위가 벗겨지기까지 그 임금과 재상들과 어른들과 학자들과 백성들은 타락과 자기부정 속에서 산 셈이다. 마침내 한 어린이가 나타나서 보다 현명한 어른들을 타락에서 구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 왕국을 지배한 타락과 비인간화와 비굴과 자기모독, 그리고 지적 암흑상태가 결과한 인간파괴와 사회적 해독은 무엇으로 측량할 것인가. 인간해방과 사상의 자유의 역사는 어차피 독선에 대해 회의(懷疑)가, 권위에 대해 이성(理性)이 승리를 거두는 긴 투쟁의 되풀이 임이 틀림없다. 우화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역사는 한 단계의 투쟁이 끝나면 으레 '임금은 알몸이다'라고 폭로한 소년의 용기에 열중한 나머지, 힘없는 소년에게 그런 엄청난 임무를 떠맡기게 된 그 사회의 실태에 대해서는 눈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시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영광(또는 해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 타락과 사회적 암흑과 지적 후퇴가 강요되었느냐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법적 구조와 정치의 내적 정신** 베트남정책에 관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세상에 폭로 보도한 『뉴욕 타임스』의 용기는 정부 또는 권력에 대한 자유언론의 승리라는 차원에서 예외없이 치하되었다. 미국 언론사상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수정 제1조)을 둘러싸고 처음으로 전개된 법적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신문과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페어 플레이 그것이다. 세계의 정부와 언론기관은 물론 생각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 이 역사적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종결지은 것은 직업적 독립성과 시민적 양식을 남김없이 입증한 대법원판사들이다. 국가의 안전을 제일의적(第一義的) 임무로 여기는 정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정(法庭)과 민주사회의 이성적 발전을 믿는 자유언론의 어느 하나도 그 기본원리인 양식과 준법정신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그토록 중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언론의 승리이자 동시에 진정한 뜻에서의 정부의 승리이기도 하다. 행정권력이 법보다 우위에 선다고 맹신하거나 견강부회하기 좋아하는 집권자의 나라였으면 판결은 달리 나왔을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을 수 없는 나라였으면 신문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대담한 폭로 기사를 보도할 생각도 못 했을 것이고 법의 판단에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그와 같은 행정권력의 페어 플레이 정신과 사법부의 독립성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보면 베트남전쟁에 관한 정부의 비밀문서를 폭로 보도하여 야기된 미국 사회의 커다란 시련은 일차적으로는 자유언론의 귀중함을 헌법에 못 박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영광과 그 정신을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저버리지 않고 그 정신의 토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한 195년 후의 자손들의 명예를 한층 더 빛나게 해주었다. 세상에는 불과 10년 전 또는 2, 3년 전에 자기 손으로 만든 헌법과 헌법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편의에 따라 내동댕이치는 정부가 허다함을 생각할 때 195년 전의 정신을 문자 해석에까지 충실하려고 노력한 국민의 양식은 본받을 만하다. 문제의 비밀문서 보도금지에 반대하는 다수 법관의 견해를 대변한 휴고 블랙 판사는 헌법의 용어와 어구는 바로 그 ‘어구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그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이 개정된 헌법하에서는 정부의 어느 부도 국민의 출판·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법원의 일부 법관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 같다. 역사를 이 이상 왜곡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다. 매디슨을 비롯하여 헌법 제1개정조항을 마련한 이들 유능한 분들은 절대로 잘못 해석될 수 없으리라고 그들이 진지하게 믿었던 용어로 분명히 다음과 같이 썼다. “의회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제1개정조항의 역사와 용어는 언론기관이 그 출처에 관계없이 검열이나 금지명령이나 사전금지를 받지 않고 뉴스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절대로 잘못 해석될 수 없으리라고 그들이 진지하게 믿었던 용어’로 분명히 쓰여진 헌법조항을 견강부회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국가의 비극이 초래된 사례들을 생각할 때, ‘용어 그대로 생각하자’는 헌법해석의 태도가 국가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척도여야 하겠다. 옛 먼 나라의 우화는 ‘왕은 옷을 안 입었다’고 진실을 말한 소년의 그 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침의 무리들이 왕에게 소년을 벌하라고 요구했을 것은 『뉴욕 타임스』에 대한 미국 정부 내부의 관료들의 발언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허위의 권위가 벗겨진 왕은 차라리 아침배들을 벌하고 진정한 권위를 되찾게 해준 소년에게 상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모든 정의와 진실은 사는 셈이다. 보면서도 못 본 척했거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던 많은 ‘현자’들과 백성은 스스로의 비굴을 뉘우칠 것이다. 그러면 임금도 살고 백성도 사는 왕국이 되어 몇천 년 뒤의 동화는 이 파멸에서 되살아난 왕국의 행복을 전해줄 것이다. 이와 같이 위기에서 되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내면적 자질에 관해서 프랑스 정치학자 도끄빌은 “문제는 법적 구조보다도 정치의 내면정신에 있다”고 말한다.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를 에워싸고 일어난 미국 내의 사태는 법적구조의 굳건함과 아울러 정치의 내적 정신의 건전함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국가나 국민의 생활원리가 되어주는 일반적 정치의 내적 정신이 건전하지 않을 때 법적 구조의 건전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한 달 동안을 두고 분쟁을 소개하거나 평가한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관심도 요약하면 주로 이 법적 구조와 정치의 내적 정신의 측면에서 표명되었다. 외국의 경우도 그랬고, 어쩌면 외국 신문의 관심의 각도가 그러했던 탓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우화를 들어 말하자면, 소년의 용기와 그것이 그 왕국의 제도 속에서 갖는 중요한 의의 같은 측면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그 어리고 힘없는 소년이 나타나서 진실을 지적할 때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그 왕국의 사회적 침체와 그 신민(臣民)들의 도덕적 타락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임금이 진리를 외면하고 권력의 측근 아첨배들이 왕국의 기본정신을 왜곡하여 허위를 진실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신민의 생명에 대한 파괴와 왕국의 발전에 대한 반동은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 피해가 어리석은 그 왕국과 왕국 신민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엄청난 ‘허위’와 ‘허구’에 입각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남의 나라의 수백만 신민을 죽이고 왕토(王土)를 파괴한 죄에 대해서도 별로 구명됨이 없는 것 같다. 국록을 먹는 선비나 학자들도 많았을 터인데 그들은 왜 임금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농락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가 하는 문제도 그렇다. 모든 어른은 임금이 분명히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한 그 왕국의 제도는 어더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는 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뉴욕 타임스』 사건의 의의 중 중요한 한 면이 우리나라 언론과 식자들에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언론은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그 분쟁의 핵심인 ‘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 그 자체는 읽지 않고, 다만 정부 대 언론의 극적인 투쟁만을 따른 것 같다. 미국 언론의 승소(勝訴)가 아무리 빛나는 결과라고 하더라도 비밀문서로 밝혀진 그 30년간의 과정에 뿌려진 추악함과 독선과 비인간성은 회복할 길이 없다. 더욱이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국가권력이 광기를 띠게 되는 경위가 중요하다. 남은 하나도 속지 않았는데 거꾸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권력이라는 최면술이 자기 사회와 남의 민족까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메커니즘을 이 비밀문서는 소름 끼칠 만큼 감춤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국가권력이 이성을 상실해가는 이 긴 과정을 뉘른베르크 전법재판 기록 이상으로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국가권력과 이성**한 작품의 해피 엔드는 과정의 즐거리가 가열될수록 더욱 행복하게 느껴진다. 고뇌와 비참과 과오가 아무리 처절했어도 종말이 행복하면 그 과정은 그것으로 잊혀진다. 『뉴욕 타임스』와 정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진 감이 있다. 그러나 해피 엔드로 슬펐던 과정을 잊을 수 있는 것은 관객의 경우다. 슬픔을 겪은 주인공은 종말의 행복보다도 불행했던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아쉬워하게 마련이다. 그 차이는 불행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의 위치의 차이다. 베트남전쟁은 『뉴욕 타임스』의 해피 엔드와는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문제에서는 당사자이지 관객이 아니다. 어찌면 모든 인류의 양심과 가치를 시험한 전쟁이라는 스페인내란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쟁은 현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를 시험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는 관객이 없다. 모두가 슬픈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 『뉴욕 타임스』 대 정부의 대단원을 해피 엔드로 관람한 우리들에게는 이제부터 베트남전쟁 정책의 진실을 말해주는 소위 ‘미국 국무성 비밀보고서’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의무가 있다. 이 보고서 속을 체험자의 마음으로 걸어나오지 않고는 해피엔드의 의의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종말도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비밀문서는 현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자에게 한없이 많은 교훈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베트남전쟁의 한쪽 당사자이며 더욱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계속 확대해나갔다는 점에서 거의 전면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미국 지도자들의 일종의 ‘자기비판 진술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만의 책임을 비판한 진술서는 아니다. 관료와 군부, 학자와 전문가, 지식인과 국민대중..... 어느 하나도 그 응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계속된 비극의 진술서다. 이 비밀문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이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책임을 포기하게 되는가를 여실히 밝혀주었다. 비밀문서가 밝혀지기까지의 경위와 문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해봐야 할 슬픈 문제들에 마주친다. **두 가지 언론형** 『뉴욕 타임스』의 용기는 반사적으로 우리 언론의 두 가지 유형을 연상시킨다. 하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유형이다. 전자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도 발표도 하지 못하고 있던 언론이나 지식인이 문제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동이 생기자, 말하지 않고 있던 비굴은 제쳐놓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내세우는 유형이다. 지식인과 언론의 소임에 이처럼 모독적인 유형은 없다. 최근 미국 대통령 닉슨의 북경 방문 결정이 발표되자 우리의 인쇄 및 전파미디어와 언론은 한 달을 두고 제각기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수·기자들의 발언으로 정신을 못 차릴 형편이다. 그러나 바로 두 달 전, 선거에서 극동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가 중대한 이슈로 등장했을 때 그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밝혀준 학자나 기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국민은 닉슨의 중공 방문에 하늘이 무너질 듯 놀랐다. '영원한 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던 한국 국민은 그 보도 이후 한국의 안위와 국가적 방향과 자기 이해관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만일 요즈음 앞을 다투어 극동정세 해빙의 불가피성을 알고 있었음을 자랑하는 지식인과 언론이 평소 그 소임에 10분의 1만 충실했더라도 국민들은 국제정세 진전의 낚시를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언론과 지식인은 한마디로 반공(反共) 외의 딱 가치나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한 지식과 사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가치가 없다. 어떤 개인의 지식이나 사상은 그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회 계발을 위해 반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지식과 사상을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자세를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운명을 같이할 수 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 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다. 미군 철수에 관한 기사를 6개월 동안이나 보도하지 못하고 있던 언론기관은 느닷없이 공식 발표된 뒤에 일어난 국민의 불안과 동요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권력의 압력에 대해서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이 나라의 언론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세계적 사조와 국제정세의 변천에 무지몽매한 상태로 억압되어 있던 이 나라 국민에게는 앞으로 놀라운 소식이 무수히 전해질 것만 같다. 언론과 지식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갖고 있는 사상을 발표해야 하는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다. 내일 발표되는 지식은 이미 주위 사람에게서 무의미한 것이다. '비화'(秘話) 언론도 마찬가지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제국 육군은 남경(南京)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의 편린이나 보도한 일본 신문은 하나도 없었다. 본국의 일본 국민에게 이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진 것은 패전 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비화식 언론을 통해서였다. 있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그 시각에 보도되지 못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비화로 밝혀져야 했던 그동안 일본의 지도자들은 더욱 악독한 범죄 집단으로 화했고 국민대중은 무지와 환상 속에서 더욱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타락했다. 미국 시민은 군인 신분이면서도 미라이촌(村) 베트남 양민학살 사건을 세상에 폭로했고, 미국의 지식인은 고위관리이면서도 자기 정부의 기만에 가득 찬 베트남 정책을 국민의 양심에 고발했다. 일본의 지식인은 10년 뒤에 비화를 엮어 원고료를 벌려고 한 데 반해, 미국의 지식인은 자신을 권력의 핏박 앞에 내맡기면서 사회의 조직적·제도적 불의와 악에 항거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던 거창(居昌) 양민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집단 아사(餓死) 사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대소 사건들이 비화로서만 밝혀지는 동안 민중의 생명을 파괴한 책임자들은 영화를 누렸다. 최근의 소위 한강변 정 여인 사건만 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틀 동안은 제법 상세한 보도가 있더니 사흘째부터는 보도기관이 무슨 명령에 따른 듯, 일제히 정부의 발표문만을 게재하는 괴이한 태도를 보였다. 어렵פות이나마 그 진상을 파헤치고 상세한 내막을 보도한 것은 도리어 외국의 『와싱턴 포스트』 지다. 국내보도는 억압되었다. 소위 국방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보도라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발표문을 옮겨놓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것일수록 언론기관은 정부 발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예리하고 광범위한 취재를 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라고 정부가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의 직접취재의

권외로 밀려나간다.오늘의 사실을 오늘에 규명하지 않고 먼 훗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비화나 입을거리의 자료로 생각하는 한, 통치계급의 횡포는 계속되고 대중은 암흑을 더듬는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임을 안 이발사가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 산속 굴에 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친 것은 차라리 우리 언론기관보다는 애교가 있다. 그 이발사는 그 사실을 당장에 알려야 할 사회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론은 대중에 의해서 그 요청을 받고 있으며 보도기관은 그 임무를 자청하며 조직된 기관이다.**관리가 된 지성인**베트남전쟁 비밀문서는 마치 드라마의 대사를 읽는 느낌을 준다. 첫 줄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행정부 관료기구 속의 지성인들이 베트남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제각기 성격배우로서 파트를 연출한다. 정부가 민주적 성격을 띠는 한 원칙적으로 지성인과 관료 사이에 모순이나 대립개념은 서 있지 않다. 그러나 형식은 어떻든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소수 이익의 위탁자 역할을 하거나 부패한 정권을 돕는 지식인은 반지 성적이고 따라서 반국민(민중)적일 수밖에 없다.미국 정부를 일단 민주적으로 보고 또 직업군인·관료를 제외하면 월트 로스토,로버트 맥나마라,조지 볼, 다니엘 엘스버그의 4인으로 특색 있는 주역이 두드러진다.국무성 정책기획위원장으로, 뒤에 존슨 정부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인 월트 로스토는 전(全) 문서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이념을 반공과 군사적 대국주의(大國主義) 및 대국에고이즘에 입각한 팩스 아메리카나로 믿는 광신적 지식인의 면모를 여실히 나타낸다. 중세기 암흑시대의 봉건왕제나 교권을 수호하려는 어용학자를 연상케 한다. 베트남전쟁의 민족해방·사회혁명적인 성격에는 눈을 딱 감고, 베트남정책의 파탄이 분명해진 단계에서도 오직 대국 미합중국의 아시아 지배권 상실과 국가적 체면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건의를 하고 있다. 식민지 민족의 염원에는 아랑곳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성 정책 담당자로서 그리고 뒤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쥐고 흔드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의 자기 개인의 권위가 정책 파탄으로 실추될 것만을 방지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투쟁적으로 나타남을 본다. 세계적 사조에 대한 개의나 이성적 비판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며 그에게 뜻있는 것은 오직 '권력의 철학' 뿐이다. 히틀러의 보좌관 헤스의 전기를 다시 읽는 감이 있으며 대영제국주의자 처칠의 화신을 보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지성인을 잠시나마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필요하게 되는 한 정부의 제도적·정신적 풍토가 문제이겠다. 결과는 베트남정책의 파탄이며, 또 그 결과는 당연한 논리로 그의 반지성적 오욕으로 끝났다.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인간의 최고의 자질, 즉 이성과 의지와 가치관과 희생심마저도 전자계산기로 산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과학·기계만능주의적 지식인을 대표한다. 그가 신봉하는 미국의 온갖 과학과 기계의 힘은 베트남 인민이 아니라 미합중국 사회의 파괴와 좌절을 초래했다. 경제 위주, 물신주의(物神主意), 물질적 현대화, 공업화,GNP만 섬기고 '도덕적·정신적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는 지식인에게 중요한 교훈일 수 있다. 이 '걸어다니는 전자계산기'가 중도에서 관직을 떠난 것은 스스로 추진한 베트남전쟁의 부도덕함을 깨달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전문인 '경제-효율'적 견지에서 '수지 맞지 않는 전쟁'임을 확신한 탓인 듯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소는 정책의 '윤리적 측면'도 고려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자로서 물러설줄 알았다는 점에서 로스토보다는 지성적이라 하겠다.힘의 철학과 체면이 지배하는 관료기구 속에서 국무차관 조지볼은 로스토나 맥나마라와 대조적이다. 문서 전체를 통해서, 미국 군대의 체면만을 생각하는 테일러등 군부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성을 호소한다. 그는 베트남전쟁이 특수한 전쟁임을 인식한 유일한 관료였으며, 일시적인 전쟁 패배에서 오는 국가위신의 손상보다 부정하고 승산 없는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받을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국가위신의 추락을 염려한다. 그는 1965년 7월 1일자로 대통령 존슨에게 보낸 건의에서 베트남전쟁은 지는 전쟁이라는 것, 미국 정책은 황색인종을 상대로 하는 백인종의 전쟁이라는 사실, 소위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의 허구성을 강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개입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적 치욕 없이는 우리 목표의 완전 달성을
중도에서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국가적 치욕을 당하느냐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두
개의 가능성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목표 달성보다는
국가적 치욕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서 눈앞의 체면만을 고집하는 군부장성들과 많은 민간 엘리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조지 불은 자세를 끝내 굽히지 않았다. 관료기구 속에서 반지성화하지 않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지성인의 한 유형이다.베트남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서 시작하여
정책수습과 정의 핵심적 지위에까지 올라갔다가 기밀문서를 전 세계에 폭로한 다니엘
엘스버그는 험릿적인 과정을 밟아 하나의 진리를 실천한 독특한 지성인이다. 그의 행동에 대해
우익적 여론과 군부에서는 비난과 인신공격, 중상이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진실과 이성이
작용하지 않는 매머드화한 관료기구 속에서 자기의 임무와 정부의 정책이부정이며불의임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국가이익을 위해 진실을 밝힌 용기는 고민하는 지성인의 최고의 자세인
듯하다.소위 국가기밀이나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민주사회의 국민을 시종일관 기만하는
정부체제와 세력에 의해 이용될 때는, 그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기만을 폭로하는 것 이상으로
애국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지성인의 최고 덕성은 인식과 실천을 결부시킨다는 것이다.
엘스버그는 그의 객관적 인식 변천의 과정에서 로스토-맥나마라- 불의 단계를 거쳐 그 자신에
도달한 것이다. 그가 처음부터 엘스버그였던 것이 아니라, 로스토에서 시작하는 사상발전의
과정에서 가슴을 에는 수년간의 고민을 겪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의 실천의 뜻을 깊게 해준다.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탠리 호프만의 다음과 같은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비난받아야 할 일은 허위의 커튼을 활짝 열어젖힌 엘스버그 박사의 극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것은그 장막의 뒤에서 이루어져온 일들,
음모에 관한 모든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치를 살피거나 그에 방조하거나 갈피를
못잡거나 침묵했을 뿐 그것을 밝혀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다. 진실로 놀라운
것은 엘스버그와 같은 고위관료들 속에서

더많은엘스버그가 나오지않았다는사실이다..... 『(뉴욕타임스 위클리』, 7월 18일).

국가이익—지배자의 논리신문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 군대 지도자들의
내왕 같은 것도 정부가 대부분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보’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신문 관계자들 자신이 일본군 간부들의 왕래를 알 경우에도 정부의 ‘뜻을 받들어서’ 보도를
‘자율규제’하고 있다고도 말한다.국민의 시대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마저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미국에 적용되는 원리와 우리 사회에
적용될 원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가장 국가를 위할 줄
안다’는 기본원리는 공통으로 통한다. 진실은 비판을 낳는다. 어떤 사회도 어떤 정부도 비판의
여지없이 최선이거나 만능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민주제도는 진실- 비판- 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체제나 정부는 분명
비판에 견딜 수 없는 체제와 정부다. 그러기에 비판을 봉쇄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개선과 향상이 없고 그 결과는 더한층의 타락이며, 타락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은 탄압에
호소하는 악순환 속에 침체할 수밖에 없다.국가이익을 해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정부가 공개를 반대한 그 비밀문서를 속독해보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타격을
입을 것은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집권자와 정책에 참여한 인물들의 위신과 체면뿐임을 말해주고
있다.베트남전쟁이 상대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선전으로 국민을 끌고들어간 재화(災禍)의 진상은
종전 직후부터 역대 미국 정부의 조작 결과라는 것밖에 밝혀진 것은 없다.몇 해 전,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한미 석유협정이라는 것을 놓고 연일 토의가 벌어졌다. 협정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안으로서 그 예비토의에 참가한 한 정부관리는 “하도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이 남을까봐 첫 회의 이후에는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협정안이 양국 정부에 의해 그대로 조인되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이 국회심의에서 한 전직 장성이 그 일방성을 짚으면서 강력히 수정을 요구했다. 항목마다 지적하는 이 국회의원에 대해 본과위원장은 “누구나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측이 꼭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문제 삼으면 한·미 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냥 통과시킵시다”라고 발언을 제지하고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다. 그에 관한 의사록이 있다. 한국 국민의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는 국가이익이라는 이름 아래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표현을 빌린 내용과 실태를 분석해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어느 특정 개인, 또는 어느 특수 이익집단과 세력임이 드러난다. 한국의 외채고(外債高)와 상환 전망을 보도하여 한 신문사가 발각 뒤집힌 기사의 내용은 정부 경제정책의 이해이며, 외채와 관련된 재벌들의 이해관계다.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국군의 전사상(戰死傷) 상황 보도가 국가이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파월을 결정한 정부나 전사자 공개를 꺼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군부의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강변 여인 살해사건이 어떻게 해서 국가이익과 관련되는지도 해명되지 않는다. 대만(臺灣)으로 패배해 온 1949년 이래 여태까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국부(國府)사회에서는 공식발표 외에는 모든 것이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강변되고 있다. 그 결과는 지금 세상의 눈앞에서 비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진실을 따지고 보면 국가이익이나 국가안보라는 것은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군 이동이나 작전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실이 진실대로 밝혀짐으로써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 해롤드 라스키가 “권력자란 자기의 부정과 과오를 은폐할 수만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부정하려 한다. 그리고 권력자에 의한 이 자유의 부정이 성공할 때마다 다음 번에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그만큼 쉬워진다”(『현대국가에서의 자유』)라고 말한 것은 통치세력의 논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거의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통치자의 논리로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뉴욕 타임스』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어떤 원리가 되어준다.

‘안보’라는 용어는 광범하고 막연한 뜻을 지닌 일반적 개념으로서, 제1개정조항에 구현되어 있는 기본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그 개념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적·외교적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참다운 안보를 위하는 소위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은 1937년 대법원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에 참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위인이며 명판사인 당시의 휴즈 대법원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용변으로 풀이되었다. “우리의 제도를 힘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를 지켜야 할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한다면 평화적인 수단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유로운 정치토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바로 거기에 공화국의 안보가, 입헌정부의 토대가 놓여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의 한마디에 그친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국가이성은 처음부터 이성적 토의를 그 분야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원리다. 바로 이처럼 간단한 이유에서 그것은 자유와 어울릴 수 없다. 국가이성은 진리도 정의도 전제하지 않으며 오직 행복을 요구한다(해롤드 라스키, 『현대국가에서의 자유』).

밀리터리 멘탈리티 문제된 비밀문서는 한 정부의 최고위 정책수립 과정이 밀리터리 멘탈리티(군대식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배되고 추진되었음을 증언한다. 이제는 그 조작과 허위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만 통킹만 사건이라든가, 베트남 주변국가를 향해 수년 전부터

은밀히 본격화해온 군사 파괴작전 같은 것은 그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이 그 본질상 군사지도자들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전반적 전략구상에서 군부의 발언권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국제적·도덕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무력(武力)의 논리'에 도취되어 전쟁의 도덕성과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도 무시하고 승산 없는 군사적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신구조를 뜻한다. 전쟁이란 어느 정도의 불법행위를 수반하게 마련이라 해도 비밀문서로 폭로된 크고 작은 모든 음모가 군부에 의해 착상되고 조직되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국민이나, 한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바로 그 반대를 믿으면 된다'는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확립케 한 책임은 군부에 있는 듯하다. 정부 내의 어느 당국도 군부가 꾸미고 있는 음모를 모르는 수가 많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것을 부인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월맹(越盟)에 대한 공격작전에서부터 베트남전에 정식으로 개입하기 이미 오래전에 월맹에 침투공작을 전개하고 있던 일들도 크게 놀라운 것이 못 된다. 놀라운 것은 한 단계의 음모가 폭로되고, 실패하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음모를 조작하고, 그 결과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대통령과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 더욱 큰 실책으로 국가를 끌고 들어간 행동이다. 미국의 군부는 확실히 '국가 내의 국가'를 형성한 감이 있다. 군사적 고려는 정치적 고려를 지배했다. 무력의 논리밖에 모르는 군인들이 국가기능의 종합적 서열을 무시하고 군사적 상위에 서는 정치정책에 도전할 때 국가는 그 이성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일본의 예는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비극이다. 군대식 사고방식은 미국의 군사적 모험의 누적이 국내적 사회분배 상태를 위기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음모와 모험의 취미를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본다. 밀리터리 멘털리티는 군장성에만 한한 것이 아니다. 로스토나 번디 같은 관료화한 민간 지성인에게도 그 멘털리티의 노출을 본다. 또 밀리터리 멘털리티가 전쟁정책 수립 과정에 한정된 문제라면 차라리 안심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모든 정책이 정치·외교·경제적 분야와 아울러 군사적 측면을 강하게 내포함을 생각할 때 이 군대식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상황이나 정신풍토 및 세계관은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예상케 한다. **현실론과 현실주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베트남전쟁의 장기화는 미국 사회를 병들게 했다. 장기화가 문제가 아니다. 그 전쟁 자체가 미국의 숭고한 건국정신과 정의를 사랑하는 미국의 국가이념과 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국민 자신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토록 미국인의 정신과 사회를 병들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현실주의자'들이다. 비밀문서가 커버하고 있는 종전 직후부터 1967년까지의 전 기간을 통해서 그 비극적인 전쟁확대는 현실(상태)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현실을 올려 쌓으려는 '기정사실화'의 연속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대통령도 장관도 보좌관도—각 단계의 무비판적인 기정사실화의 역사를 비판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어제의 현실의 직선적 연장선상에 그대로 오늘의 현실을 설정하고 또 다음에는 그 연장선상에 내일의 현실을 설정하는 것이 미국 위정자들과 국민 전반의 의식이었던 듯하다. 물론, 베트남 비극의 초기부터 무비판적으로 기정사실화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역사의 단면'으로 보는 많은 지성인들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뉴욕 타임스』나 『뉴 리퍼블릭』 같은 지성인의 대변지들이 기정사실 = 현실 = 타당 = 필연성이라는 공식화를 꾸준히 거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의 기만적 선전과 사관(史觀)의 미숙 때문에, 정부가 꾸며나가는 기정사실화를 그대로 역사로 시인하는 편이었다. 그 결과는 현실주의의 파탄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레스턴은 "정책수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정책의 윤리성을 생각하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통킹 만에서 월맹 어뢰정이 불법으로 미국 순양함을 공격했다는 조작으로 의회로부터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정부와 군부는 의회 결의와 흥분으로 도착된 미국인의 감정을 '현실'로 하여 다음은 대규모 폭격을 '현실화'한다. 이

현실이라는 것이 역대 행정부와 군부에 의한 조작과 허구의 '연속의 단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회 결의에 반대한 상원의원은 100명의 의원 가운데 모스와 구루닝 두 사람뿐이었다.

폴브라이트 같은 의원조차 '현실적 대응책'이니 할 수 없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언론기관이 통킹만의 진상을 알았던들, 알아낸 신문이 그것을 용감하게 보도했던들, 이런 일은 '그날의 현실'로 끝나고 내일의 현실은 직선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각도의 선상에 있었을 것이다. 집권세력과 어떤 권력집단, 예컨대 군부 같은 것이 국민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수법이 이 현실주의다. 오늘의 현실을 수정하지 않으면 내일의 현실이 우리를 구속할 것이라는 지성인들의 사관만이 이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지성인들은 역사의 '현실'을 수락할 뿐 역사에 '작용'하려 하지 않았다. **매카시즘의 결과** 『뉴욕 타임스』 대 정부의 소송사건이 언론의 승리로 끝나고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듯 닉슨의 중공 방문이 발표되었을 때, 오웬라티모어 박사는 미국의 30년에 걸친 불행은 매카시즘의 반지성주의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진단했다.

베트남전쟁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미국의 사회적 와해와 국민도덕의 타락은 '부정적 가치' 즉 반공주의의 사상통제의 결과라고 그는 단정했다. 그는 1950년대에 매카시즘의 공포 분위기와 사상통제의 반지성주의가 철저히 미국 국민의 창조력과 자유를 위축시킨 탓에 정부와 학계와 여론지도층에는 거의 어용적 성격의 지식인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 개념'이며 창조적 상상력이다. 반공주의란 부정(否定) 개념이며 그것 자체로서 소모적이며 파괴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격화와 확대로 미국 사회가 반사적으로 경찰국가적 성격을 질게 하는 가운데서도 비판과 정의의 소리를 꾸준히 외친 사람은 있다.

폴브라이트, 한스 모겐소 등 소수의 지성인은 매카시즘의 '빨갱이 잡이'(witch hunting)의 시련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 용기 있는 지성인이고 애국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성인은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이 파괴적인 사상통제의 압력으로 공직을 떠났거나 침묵을 선택했다. 라티모어 박사는 미국이 세계에 자랑할 모든 가치와 전통을 매카시즘이 철저히 짓밟았다고 항의한다. 그 자신도 매카시즘의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반공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으려는 공포정치의 책임은 바로 오늘의 대통령 닉슨 본인에게도 있다. '빨갱이 잡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라네트 핸드 판사는 "시민이 그 이웃을 적이나 간첩이라는 생각으로 살피도록 명령받는 사회는 이미 분해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미국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는 날카로운 경고를 했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한 권력자나 사상적 광신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태를 개탄한 한 신문은 미국의 장래를 다음과 같이 걱정했다.

미국의 병은 정신과 영혼의 병이다. 종교재판의 이단자 탄압이나 소련의 비밀경찰, 히틀러주의와 스탈린주의, 쿠 클럭스 클랜(KKK, 미국의 극우적 인종주의 단체)과 같은 사악한 세력을 모조리 합친 병이다(D.F. 플래밍, 「우리는 파시즘을 향하고 있는가」, 『저널 오브 폴리틱스』 (Journal of politics), 1954년 4월호).

자유를 수호신을 자처한 미국 국민을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자유의 파괴자로 만들어버린 매카시즘에 대해서 1953년 버트런드 러셀조차 미국의 장래를 두려워한다고 예언했다. 33개 주가 법률을 제정하여 교사와 교수에게 충성을 선서시키고 리버럴한 교과서를 금지했으며 조금이라도 반공주의의 건전성에 의심을 표하는 서적은 불살라졌다. 리버럴한 간행물을 서가에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장이 파면되고, 해외에 있는 미국공보관·문화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자 읽을 만한 서적은 자취를 감추고,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밀려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미국 집권세력은 60년대의 국가적 파탄을 '애국과 반공'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경찰국가적인 감시제도는 6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처음 충성 테스트의 대상은 정부의 피고용자(공무원) 250만에서 확대되어 군인 300만, 방위관계 계약기업체의 피고용원 300만에까지 이르렀다. 800만의 시민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이름 공개 의무를 지지 않는 밀고자·감시자들의 한마디면 언제나 반미행위위원회나 당국에 출두하여 충성심을 입증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미국의 반지성·반이성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대의 반공활동을 한 사람도 안전할 수가 없었다. 1953년 10월 당시의 검찰총장(법무장관)은 전 대통령 트루만이 소련의 간첩을 은닉했다고 주장, 정식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케네디 등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이 나왔고, 얼마전까지도 미국의 지적 풍토 속에서 웬만한 학자·작가·교수·기자들은 추방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어용으로 화했다. 이것이 『뉴욕 타임스』와 같이 훌륭한 언론기관이 있으면서도 진정한 사상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미국 내에 존재할 수 없게 됐던 경위의 일부다. 위대한 반공주의자 매카시는 10년 후 미국 사회의 분해를 초래한 셈이다. 『뉴욕 타임스』라는 언론기관과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진정한 지성인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지성적 풍조는 이제 큰 전환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소년이 왕의 알몸을 폭로할 때까지 오랫동안 온 지식인과 백성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사회는 공포와 타락과 암흑 속에 침체해야 했던 그 엄청난 인간적·사회적 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듭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의 불행한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나 국민에게는 영원히 한 사람의 소년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냉전의식의 자기기만성

베트남전쟁 비밀보고서를 상세히 읽고 있으면, 미국 정부 지도자들의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의식형태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그것은 냉전의식(冷戰意識)이다. 『뉴욕 타임스』와 미국의 지성의 승리는 부정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전후 30년 가까운 한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긍정적 또는 적극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새로운 창조적 시대를 향한 문을 열 것으로 믿어도 좋겠다. 방대한 미국 정부 비밀보고서를 3개월 걸쳐 편집한 책임 기자인 닐 쉬언은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30년에 걸친 개입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모든 판단은 베트남사태에서 미국이 본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비밀보고서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판단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의 중심적인 관심사가 처음에는 공산주의의 봉쇄에 있었으나, 그것이 차차 미국의 힘, 그 영향력 및 그 위신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단계에서도 베트남과 베트남 인민의 현지사정은 전적으로 무시되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사적 방향은 식민지 인민의 해방과 독립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방된 베트남 인민의 독립을 분쇄하고 재식민지화하려고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에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한 것이다. 트루만 정권의 이와 같은 행동이 역대의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그리고 닉슨)의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기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냉전의식의 자기기만성은 정부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지배층을 구성하는 군부·경제계·재계·극우익 등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성인들의 가치관마저 쪼먹었다. 지성인들만이라도 냉전의식의 소모성과 부정적 해독과 자기기만성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미국 사회와 국민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냉전의식은 너무도 큰 희생과 대가를 미국 시민에게 치르게 했다. 미국은 창조력을 가진 대국가이면서도 자기 제도와 이념의 자유로운 창조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세계의 작은 국가와 인민의 솟아오르는 목표와 염원과 해결을 까부수는 데 전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미국의 힘은 무엇인가 남의 가치를 ‘반대’하기 위해서만 쓰여졌다. 미국의 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가치관이나 태도에서는 건설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남의 가치나 이념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바깥세계와 절연하는 장벽을 쌓아 둘러야 하고, 국내에서도 모든 종류의 장벽을 겹겹이 쌓아 둘러야 한다. 이런 비창조적인 사고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위에 온갖 명분의 높은 장벽을 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배제해버리는 공포사회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바로 부정하려는 제도나 사고방식에 자기가 변질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죄목 규정도 하지 않은 귀걸이 코걸이식의, 집권자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해석될 수 있는 금지법률이 잇달아 제정돼야 하고, 모든 교육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알맞게 개편돼야 한다. 널리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 또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식의 교육처럼 자기기만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두고두고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해독을 끼치고 세계의 많은 민족과 국민들의 생활무대에서 자유로운 창조로 경쟁하고 인류문명에 공헌할 기회와 자격을 박탈하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신생(新生)의 감격과 민주적 자부를 안고 해방된지 오늘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에 민족적인 특유한 자질이나 인류문명에 공헌할 수 있는 무엇 한 가지라도 이룩했거나 창조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제도 속에 넘칠 만큼 풍부히 간직되어 있는 자유와 창조의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품고 무엇인가 문명에 공헌할 큰일을 하려 하지는 않고, '부정적·방어적인 정신상태'에 빠져버린 나라의 국민이 겪어야 할 진화로의 역동(逆動)을 미국에서 배우게 된다. 잠재력이 크고 기본적으로 창조적 정신을 그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정신적 유산과 전통적 바탕이 약한 우리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가의 목적이 그와 같은 부정적·방어적 냉전의식으로 좁혀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자기기만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믿는 서방사회에서의 대만·베트남·태국·필리핀·터키·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도 물론,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나 민족은 세계의 조류에 역행하고 뒤떨어지고 내부적 침체와 후퇴로 전후 30년을 지내왔다. 지금은 전후시대가 아니다. 세계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오늘,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집권세력도 그리고 국민도 부정적 가치관으로 자기만을 기만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시대다. 냉전시대의 기이한 신화·우화·권위의 실태를 묻는 회의가 필요한 때다. 냉전용어의 반지성성과 같은 인식이 섰을 때 제1차적으로 시도해야 할 지식인의 과업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냉전용어를 정리·청소하는 문제이겠다. 옛날 공자(孔子)는 한 제자한테서 만약 제왕이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공자는 서슴지 않고 "바른말을 쓰도록 백성을 가르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른바 정명론(正名論)이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견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말'이란 요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예의 바른 말'의 뜻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관념(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라고 풀이함이 나올 것이다. 인식은 관념을, 관념은 개념을, 그리고 그 개념을 담은 용어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관념표상의 작용을 일으켜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상을 표현·전달하려는 용어가 그 사상의 내용이나 성격의 정확한 반영이 아닐 때에는 전달된 뜻이 더욱 왜곡·변형되거나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일그러진 유리를 통해 보는 사상은 일그러질 것이고 그것으로 형성된 개념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공자의 말은 오늘날 진실과 지성과 이성을 회복해야 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제시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출판물에서 전후 냉전시대에 일시적인 편의 덕분에 만들어진 술한 '정치성을 띤' 용어가 아무런 비판 없이 상용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성격의 언어는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국민이 정확하게, 진실 그대로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시대적 기능을 면제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왜곡되고 혼란해진 내부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긴급한 과제다. 예컨대 우리 국민은 '피로 맺은 관계'나 '혈맹' 또는 '영원한 맹방(盟邦)'이라는 표현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교육받아왔다. 심지어 몇 명 안 되는 태국 군대가 철수한다고 할 때도 이런 용어가 신문에 거리낌없이 등장했다. 닉슨 독트린과 미국의 대중공 접근이 알려지자 모두들 분격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다. 그 어느 것도 사실은 피할 수 있었던 반응이다. 그것은 '혈맹'이나 '영원한.....' 등의 용어가 긴 세월을 두고 우리 국민의 머리에 심어준, 처음부터 혼란된 관념인 것이다. 1949년 대만으로 패퇴한 이래 아직까지 계엄령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쓰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자유....."이다. 신문·잡지·방송 등을 보고

들고 있노라면 이와 같은, 그리고 그밖에 얼마나 무수한 냉전용어가 문장과 대화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유 · 괴뢰 · 독재 · 기아선상 · 강제노동 · 집단농장 · 평화 · 민주 · 자유경쟁경제 · 침략 · 간접 침략 · 동맹 · 진영 · 안보 · 파괴활동 · 우방 · 적 · 공산주의 · 자본주의 · 현대화 · 역사법칙 · 국제적 고립 · 반공전초 · 귀순 · 의거 · 해방전쟁 · 호전적 · 숙원 · 공존..... 신문단 한 면 일부분만 훑어도 이렇게 많은 낱말이 나온다. 그밖에 얼마나 많은 냉전용어가 아무런 비판 없이 쓰이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 국민의 진실 확인의 능력을 제약하고 고정관념의 반응조건을 형성해왔는지 모른다. 앞서의 모든 용어가 반드시 냉전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전인수 격으로 지성적 정의 · 규정에 앞서 애증의 감성적 사용법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용어에 기성관념, 고정관념, 감성적 친화감 또는 저항감 같은 심리적 작용이 병행할 때, 세계의 모든 사상은 흑과 백, 천사와 악마, 올 오어나싱, 죽일 놈 살릴 놈 등의 양(兩) 가치적 사고형태를 결과한다. 이것처럼 지성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요소도 드물다. 이런 양가치적 사고방식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사회와 국가의 기본목적인 '진리를 구현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방해하게 마련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굳어져버린 사람이나 세력은 세계와 국내의 모든 '사실이 사실대로' 보도 ·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진실 또는 진리에 반대하는 힘 또는 세력은 대중이 진리를 배우도록 훈련 · 교육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믿을 것을 강요하고, 가르치는 것은 흑백뿐이다. 이제는 용어에서 '정치성'을 빼고 '학문성'으로 대치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오늘날 교육(직접 · 간접)이라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기만당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정의해도 결코 부당한 말은 아니다. 이와 같은 기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현재로는 사회의 지배자들이다"라고 갈파한 서양의 유명한 석학의 말은 귀담아들을 가치가 있다. 자유의 나라 서구에서도 그렇다. 하물며.....마지막 남은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젊은 학자가 『뉴욕 타임스』라는 입을 빌려 진실을 밝힐 때까지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미국 국민과 지도자들의 가치관이 이런 것이었다. 남의 실패는 나의 교훈이 되어 한다. 미국 국민의 실패가 자칫하면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거나, 현재 이미 전철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에게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배우지 못한 국민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또 인류와 더불어 향상하고 진보하기를 바라는 점에서 어느 한 국민이 그 교훈을 통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 인류의 손실이겠다. 회서(戲書) 2제(題) 베트남전쟁 비밀문서가 강대국과의 '피로 맺은 혈맹' '영구불변할 우방'을 국가관계의 기조로 믿고 있는 많은 후진국 지식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것만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의 발췌는 베트남전쟁을 하는 미국의 성스러운 목적을 믿었거나 아직도 믿고 있는 후진국 지식인들에게 약간의 생각해볼 만한 근거가 되어준다.

자료 36 맥노튼 국방차관보가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보낸 각서에 첨부한 「부속문서-남베트남을 위한 행동계획」의 첫 초안(1965. 3.24) 미국의 목적 70퍼센트: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를 저지하는 것(보호자라는 우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20퍼센트: 남베트남(및 이웃국가들)의 영토를 중공의 손에서 지키려는 것. 10퍼센트: 남베트남 인민에게 보다 나은 자유스러운 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 그리고 수락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을 피하면서 위기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나 만약 철퇴가 불가피할 때는 우리의 목적은 '우인(友人)을 돕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한다(이하 '정세'부분 등 생략).

자료 29 사이공에서 국무성에 보내온 항공우편의 발췌(1964. 12.24) (원문의 주: 이것은 국무성 문서 중에 들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주월대사 테일러 대장과 알렉시스 존슨 부대사가 이른바 베트남 군부지도자들 '청년장교'와 회견했을 때의 것. 장교들 속에는 구엔 카오 키, 구엔 반 티우, 구엔 찬 티 그리고 칸이라는 이름의 제독이 있다). 테일러 대사 제군은 모두 영어를 아는가(티우 장군은 영어를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베트남군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웨스트 모얼랜드 대장이 베폰 야식회(夜食會)에서 '우리 미국인들은 쿠데타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소리는 하나마나였던 것 같다. 제군들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질 않는다. 제군이 하려는 계획은 모두 정부의 안정이 이루어진 뒤에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런데도 제군은 또 대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래서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이 가운데 대표는 누군가? **키 장군** 저는 대변인은 아니지만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어를 잘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우리 국민이 치러온 희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안정을 바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통일이 없으면 안정이 안 됩니다(그리고 쿠데타를 한 이유를 설명). **티우 장군** 헌법상 국민평의회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평의회 위원들은 전쟁할 의사가 없습니다. **키 장군** 국민평의회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쿠데타 경위를 설명). **테일러 대사** 나는 제군 신사들의 성의를 존경한다. 그럼, 제군이 저지른 사태의 수습책을 논의하자. 그 전에 얘기할 사람은 없나? **칸 제독** 우리는 마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테일러 대사**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생각인가를 말하지. 제군이 마치 훌륭한 정치가인 체하며 그런 행동을 저지른 덕택에, 지난 가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인민정부가 자라기도 전에 깨부서졌다. 키 장군, 당신은 원대복귀할 수는 없다. 군대가 또 정권을 쥔 것이다. 제군은 목덜미까지 정치에 빠진 것이다. 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칸 장군인가? **키 장군** 예스 씨.....(국민평의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베트남 장성들을 설득하는 대화) **테일러 대사** 우리 미국 측에게 이걸 아주 두통거리다. 앞으로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계속 제군들을 지지해나갈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제군은 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인(友人)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다시 이런 소리를 해야 한다니 참 어처구니없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일은 산적해 있는데, 참..... (우편 내용 끝).

권력과 언론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위에서 훑어본 바와 같이 많은 교훈을 내외에 주었다. 그것들은 모두 귀중한 교훈이다. 『뉴욕 타임스』와 엘스버그의 행동은 미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과 국민 일반, 특히 지식인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부의 독선과 비밀주의는 국민 전반의 성격과 지식을 변칙적일 만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독선과 비밀주의는 본래 사회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을 국민의 정력과 능력의 광범한 해방을 저해한다. 또 모든 권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다수의 욕구·견해·필요·복지가 버림을 받는다. 이 두 가지 결과는 사회의 손실일 수밖에 없다. 둘째, 소수의 권력자나 정책 수립자들의 비밀주의의 결과는 또 그 세력자 또는 지배계급(층)과 국민대중과의 대립을 초래하고 만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국민과 유리되며 마침내는 권위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만사는 해결된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미국 정부와 지난 몇 해 동안 일어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분해현상과 국민의 저항으로 입증되었다. 소수 집권 세력의 이와 같은 권위는 반드시 국민으로 하여금 회의를 갖게 하여 그에 대한 집권자의 반응이 탄압적일수록 회의는 번지고 심화된다. 결과는 미국에서처럼 집권세력의 권위의 분쇄로 끝을 맺는다. 셋째, 소수 권력자들의 자유 억압정책은 국민에게 운명적인 열등감을 갖게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억압 속에서 자라고 살아온 인민은 민주주의의 두 개의 기둥인 질서와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욕망도 상실해버린다. 말하자면 구실과 명분이야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소수자의

체면·이익·권위·안전만이 주안(主眼)인 그런 정치와 체제는 인민에게서 주체성과 책임감을 박탈해버린다. 이 현상은 후진사회일수록 그 위험성이 크다. 끝으로, 이와 같은 통치세력과 피치(被治)대중 사이의 모순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산속 굴에 들어가서 ‘왕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는 소리도 그 소리가 모이면, 몰랐던 사람에게도 진실이 알려질 뿐 아니라 언젠가는 맞대놓고 ‘임금은 벗었다’고 말하는 많은 소년이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문학과 지성』, 1971년 가을호

1-2. 「베트남전쟁」 (1972년 『창작과 비평』, 전논)

우리는 이제 전후 30년을 살아온 냉전(冷戰)의 시대에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성의 눈으로 세계를 살펴보기 시작한 오늘, 어느 나라의 지식인도 민중도 냉전시대의 사상적 특징인 ‘부정적 가치관’을 고집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것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려던 국가와 국민에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했다.

냉전시대의 부정적 사고방식은 자기부정을 결과했을 뿐이다. 우리도 뒤늦게나마 냉전시대의 기이한 신화·우상·권위의 실태를 캐어내는 회의를 품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사상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 우리 사회와 우리 민중의 세계관을 형성한 냉전사상은 냉전용어의 주변에 형성되었다. 얼마나 많은 냉전시대의 정치 선전적 용어가 아무런 비판 없이 쓰이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얼마나 우리 민중의 진실확인 능력을 제약하고 스테레오타입적인 조건반사적 사고반응을 일으켜왔는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냉전용어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의 모든 정치적·사회과학적 사상을 흑과 백, 천사와 악마, 죽일놈과 살릴 놈, 악과 선의 이치적(二值的) 가치관으로만 판단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처럼 지성을 마비시키고 격변하는 세계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태롭게 만든 요소도 드물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라는 성경의 말은 신(진리)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자는 옛날, 만약 제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 서슴지 않고 “바른말을 쓰는 습관을 백성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버릇”이겠다. 정확한 언어로 표시되지 않은 개념은 대상의 정확한 전달을 그르치게 마련이다. 이 인식과 정은 순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결국은 인식하는 주체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왜곡하게 된다. 이것이 냉전시대를 정상적 상태로 알고 살아온 한국 민중의 인식형태가 된 것은 당연하다. 이런 정치 선전적 언어에 대해서, 현재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우리 민중이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편견 없이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 한때의 시대적 기능을 면제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국면에서 그 작업이 가장 시급한 것은 베트남전쟁에 관해서다. 베트남전쟁은 현대의 모순의 집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태초의 말씀’과 ‘바른말’의 정신으로 베트남전쟁을 볼 수 있다면 모든 정치적 선전과 조작된 관념을 뚫고 현재의 세계정세와 인류의 역사적 움직임을 더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의식적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실태와, 그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기본적 사실의 인식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정은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 당사자의 쌍방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데서 더욱 복잡해진다. 더욱이 한국 민중에게 그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 베트남전쟁을 미군 개입 이후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미국의 개입을 합리화한 설명은 '월맹(越盟)의 침략'이라는 것이다. 우리 민중은, 우리 국가정책이 미국과 일체화되어 있던 사실로 말미암아, 단순히 '월맹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뜻은 그 전쟁의 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검토해야 한다. 베트남전쟁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이 현대적 성격을 띠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30년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다. 그러기에 쌍방이 상대방의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성격의 전쟁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주장은 잘 알고 있는 터이기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반론과 객관적·역사적 사실들을 찾아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언어(용어)로 복잡한 전체의 내용을 성격지어려는 습관이나 심리적 유혹에 앞서 하나의 분석태도를 꾸준히 지니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문제를 검토하자.

케이스 우리는 국경에 따라서 군대가 동원되고 국경을 넘어서 물리적으로 외국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유형의 침략에 비해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며 분명하지도 않은 침략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베트남)전쟁이 전자와 같은 정도의 침략이라는 우리의 견해에 불찬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지 케난 베트남에서 우리가 현재 대치하고 있는 쌍방에 대해서 침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사고의 혼란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 분쟁은 지극히 복잡한 배경, 그리고 지극히 긴 역사적 배경을 지닌 것이며 그 대부분은 남베트남 내부에서 일어난 사태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베트남의 경계선은 아주 독특한 성격의 것입니다. 본래 그것은 두개의 국가의 경계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실들로 미루어 정부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략이라는 용어를 쓰면 문제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굳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어떤 국가에 대한 타국 군대의 '침략'이라고 말할 수 없지도 않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용어의 확대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남베트남 내부의 내란적 분류이며, 바로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트남은 외부세력이라든지, 외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세력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단정해야 할 일은 아니겠습니까.

케이스 그렇습니까. 베트남이라는 특정지역의 특정정세에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실문제라는 말이군요.

조지 케난 그렇습니다(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베트남문제 공청회 의사록, 1966.2.10, 목요일).

베트남 사태의 단계적 변화

베트남 사태는 오늘의 정세발전이 내일의 현실로 기정사실화되는 긴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원점에서부터 살펴보아야 사태의 전모에 대한 시각이 정립된다. 즉 각 단계마다 '기본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베트남 사태는 크게 나누어 4단계의 정세발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 ①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화(1863.5)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근 100년에 걸친 베트남 인민의 식민지민족 항불(抗佛) 해방투쟁.
- ② 전(全) 베트남민주공화국 수립(1945.9)부터 전후 베트남 민족해방 항불전쟁의 승리를 고한 인도차이나 휴전협정 성립(1954.7)까지의 투쟁.
- ③ 남베트남공화국 수립(1955.10)과, 그것으로 베트남의 통일을 위한 제네바협정의 총선거 실시 협약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베트남의 반영구적 분단이 고정된 사태.
- ④ 그 이후 남베트남(越南)에 내란이 일어나고 미국과 북베트남(越盟)이 개입함으로써 미국과의 전쟁으로 변모, 확대된 현상태.

이중 ③의 단계는 기간은 짧지만 그 후 베트남 사태의 발전에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치적 사실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크다. ④의 단계는 몇 가지의 '사건' 또는 사태발전으로 구획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현상적 변화'였으며 '질적 변화'의 성격으로는 하나의 단계로 총괄되어야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항불(抗佛) 식민지 해방전쟁

베트남 사태의 모든 요소와 국면의 뿌리는 앞서 조지 케난이 말한 것처럼 길고 복잡한 역사에 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한마디로 외세간섭으로 분열된 민족의 통합과 식민지외세로부터의 민족해방투쟁의 역사다.

10세기를 넘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베트남 민족은 역대 중국왕조의 동화정책에 반항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100년의 프랑스 식민지정책에 대한 해방투쟁을 끈질기게 계속했다. 북베트남은 물론이지만 남베트남의 민중(정권과 지배층은 잠시 미루어두고) 사이에서 나타나는 외세반대의 사상과 에너지는 이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노일(露日)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지식인들의 가슴속에 민족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이 용솨음친 것은 아시아와 그밖의 일본 및 유럽 백인 식민지하 민족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

당시의 중국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베트남 지식인들은 일본과 식민모국 프랑스에 유학했다. 아시아민족의 힘을 새로이 확인하고 프랑스혁명과 아메리카혁명의 정신을 배워온 지도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기대가 컸던 만큼 그 후의 민족적 좌절이 컸던 것도 당연하다. 윌슨의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이 그 당시 유럽 백인열강들 사이의 세력조절과 유럽 안전의 역사적 화근인 발칸지역을 그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아시아 피압박민족의 지도자는 별로 없었다. 백인열강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의도를 통찰하지 못했던 베트남 독립운동 지도자는 후일의 호치민(당시 이름 阮愛國)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그것은 1917년 당시 프랑스 식민지하의 베트남 인민의 상태이기도 했다.

윌슨의 14개 항목 원칙에 흥분한 호치민은 전당포에서 빌린 검은색의 정복과 펠트모자로 단장하고 많은 아시아와 중동의 식민지민족의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칭'대표들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의 으리으리한 방을 이리저리 헤매었다. 그러나 정열로 두 눈이 빛나는 28세의 이 젊은 베트남 지식인은 독립을 꿈꾸는 모든 식민지민족의 대표들이 겪은 운명을 맞보았다.

클레망소(프랑스 수상), 로이드 조지(영국 수상), 윌슨(미국 대통령)은 물론 이 회의에 모인 어느

강대국의 지도자도 그를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면회신청이 이들 강대국 지도자들의 하급 사무원의 서류함에서 나와본 일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베르사유 평화회의의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베트남이건 안남(中部)이건 그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호치민의 8개 항목으로 된 온건한 요구조건은 독립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다만 식민자와 피식민 인민의 평등, 기본권리, 더 많은 학교 건립, 명령에 의한 프랑스 통치를 법률에 의한 것으로 대체, 베트남 내부문제에 대한 프랑스 통치의 자문을 위한 원주민 대표의 임명을 요구하는 정도였다. 식민지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베르사유 평화회의의 거부와 실패는 그 후 독일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에 실패한 결과로 나타난 것에 못지않은 중대한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Bernard Fall, The Two VietNams, p.88).

제국주의적 식민세력이라는 힘에 의해 패배당하기 전에는 그 단물(甘汁) 흐르는 식민지를 내놓은 역사가 없다는 준엄한 사실이 많은 아시아 피식민민족을 눈뜨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베르사유 평화회의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대체로 남부·중부·북부의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통치 방법으로 베트남 민중의 내셔널리즘을 억제했다. 베르사유의 교훈은 베트남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을 파리에서 모스크바와 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1923년 명문 출신이라는 호치민이라 칭하는 자가 파리에서 모스크바로 들어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방법을 연구하고 30년에는 홍콩에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결성했다.

손문(孫文)의 민국혁명과 그것을 이어받은 장개석의 국민혁명도 초기에는 베트남의 항불독립운동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많은 독립지사들이 중국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 후 중국의 국공대립은 이들에 대해서 당파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열흘도 못 가 프랑스가 망하고 프랑스 본국에 나치독일의 괴뢰인 비시 정권이 서자 아시아에서는 일본군이 북부 불령(佛領) 인도차이나에 진주했다. 태평양전쟁 발생과 동시에 호치민은 베트남 인민의 전 민족적 무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국 유주(柳州, 또는 靖西)에서 공산당을 해소하고 “정치적 신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민주주의적 세력을 결집하는 광범한 민족운동”으로서의 ‘베트남독립동맹’(베트민)을 결성한다. 비시 패전 프랑스 식민정권과 점령 일본군부 통치 사이에서, 그리고 그 양 세력을 상대로 한 ‘베트민’의 무력투쟁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인 1945년 5월까지 북부베트남(통킹지역)의 6개 성(省)을 지배하는 힘으로 성장했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과 장구한 내셔널리즘의 전통적 토대로 말미암아 반식민지·항불전쟁이 현재의 베트남이 아니라 월맹, 즉 남부에서가 아니라 북부에서 전개되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베트남 정세를 특징지어주는 전제적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식민주의자의 배신의 역사

무력해방투쟁은 주로 통킹지역에서 전개되었지만 현재의 베트남을 구성하는 중부(安南)와 남부(交趾支那)에서도 민족해방의 운동은 끊임없었다. 보다 투쟁적 형식을 취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전후 프랑스 정부는 베트남의 지배를 위해 다시 들어왔다.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해방 전 조선에서 패배한 일본이 다시 식민지통치를 위해 종전과 함께 한국으로 군대를 진주시켰다고 가정하는 상황과 같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 재통치를 그 뒤에서 전승국가가 돕고 있다고 가정할 때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운 1945년 8월 당시의 한국 민중이 어떤 반응으로 대했겠는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식민세력에 대해서 무력투쟁으로 상당한 지역을 해방시킬

만큼 희생을 치른 민족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당시 상황은 남부베트남을 점령했던 영국정부의 공식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베트민은 남부 불령 인도차이나의 주요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안남인(安南人)에게 단계적인 자치정부의 형태를 제의했다. 그러나 안남인들은 당장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된 9월 17일 베트민은 사이공 시를 완전히 철시하고 프랑스 고용주들에 대한 총파업을 실시했다.....(동남아시아 연합군최고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보고서 「인도차이나 분쟁에 대한 영국 개입에 관한 공식문서」, 1965.12, 영국 외무성 발행 문서집 문서 제1호 제24항).

1945년 7월의 포츠담회담은 베트남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둔 일본 패잔군의 무장해제와 전후행정의 편의를 위해”복위 16도(현재와 같은 17도가 아님)선 이남을 영국인이, 그 이북을 중국군이 점령한다고 합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체 없이 인도차이나 전 식민지에 대한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려고 했다. 이를 승인·지원한 영국은 마운트바텐 원수의 동남아시아사령부(세일론)에 프랑스 군사사절단의 설치를 허가하고 프랑스 민간행정관들을 훈련하여 프랑스군의 베트남 재점령을 도왔다.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지역이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이 조치는 어쩌면 불가피한 ‘잠정적 조치’였는지 모른다. 사이공에서 이와 같은 영·불의 점령정책에 항거해 무력투쟁을 벌인 베트민 세력은 두 제국주의·식민국가 당국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섬멸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영국 공식문서의 뒷부분은 남베트남의 베트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이공의 이 폭동은 주로 비정치적인 것이었으며 불안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불량배들의 짓이었다.

프랑스는 사실 유럽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하여 1945년 3월,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합친 인도차이나 불령 식민지 5개 지역을 연방화해, 연방의 실권을 1명의 총독에게 주고, 형식상의 원주민 자문회의를 설치해 인도차이나를 재지배하는 정책을 선포했다. 민족해방과 독립을 요구하고 있던 인도차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은 일제히 이를 반대했다,

1946년 2월, 16도선 이북에 진주했던 중국 군대가 철수하자 프랑스총독부는 프랑스 군대를 앞세우고 북부지역으로 들어갔다. 베트남민주공화국은 프랑스군의 진주를 반대하지 않는 대신, 프랑스 정부는 ① 베트남민주공화국을 프랑스연방의 일원으로서 정부·군대·재정·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인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② 안남(중부)과 교지지나(交趾支那, 남부)를 병합해서 단일 통일국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고 ③ 프랑스 군대는 5년간에 걸쳐 베트남 군대로 교체되며 ④ 그 이상의 세부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상해서 해결한다는 협정에 동의했다(1946.3.6, 협정).

그러나 프랑스는 이 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20일 후에 남부에 ‘교지지나공화국’임시정부라는 것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 식민주의 프랑스의 두 번째 배신은 베트남 인민을 격분시켰고 그로부터 주로 북부에서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과 프랑스 식민군대 사이에 전투가 재발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재지배하기 위해 중국 군대의 북부 철수를 중국 내 프랑스의 이권을 포기한다는 것과 교환조건으로 장개석 정부를 유화했다. 그 조건이란 ① 중국 내 프랑스 치외법권의 포기 ② 프랑스 자본으로 건설한 하이퐁에서 곤명(昆明)까지의 철도에 대한 중국 권리 인정 ③ 중국의 하이퐁 항 및 그 주변지대의 출입권 승인이다. 베트남을 희생으로 하는 강대국 이익 위주의 해결 형식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

이 잠정적 해결방안에 대해, 베트남 민족을 대표한 베트남민주 공화국 호치민 대통령이 동족을 배신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즉 그에게 통일·독립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중부와 남부의 베트남인을 사실상 프랑스 식민지하에 내맡겼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보호적 세력이 물러나고, 영·불의 식민주의적 공동압력 앞에 놓인 해방세력의 역량으로서 그 외의 방법이 있었겠는가는 문제이겠다. 어쨌든 해방을 위해 싸운 베트남 전 인민의 노예화냐, 절반만의 노예화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한 정세를 배경으로 생각할 문제이겠다.

프랑스의 의도는 명백했다. 힘에 의해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기까지는 절반이라도 식민지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식민투자는 지금의 베트남인 교지지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치 독일에 의해 일패도지(一敗塗地)되어 사실상 전후의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해버린 프랑스는 '위대한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서도 식민시장을 버릴 수 없다는 결심이였다.

중부와 남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노력은 4개월후 프랑스의 퐁텐블로에서 열린 회담에서 보기 좋게 거부당했다. 호치민은 문화·경제에 한정되고 베트남민주공화국 지역에서의 휴전과 프랑스군의 철수를 새로 규정한 잠정협정만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이상으로 3월 6일 협정을 강요한 물리적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이 8월 협정에 앞서 최소한 남부만이라도 분리 지배하려는 프랑스는 남부에 '교지지나공화국' 정부라는 것을 수립했다고 선포했다. 이것은 분명히 3월 협정에 대한 배신이였다.

8월 협정도 폐기되었다. 유럽지역에서 군사력의 여유를 얻은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역의 군사태세를 강화했다. 그러고는 12월 19일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군대의 자발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들이댔다. 최후통첩에 응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을 명분삼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려는 계획이였다. 3일 후 프랑스 공군은 하노이·하이퐁 등 대도시에 대한 전면폭격을 감행하는 동시에 육군은 하노이 시를 점령하고 베트남 군대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했다. 하노이 시 폭격으로 죽은 베트남인만도 단 두 시간에 6,000명을 헤아렸다(D.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 제20절). 베트남 인민은 세 번째의 배신을 맞보았다.

베트남 인민과 제국주의 프랑스군 40만은 이로부터 1954년5월 7일, 디엔 비엔 푸 결전에서 프랑스군이 항복하기까지 실로 7년 반의 혈투를 전개한 것이다. 그것은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차이나 전역에 걸친 전쟁이였다.

미·영·불 등의 공식문서들은 이 처절한 전쟁을 '내란'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을 식민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는 성격 규정과 식민지 인민의 입장에서 보는 민족해방전쟁의 성격 규정을 단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내란'이란 합법적 통치권력에 대한 민중의 정권전복 반란의 뜻을 띤 정치적 용어다. 종전 이후에도 프랑스를 베트남의 합법적 통치의 주체로 간주하는 것은 1946년 3월 6일 협정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사실을 백지화하는 견해다.

식민주의자의 가장 큰 배신은 인도차이나전쟁을 종결지은 제네바 휴전협정(1954.7.21, 조인)에서 합의한, 2년 후 즉 1956년 7월에 베트남 독립·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조약의무를 프랑스가 포기한 것이다. 프랑스는 제네바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 이남지역에서 휴전과 관련된 군사적·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총선거 실시를 위한 협의를 하며, 1956년 7월에는 전 지역을

통틀어 총선거를 실시하는 일방(一方)주체로서의 의무(최종선언 제7항)를 서약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합의된 선거날짜를 3개월 앞두고 프랑스 군대를 철수해버렸다. 그리고는 휴전협정을 이행할 조인 당사자인 주베트남 프랑스군 최고사령부를 해체함으로써 휴전협정의 이행은 물론 총선거 실시의 책임도 기피해버렸다.

이것은 식민주의자의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대한 베트남 인민에 대한 배신으로 지탄받게 되었다. 그 후 오늘에 이르는 베트남 사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총선실시 합의의 유산을 끄는 데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돼 있다(이 견해에 대해 미국과 현 베트남 정부는 별개의 해석을 하고 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고 딘 디엠의 등장

베트남 정세의 긴 역사를 통해 가장 빈번히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역할에 관한 견해차다. 이 견해 대립이 대체로 식민지에서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반영하고 나타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정치학 용어로서 어의의 규정을 떠나 실천적 측면에서 나타난 이양자의 비교는 베트남에 관한 한 상당히 대조적인 면을 보여준다.

프랑스가 식민통치하의 호치민 세력을 끝까지 거부한 것이나 현재 미국이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개입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민족주의자는 베트남의 독립과 양립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자는 베트남의 주권·독립을 국제공산주의에 예속시킨다는 견해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실천적 과정을 사태발전의 역사 속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 유익하겠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의 입장을 일단 벗어나는 학문적 태도가 전제로 요구된다.

민족해방과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베트남인의 투쟁은 그들의 일부가 소련혁명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1930년대에 훨씬 앞서서 100년 가까이 계속되어왔다. '민족주의자'라는 규정으로 프랑스와 미국의 총애를 받은 고 딘 디엠이나 '공산주의자'라는 규정으로 배척을 받은 호치민은 이미 그 이전부터 베트남의 식민지해방과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다. 이 사실에서 볼 때, 식민지 베트남민족의 해방·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은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인 셈이다. 내셔널리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치학자들의 정의를 따른다면, 베트남의 반식민·반제국주의는 그대로 내셔널리즘이다. 베트남에 관한 한 민족주의는 본질이고 나머지의 철학은 해방투쟁의 방법론과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회체제에 대한 구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세에 대한 투쟁 과정에서는 전부가 민족주의자라는 데 더 큰 중요성이 있다. 그러기에 차이점은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민족주의자인가다. 이것은 베트남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전전(戰前)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자본주의였다는 역사적 사실로 말미암아 같은 민족주의자이면서 자본주의와 이해관계가 밀착해 있는 세력은 민족해방운동에서 소극적이었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는 반식민지투쟁에서 적극적이었던 차이를 낳게 한다.

바오 다이 황제가 전형적인 경우이겠다. 1945년 3월 일본군이 베트남 전역의 군사적 점령을 완료하자, 일본은 안남왕국의 과거 프랑스 식민지하의 명목상의 황제에 대해서 북부와 남부를 합친 통일왕국의 독립선언을 요구했다. 이것은 백인 제국·식민주의 세력을 추방하려는 황색인 제국·식민주의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바오 다이는 이에 응했다. 그것이 백인 프랑스 제국·식민주의의 괴뢰에서 다만 일본 항색인 제국·식민주의의 괴뢰로 탈바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사실이었다. 형식상으로는 이것이 프랑스 식민지가 된 후 최초의 베트남 통일·독립이다. 그 후 베트남 인민과 영토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요구한 베트남(베트남민주공화국)을 말살하기 위해 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 전쟁을 개시한 프랑스는 홍콩에 ‘망명’중이던 바오 다이를 다시 불러들여 1949년 6월, 프랑스연방 내의 베트남왕국 원수로 추대했다. 이 프랑스연방 내의 베트남왕국이란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를 끝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흥계였다. 그것은 베트남의 일부에 독립의 허울을 씌우는 정치극이었다.

병상 오리올 프랑스 대통령과 바오 다이 ‘황제’사이에 체결된 이 협정은 ‘엘리제협정’이라고 불린다. 엘리제협정은 바오 다이 황제의 베트남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되 “국방과 외교권은 프랑스 정부가 장악하고, 프랑스 군대는 베트남에 기지를 영원히 보유하며 그 통행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며, 재정 및 기타 국정의 주요부문에서 프랑스 정부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익은 정치극이다(엘리제협정과 같은 것이 프랑스와 라오스 및 캄보디아 사이에도 거의 동시에 체결되었다).

이 ‘독립국가’가 현재 베트남 정부의 법통이다. 이 독립국가는 ‘비공산주의적 민족주의자’인 베트남 민중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되었다.

앞서 1946년 3월 협정으로 독립을 선언한 호치민의 베트남민주 공화국에 대한 국가승인 요청을 거부한 영국은 바오 다이 왕국과 라오스·캄보디아 왕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했다(1950.2.7).

미국도 같은 날 3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했다.

‘주권국가’로 승인한 영국 정부의 외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베트남 사태에 관한 공식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바오 다이 각하의 지위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프랑스는 베트남이 독립국가로서 국제적인 승인을 받기 원했지만 ‘엘리제협정’에 내포된 제한과 제약으로 보아 베트남이 국제법상 진정한 독립국가였는지는 결코 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1950.2.7) 3국을 승인했다(“The Official Documents Relating to British Involvement in the Indo-China Conflict: 1945~65”, 배경 제22항).

이 공식문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승인은 조심스러운 말로 표현되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연방 내의 연합국가’로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사이공 주재 총영사는 공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 후 곧 캄보디아와 라오스 조정에도 신임장을 제정했다(같은 글, 제23항).

미국이 베트남 사태 개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이 정부와 체결한 협정·조약들이다(이 관계는 뒤에서 상술한다).

민주적 지도자의 자격 차원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고전적 정치민주주의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민주주의를 그 기본요건으로 한다는 학설에 따른다면 여기서 베트남에 관한 고정관념은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더욱이 고전적·정치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였던 자유시장·경쟁경제·사유재산의 제반 제도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절대적'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대에는 더욱 그러하겠다. 민주주의나 아니냐의 기준은 그 국가사회의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권리와 기회가 민중, 인민, 시민 또는 국민(명칭이야 어떻든)에게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고 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문제다. 그것은 두 지배세력의 어느 쪽이 그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득권을 민중일반과 가급적 균등하게 분유(分有)하려는 뜻을 가졌는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차지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박애심 이상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자기희생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후진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규정짓는 이와 같은 복합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분석할 때, 남·북 베트남에 '민주주의'의 양을 얼마만큼씩 배점(配點)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강력한 '민족주의자'가 반드시 민주주의적이고, 비계급적이고, 비외세의존적이고, 대중의 이익을 제1차적 관심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민중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하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스'이면 어떤 구실과 수단으로든 그 세력을 돕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 답변이 '노'이면 베트남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나 선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판단의 토대로 해야 한다는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정신 때문에도 더욱 그렇다. 다른 중요한 정치적 덕성 없이, 단순히 '민족주의자'라는 이유로 식민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나 정권이 얼마나 반민중(인민·국민)적인가 하는 좋은 증언이 있다.

본인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지난 일요일자 『뉴욕 해럴드 트리뷴』 지에 실린 사이공 주재 미국인 특파원의, 흥미 있고 또 본인이 보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낸 지난 한 달 동안, 나는 가끔 불안했던 과거 중국의 장개석 정권과 바오 다이 정권을 비교해보았다. 한 가지 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바오 다이 정부가 1947년 말 중 국내란에서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없을 때의 장개석 정권보다 더 약하다는 결론이 거의 불가피했다. 이 정권은 장개석 정권보다 국민의 지지가 없고 권위의 정통도 더 약하며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국민과 인물들의 비율도 더 낮고 투쟁의 열의도 더 약하다. 바오 다이 정권이 분명히 더 강한 단 한 가지는 동(同) 정권이 프랑스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행정관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프랑스 군대가 베트남 땅에 있는 한, 바오 다이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불행한 나라의 경제 재건과 민중의 복지는 호치민이 지배하는 대단히 광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은 진보적이고 번창하는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보이는 나라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바오 다이 황제는 사이공에서 300마일 떨어진 그의 산장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영국 하원의사록초, 1950.4.14, 영국 외무성 인도차이나에 관한 공식문서집 부록 문서 제11호).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바오 다이 정권이 자국 내에서 아무런 통제력도 가지지 못한 정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오 다이 정권이 결코 시작되어서는 안 될, 그러면서도 전후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장구한 더러운 프랑스제국주의의 모험의 꼬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네덜란드의 모험을 지지하지 않았으면서 인도차이나에서 이러한 종류의 모험을 지지하는 것은 유감된 일입니다.그것은 또한 공산주의를 막는 최선의 방법도 못 됩니다. 본인은 호치민이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동료의원의 견해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그가 공산주의자이고 아마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그의 중국 공산주의자들과의 관련 때문에 앞으로 인도차이나의 사정이 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괴뢰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련식 수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련인들이 이른바 철의 장막 뒤에서 해온 수법입니다. 그것은 현지 인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권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은 비민주적 수법입니다(같은 글, 버밍엄 에스톤 출신 와이워드 의원).

바오 다이 정권에 완전히 실망한 미국은 고 딘 디엠을 새로운 '위대한 민족주의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그가 소수 지배층의 정치·경제·권력 독점과 베트남 사회의 원리가 되어버린 부패를 도려내고 진정 민중(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가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베트남 로비(친베트남파) 거물은 케네디 상원의원(그후 대통령), 그 부친(전 영국대사·재계거물) 및 케네디 일가, 윌리엄 더글러스 대법원판사, 헨리 캐보트 롯데(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 그 후 주베트남대사), 마이크 맨스필드(현 민주당 상원원내 총무), 그리고 반공 추기경으로 유명한(사망 전까지 한국전선과 베트남전선의 반공기지를 크리스마스 때마다 방문했던) 뉴욕의 스펠만 대주교..... 등 쟁쟁하다. 이들은 1953년, 더글러스 판사 집에서 회합을 갖고 바오 다이 민족주의를 고 딘 디엠 민족주의로 대치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그들은 고 딘 디엠의 자질을 민족주의, 인간적인 고결함, 용기, 이상주의적 결단력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반공민족주의자의 모든 소질을 높이 평가받은 고 딘디엠은 미국 정부의 지지로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1955년 10월 국민투표에서 바오 다이를 물리치고 베트남 국가원수가 되었으며, 베트남의 모든 병폐를 깨끗이 척결할 민족주의자로 기대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와 그 후 케네디 정부의 그에 대한 지원은 거의 무조건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사실 바오 다이 정권의 통솔력 결핍과 무기력은 베트남 인민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는 감정을 일반화시켰다. 어떤 프랑스인이 나에게 말했듯이,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인물은 이승만 같은 지도자다. 설사 그런 인물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모든 곤란한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그렇다(맥스웰 테일러 퇴역대장 증언, 베트남에 관한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 의사록, 1966.2.17).

'베트남의 이승만'으로 추대된 것이 고 딘 디엠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결'한 '민족주의자' 밑에서 민중에 대한 정치적·폭력적 탄압은 더욱 심해졌고 경제·사회·문화적 부패는 베트남의 역사상 유례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의 민족주의는 사실상 민족적이 아니라 반민족(인민)적인 데까지 이르렀다.

디엠 정부는 전국 농토 가운데서 45만 7,000헥타르를 몰수했고,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인 전(前) 개인 소유지 24만 6,000헥타르를 베트남 정부에 반환했는데 정부가 1958년까지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 계획으로 농민에게 재분배한 것은 프랑스인 소유로 반환된 것에 해당하는 24만 8,000헥타르밖에 안 된다. 최근의 미국 AID보고에 의하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대부분 정부가 쥐고 있으며 정부는 그것을 최고가격으로 입찰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있다(Bernard Fall, "Viet Nam in the Balance", Foreign Affairs, 1966년 10월호, p.5).

토지 없는 수백만의 빈농은 사이공 정부가 농촌지방의 지배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빼앗겨버린다. (베트콩에 의해 분배되었던 농토는) 정부군이 그 지역을 재점령하면 정부군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낡은 소작제도가 다시 복구되기 때문이다. 정부군이 재점령하고 들어온 지역에서는 실제로 부대 보급트럭에 지주가 함께 타고 들어와 부대장들로 하여금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약속으로 그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명령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베트콩에 의해서 이미 분배된 농지 소유권을 차라리 그대로 기정사실화하는 식을 포함한 '농민지향적' 농지개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떠한 한 가지 반(反)반란의 방법보다도 농민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사이공에 자리잡고 있는 '지주 지향적 지도자 집단'이 진정 그와 같은 농촌혁명을 지적으로 구상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사이공 정부의 군장성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같은 글).

이쯤 되면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게 된 장개석 정권의 시종일관된 실태의 재판이라 할 것이다. 철저한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에서는 장개석이나 바오 다이, 고 딘 디엠은 다 같다. 그들과 호치민이나 모택동 사이에는 민족주의자라는 공통점 외에 하나는 자본주의적이라는 것과 하나는 사회주의적이라는 철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다(정치적 관용과 민주주의 원칙 및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측면은 뒤에서 별항으로 상술한다).

존슨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당시 '동양의 처질'이라 불렀고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의 친베트남파 거물급 인사들이 '베트남의 이승만'으로 불려온 이 '위대한 민족주의자'는 결국 민족주의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군부쿠데타에 의해 1963년 11월 2일 살해되고 만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디엠이 살해되기 얼마 전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그 조사단의 한 사람이 내린 결론에 관해서 케네디 전기의 저자인 슐레징거는 이렇게 쓰고 있다.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중국 전문가인 테오도어 H. 화이트(Theodore H. White)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중경(重慶)의 상태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써 보내왔다. 그는 중국 말기의 장개석 역할을 고 딘 디엠이, 장개석 부인(송미령) 역할을 누 부인(고 딘 누)이 어찌면 그렇게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는지에 놀랐다. 그는 "남베트남에서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로 직결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적절한 인물을 찾아야 하고 단호히 간섭해야 할 것이다....."라고 썼다(Schlesinger, A Thousand Days: John F. Kennedy in the White House, p.544).

고 딘 디엠에 대한 최종판결은 그해 9월 3일 케네디가 디엠에 대한 전문 작성을 지시한 메모로 내려졌다.

나는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개월간의 정세를 보건대(사이공) 정부와 민중의 연대감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인물 교체로 가능할 것이다.....(같은 책, 992쪽).

그 후 거의 1년에 두 번씩 일어난 군부쿠데타의 주인공들과 다시 그 뒤를 이은 반공민족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때마다 같은 평가가 내려졌다. 남베트남의 민중과 사회의 정세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참작하고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제3자적인 평가인 듯하다.

제네바협정의 행방

베트남전쟁의 해결이라는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그 방안의 준칙(準則)으로 제시되는 것이 제네바 휴전협정으로의 복귀다. 전쟁의 쌍방 당사자도 각기 제네바협정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제네바협정 위반을 비난한다. 제3자 국가나 전문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제네바협정은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소생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지만 그 협정의 행방은 묘연하다. 쟁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① 휴전선이 2년 기한의 일시적 '군사적'분계선이지, 어떤 뜻에서든 '정치적 국경선'이 아니라는 조항 ②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중강·동맹결성의 금지조항 ③ 협정 조인 후 2년 안에, 즉 1956년 7월까지 베트남 전역을 통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규정한 합의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와, 그 위반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상대방에 전가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제3자적 국가나 전문가들은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과 남베트남 측에 그 책임을 발견하는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미국은 제네바협정에 대해서 행한 일방적 선언을 통해 하나의 베트남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남이든 북이든 분리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국총선 실시에 관한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그 선언에서 국제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이 달성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서약했다. 그러고 나서 곧 미국은 남베트남에 분리된 하나의 국가정부를 세우는 공작을 시작했다. 고 딘 디엠을 지도자로 하는 국가와 정부를 세우는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지만 디엠 정권이 제네바협정 이후 몇 해 동안 관대하게 취급되고 호치민 지지세력 측에서도 대체로 이를 방임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 실체는 곧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제네바협정이 규정한 총선거 준비를 휴전선 이남(남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는 사실, 그리고 프랑스는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남베트남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승리한 베트남은 그 군대를 남부에서 철수해 상당 기간 혁명활동을 중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총선거가 실시되면 호치민이 전 베트남 인민의 8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 틀림없다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견해 때문에 고 딘 디엠 정권에 제네바협정이 금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선거를 거부하게 해 제네바협정에 대한 책임에서 물러섰다. 여하한 궤변을 동원해 그 반대를 입증하려 해도 미국이

디엠 정권을 앞세워 제네바협정의 핵심적 합의를 무시함으로써 선언을 통해서 밝힌 입장을 배반한 사실은 은폐할 수가 없다(코넬 대학 조지 케이힌 교수).

이에 대한 반론도 강하다.

남·북 베트남의 경계선이 일시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하더라도 남베트남에 대한 공격의 침략성을 조금도 감면할 수는 없다. 남북한 간, 동서독일 간의 경계선도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력침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러스크 미국무장관, 미국국제법학회 연례총회 연설, 1965.4.23).

제네바 휴전협정의 성립 과정

인도차이나 전역에서 계속된 7년여의 전쟁이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지역 인민의 대프랑스 식민항쟁이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은 이 3지역(국가)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각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었다(이후 베트남 관계만 논하기로 한다).

가장 중요한 기본사실은 프랑스는 패전 당사자로 조인했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이 ‘베트남 인민 전체’를 대표해 승리자로서 조인했다는 정치적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식민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전쟁의 종결문서에서도 그 일방(一方) 대표는 프랑스연합군 총사령관이고, 그 지역 인민을 대표해 서명한 것은 역시 베트남민주공화국 대표였다. 다시 말하면 라오스·캄보디아는 논외라 하더라도 베트남은 남·북이 없었고 전체 베트남은 베트남민주공화국으로 인정되고 그 정부는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대통령의 정부로 되어 있다. 그것 외에는 베트남에는 국가나 정부가 없고 그것만이 유일한 국가·정부라는 전제가 식민통치국인 프랑스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다. State of Viet Nam(베트남국)이라는 이름으로 바오 다이 왕국 대표가 프랑스 편에 서서 참석했지만 그것은 협정 당사자인 교전단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국가’로서의 자격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회담은 1954년 4월 26일에 열려 7월 21일 협정이 성립되었다. 미국과 바오 다이 정부는 협정에 불만을 표시해 도중에 대표를 철수했으나 미국은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했다. 베트남에 관한 주요조항은 무엇이며 그 합의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휴전선은 국경이 아니다

인도차이나 전역에 흩어져서 싸우던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군대를 일단 격리시키고 휴전에 들어가기 위해 대체로 북위 17도에 해당하는 변 호이 강을 따르는 ‘임시 군사분계선’이 정해졌다. 프랑스군은 그 남쪽에, 베트남군은 그 북쪽으로 이동·재집결하기로 하고 이동 완료기간을 300일로 정했다(협정 제1조 및 제2조).

‘군사분계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협정과 별도로 각국이 조인한 ‘최종선언’에서 이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본 선언은 베트남에 관한 근본목적이 적대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군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과, 군사분계선은 임시적인 것이며, 여하한 경우에도 정치적 또는 영토적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선언 제6항).

그 후와 현재의 문제는 이와 같이 국경이 아닌 분계선을 넘는 것이 침략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데 집중되어 있다. 더욱이 어느 쪽인가가 제네바협정의 핵심적인 합의를 위배했을 때, 협정 전상황과 협정상 권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국경이 아닌 '임시적 군사분계선'의 협정상 효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월맹 측 견해다. 이에 반대해서 그것은 그래도 침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앞서의 러스크 발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측 견해다. 이 대립되는 견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기는 지극히 어렵다. 그 준수와 전제조건으로 설정된 그밖의 협정 각 조항이 어느 쪽에 의해서 위배되었는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는 대립되고 있다.

1956년 통일총선의 유산

협정 조인 2년째인 1956년 7월로 합의했던 통일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사실은 베트남 사태가 현재와 같은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된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협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을 이룩할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각 병력의 재집결 지역 내 민정은 본 협정에 의해 재집결하는 군대의 국가가 책임진다(협정 제4조 a항).

최종선언은 이 조항을 보충해 그 날짜를 '1956년 7월'로 정하고 양 지역 행정책임 당사자가 이 문제에 관한 토의를 협정 조인 날부터 시작할 의무를 규정했다. 그 책임 당사자는 물론 북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고 남에서는 프랑스 정부(군 최고사령관)다. 이 합의와 그 불이행이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핵심적인 문제다. 그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① 쌍방 책임 당사자는 총선 준비의 책임을 이행했는가?
- ② 선거 실시를 거부했거나 합의를 무시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느 쪽인가?
- ③ 그 이유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총선합의의 불이행 내지 거부의 문제는 제네바협정에 관한 ① 법적 해석 ② 당시의남·북 베트남 정세 ③ 미국 및 아시아 정치군사적 상황의 세 측면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 법적 측면은 주로 프랑스와 프랑스의 괴뢰정부로 인정되던 바오 다이 정권(베트남국, State of Viet Nam)과 관련된 것이다. 정치적 상황은 주로 당시의 미국이 세계적 반공정책 및 군사전략과 그 일부로서의 반공베트남 기지 확보정책의 전개 과정이다.

(1) 법적 측면

총선을 준비할 행정적 준비와 그 이행을 남베트남에서 책임진 권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협정체결 당사자인 프랑스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부는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 조약상 일자인 1956년 7월을 앞두고 4월 15일을 기해 베트남 주재 프랑스군 총사령부를 해체·철수해버렸다. 이것은 일단은 제네바협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서인 '프랑스공화국 정부의 선언'에 따른 것이기는 하다. 그 선언(1954.7.21)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프랑스 군대가 특정지점에 특정기간 남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된 기간 내에 그 군대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영토로부터 철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는 바다.

그러나 이것으로 협정과 최종 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총선 실시 주관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선언은 이어 협정조인 이후의 모든 행동준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공약했던 것이다.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평화를 재확립하고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그 3국의 독립·주권·통일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하여 행동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휴전조항 준수와 총선거의 실시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프랑스군 총사령부가 존재하지 않게 된 문제는 제네바협정의 시행을 감시할 책임을 맡은 국제감시위원회(캐나다·인도·폴란드)의 법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를 조성했다. 왜냐하면 휴전과 총선거 실시를 감시할 의무 및 권리를 맡은 국제감시위원회는 제네바 휴전협정에 의한 것이며, 그 협정은 프랑스 최고사령관이 두 조인 당사자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형태와 권한으로 존재하든 남베트남 정부는 프랑스군 최고사령관하에 있는 권력주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사태에 대해 제네바협정 조인국 공동의장단(영국과 소련)은 1956년 3월 23일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각서를 조인국에 발송했다.

프랑스연합국 최고사령관은 협정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인수했으며 그것을 관리할 국제감시위원회에 대한 사령부의 협조를 다짐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이나 남베트남 당국 어느 쪽도 프랑스 최고사령부의 철수 후 동위원단이 협정조항을 계속 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베트남 당국은 4월 1일 이후 동위원단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동당국은 남베트남에 있는 프랑스 국가 권력의 계승자로서 프랑스 최고사령부의 법적 책임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각서 제2항). 이러한 상태하에서 위원단은 협정 당사자의 일방, 즉 프랑스 최고사령부가 소멸한 이후 법적 근거를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중대한 관심사로 생각합니다. 남베트남이 최고사령부가 부담했던 책임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는 한, 위원단이 남베트남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제3항, 이상 번역문은 영국 외무성 공식문서 등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발행, 「입법참고자료」, 1968.10.5, 제96호에서 인용).

프랑스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 처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남베트남에서 그 의무를 전면적으로 인수할 '오소리티'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바오 다이 정권이 그와 같은 주권정부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게다가 그 정권은 제네바회의 진행 중, 대표는 참석시키고 있으면서도 협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협정과 '최종선언'에 조인하기를 거부했다. 바오 다이 정권은 제네바회의 기간 중 미국과 행동을 같이했다. 그 후 1960년대에 들어 베트남 사태가 전쟁으로 확대되고 남베트남에서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이 출현했을때 미국과 베트남공화국(고 딘 디엠) 정부는 그들이 제네바협정 조인국가가 아니므로 그 협정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내세웠다. 미국과 베트남 정부의 태도는 선거일자가 가까워지자 점점 더 이 거부 태도를 굳혔다. 공동감시위원단의 일원인 인도는 사태의 중대성과 그것이 앞으로 전쟁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정확히 예언했다. 선거실시 예정일을 15일 앞두고 인도 정부가 제네바회의 공동의장단에 보낸 각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따라서 베트남의 민정은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베트남민주공화국(북)과 남에서는 프랑스연합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후 프랑스연합은 남부지역에 대한 그들의 주권을 베트남국에 이관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할 양 지역의 소관 당국은 북에서는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남에서는 협정 제27조에 의해서 프랑스당국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민정을 인수한 베트남국이다(각서 제3항).

이와 같은 책임의 불이행은 제네바 해결방안의 기초를 와해시킴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전쟁상태를 다시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제4항).

결국 현재의 베트남이 '계승국가'로서 주권 및 국제적 권리를 주장한다면 역시 계승국가로서 프랑스 최고사령부가 수락했던 조약의무도 저야 한다는 해석이다.

베트남민주공화국(북) 정부는 협정체결 이후 2년 동안 총선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협의(협정상 의무)를 프랑스 최고사령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는 각서를 보낸 기록들이 남아 있다. 예정 일자를 1개월 앞서 발표한 성명(1955.6.7)은 협정상의 '일시적인 군사분계선'을 '국경화'하려는 음모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협정조인국과 특히 프랑스 당국에 대해서 최고사령부를 철수함으로써 총선실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영국 외무성문서집 문서 제52호). 이상과 같은 많은 사전경고가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프랑스 정부가 그 최고사령부를 철수한 것은 총선이 실시되지 않은 '원인'인 동시에 그럼으로 해서 책임추궁을 회피하면서 총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불행한 '결과'였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남 · 북 베트남의 실정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 것은 예정된 총선거 방법에 관한 이견이다. 주로 선거실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피적인 태도를 취한 미국과 베트남 당국의 성명은 베트남민주공화국에서는 '자유 · 민주적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남베트남에서는 바오 다이가 물러나고 공화제가 선포되어(1955.10.26) 미국의 지지를 받은 고 딘 디엠이 대통령에 취임해 있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바오 다이 정권의 반민족 · 무능 · 부패 · 괴뢰성에 몹시 실망하여 남베트남에 확고한 민족주의적 반공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미국은 프랑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네바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54년 7월 7일 미국에 망명 중이던 고 딘 디엠을 바오 다이 정부의 수상으로 앉혔다. '베트남의 이승만'으로 미국 내에서 강력 완강한 반공지도자로 인정된 디엠은 제네바회의 중 협정체결 후

베트남 정부 수상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베트남정책을 대행했으며 제네바협정 반대, 총선 거부는 디엠 수상의 이름으로 주장되었다. 대체로 디엠 수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베트남정책은 전쟁 종결, 제네바회의(한국에 관한 회의는 협정 없이 유산했다), 선거에 대한 태도 등 베트남 휴전 1년 전에 있는 한국에서의 미국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일이지만, '자유·민주적'선거는 사회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적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기 민주와 자유의 개념과 내용과 실태가 다르다는 데서 베트남에서도 문제되었다.

다만 한 가지 베트남의 특수상황으로는 서구식 개념과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적'선거를 실시했다라도 베트남의 반공적 남부가 이길 수 있었겠는가 하는 가상적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당시의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만약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서) 남·북 베트남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아마도 주민의 80퍼센트는 공산주의자인 호치민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인도차이나 전문가들과 얘기해보거나 편지를 교환해본 일이 없다"(회상록 「변화예의 신탁」)고 말한 것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어준다. 이 말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네바 협정 이후 베트남 총선을 감시할 제네바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처칠에게 보낸 서한에서 표명한 두려움이다. 당시의 호치민이 남·북 베트남은 물론 인도차이나 전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와 세계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었다.

(북베트남) 정부의 총선실시 촉구성명은 언제나 '자유·민주적'선거를 주장했다. 호치민은 쌍방 체제의 차이를 떠나 서방 선거방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당시의 객관적 정세는 부인할 수 없다.

북베트남에서 많은 가톨릭교도가 협정 후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을 들어 이와 같은 정세평가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남으로 이동한 수는 86만 명이고 그중 60만이 가톨릭교도로 추산된다(Bernard Fall, The Two Viet-Nams).

이것은 제네바 휴전협정이 쌍방 군대가 이동·재집결을 완료하는 기간, 즉 300일 이내에 이주를 원하는 주민의 자유이주를 돕는다는 조항에 따라 허용된 것이다. 남하한 86만 명 중 가톨릭이 아닌 나머지 약 26만 명은 주로 프랑스 식민지 행정기관 및 프랑스 군대의 베트남인과 그 가족들로 알려져 있다(같은 책).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려는 체제에서 그에 반대하는 종교신자와 민족해방전쟁에서 식민지군대에 가담했던 반민족적 성분의 원주민이 떠났다는 것이 과연 호치민에 대한 지지의 손실을 뜻하는 것인지는 측량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베트남 경제의 일시적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민중의 성분을 처리하는 정치적·사회적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 가톨릭 주민의 수송은 프랑스 호(號)와 그것을 지원한 미국의 함대 소속 함정이 담당했다. 북베트남은 이주 희망자의 이동을 억제하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 베트남 휴전 감시위원단의 공식 보고서는 북베트남 정부가 위원단의 요청에 따라 기한이 지난 후, 이주 희망자의 이동을 위해 그 기간을 1개월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3) 정치·군사적 상황

베트남식민지전쟁, 제네바회의 개최, 협정 성립 그리고 총선거 실시의 유산에 이르는 1949년부터 56년까지의 모든 베트남 사태는 그것과 결부된 아시아 정치·군사적 상황을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검토는 크게는 당시의 세계정세와 아시아지역에서의 격변하는 사태 발전, 그리고 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으로 좌우되었다. 이것은 너무도 광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개입

정치·사상적 전환

베트남에 대한 미국정책은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화와 한국전쟁으로 결정적인 전환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시아 식민지체제의 청산이라는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일본 식민지 조선(朝鮮)문제의 해결방안처럼 베트남을 일정한 기간의 미·영·중 3국 신탁통치를 거쳐 프랑스 식민지에서 완전 해방 독립시키는 노선을 추구했다. 그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인민에 대한 흑독한 제국주의·식민정책을 비난했다.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처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개석과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 성안시킨 신탁통치안에서 프랑스를 제외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인도차이나가 소련의 영향력 밖에 있으므로 신탁통치국으로서의 제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진행 과정에 따라 변모해 대일본전쟁이 가열된 1943년경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 전선의 유지를 위해 인도차이나 '전부'(캄보디아와 라오스를 포함한)를 중국에 '증여'하겠다고 장개석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장개석은 "인도차이나인은 결코 중국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으로 이를 사양했다(Henry A. Wallace, *Toward World Peace*, p. 97). 장개석의 이 대답은 호치민이건 누구건, 베트남인은 민족적 주체성을 어느 강대국에게도 양도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들어오면서 베트남정책은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정되었다. 그것은 1949년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화, 소련과의 동서양에 걸친 권력투쟁, 한국전쟁, 동남아의 경제·군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결정적인 전환은 1947년 트루만 대통령의 이른바 '트루만 독트린'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미국은 모든 식민지해방 민족투쟁도 공산주의로 간주하게 되었다. "자유민에 대한, 외부 지원을 받는 전복행동은 어느 곳을 불문하고 미국의 단호한 반대를 각오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정세에 직면한 자유민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형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트루만 독트린은 베트남의 반불(反佛) 식민지항쟁 민족해방투쟁도 전적으로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자본주의) 전쟁으로 비치게 되었다. 이 정치·사상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군사 경제적 정책전환을 수반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장 구체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는 1950년 2월, 프랑스의 보호국에 지나지 않는, 엘리제협정에 의거한 바오 다이 정권을 영·불과 더불어 공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경제적 개입

1949년 11월, 프랑스군이 베트남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의 지원이 약속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48년 동구에서의 대소·대공(對共) 대결 군사체제인 북대서양방위조약(NATO)의 형성으로 미국과 프랑스는 군사동맹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또 1950년 2월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의 국가승인으로 미국은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이들 '국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텃다. 프랑스를 통한 간접 방법과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직접 원조의 '합법적'방법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승인 직후인 5월에는 이 3국에 대한 경제원조 제공이 발표되었고, 12월 23일에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차이나 3국들 대표 사이에서 '방위 및 상호원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었다. 한국전쟁 발생 전후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인도차이나전을 위한 미·불·영 3국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중국이

북베트남과 원조협정을 조인한 것은 통일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해진 지 3년이 지난 1958년 3월 31일이다.

이 결정적인,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NATO를 통한 전면적 지원과 포리를 이루고 시작되었다.

북대서양동맹회의는 세계 어느 부분에서든지 직접 또는 간접 침략에 대한 저항은 자유세계의 공동안전에 대한 불가결한 기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2월 6일 파리회담에서 인도차이나(베트남)의 군사 및 정치 정세에 관한 최근의 사태를 검토한 본회의는 프랑스 군대가 '공산침략'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용감하고 장기적인 투쟁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남아국가들의 저항은 본 동맹의 목적이나 이념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베트남에서의 프랑스전쟁은 본동맹(NATO) 가맹국가 정부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NATO 이사회 결의, 1952.12.7).

이로써 베트남전쟁이 기본적으로 프랑스 식민전쟁이라는 성격, 베트남 인민의 입장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의 계속적인 한 단계라는 사실, 한국과 같이 국경을 넘은 침략전쟁과는 다른 성격..... 등이 무시되었다. 이 순간부터 베트남전쟁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세계의 전쟁이라는 해석이 공식화된다. 중공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뒤라는 이 결의의 날짜가 중요하다. 1954년 프랑스군 40여만이 5만 여의 베트남 군대에 의해 디엔 비엔 푸의 비극에 직면했을 때 미국 국무장관 포스터 덜레스는 아시아국가들과 NATO 국가들에 대해서 이미 끝난 한국전쟁에서의 방식에 따라 '통일행동'(unified action)을 취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한국전을 체험한 동맹국가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다.

미국은 부득이 단독행동을 구상해 안토니 이든 영국 수상에게 디엔 비엔 푸에 대한 '대량폭격'을 제안했고, 닉슨 부통령은 미군 지상군의 투입을 제안했다. 1950년 10월 10일, 최초의 미국 군사 사절단이 사이공에 도착했다. 이때까지, 즉 1950년에서 54년까지 4년 동안 미국은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전쟁 지원으로 22억 8,500만 달러를 제공했다(D.F. Fle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

이때 미국의 인도차이나전 개입을 반대한 존 F. 케네디 상원의원은 "인민의 공공연한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쟁에는 아무리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서는 유럽에서의 서독의 재무장계획을 완강히 반대하는 프랑스 정부를 회유하기 위해 베트남에서의 프랑스 식민전쟁을 돕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 시기는 중국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주었다는 문제로 미국 국내에 매카시즘의 광적인 반공운동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였다. 동기와 성격이야 어떻든, 상대가 자본주의자가 아니면 그것은 공산주의자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덜레스 이론이 미국 외교정책을 규정하고 있었다. 냉전과 소련의 핵군력화, 중공과의 최초의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경제의 촉진제로 이용된 군수생산과 전쟁준비 경제도 이에 가세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정책이 사실상 군사적 사고방식으로 젖어 있었던 것도 이에 가세했다.

제네바협정과 미국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적극개입정책은 모든 국가가 희망하는 베트남전쟁 종결을 위한 제네바회의의 진행을 원치 않았다. 처음 개회식에 참석한 덜레스 국무장관은 며칠 만에 와싱턴으로 돌아가고 에델 스미스 차관이 격하된 대표로 참석했다. 미국은 냉전전략에 따라서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베트남 휴전 성립에 대비해 1954년 3월 동남아시아방위조약기구(SEATO)의 결성을 추진했고, 협정이 체결된 2개월 후인 9월 8일, 영국·호주·뉴질랜드·파키스탄·태국·필리핀·프랑스·미국에 의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특히 제네바협정으로 군사동맹 가입, 외국 군원(軍援), 외국 군사기지 설치 등이 금지된 베트남을 포함하는 인도차이나국에 대한 군사적 '보호지역'지명조항을 삽입했다. 군사·경제·정치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고 딘 디엠의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미국정책의 '괴뢰'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부당한 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네바협정 조항의 이행문제, 특히 총선거 실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미국의 거부 태도를 대변한 사실은 널리 인정되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의 사태분석대로 총선을 바라지 않았다. 남베트남의 반공기지로서의 분리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고립'정책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그 후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굳이 부인되지 않았다.

베트남내란의 재발

총선거 실시가 예정된 1956년이 지나면서 남베트남에서는 심각한 내란이 일어났다. 어느 한 시기를 기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57년경부터 전국 지방에서 정부에 대한 폭동과 테러 형식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베통으로 불리는 민족해방 전선의 출발이다.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된 것은 1960년 12월 20일이다. 소위 베통이라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후 60년대에 들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확대되고 북베트남(월맹)과의 전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민족해방전선의 발생·성장과정에 관해서도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극단적 해석이 생겨났다. 하나는 전적으로 북베트남에서 넘어온 침투 게릴라라는 주장과 다른 하나는 어디까지나 남베트남에서 총선실시가 거부됨으로써 통일을 요구하고 고 딘 디엠 정권의 부패 등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집합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당시 평가를 종합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의 내란은 제네바협정으로 약속된 총선거가 '취소'된 다음해(1957)부터 시작되었다. 고 딘 디엠의 전횡, 무차별적 체포, 정치적 재교육이라는 이름 밑에 늘어난 강제수용소, 지방주민의 강제적 집결수용 등이 심해짐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공산주의자들은 잠시 방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 원조에 의한 디엠 정권의 경제정책이 호치민으로 하여금 디엠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다고 확신케 하자, 그는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폭동에 과거의 동지들이 합세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다.....(Schlesinger, A Thousand Days, p.539).

이것이 대체로 그 원인을 온건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다. 적어도 1957년에서 59년까지의 지방폭동은 이런 성격으로 해석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960년 그 세력이 강화되어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자, 그해 9월 월맹은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면서 소형무기의 공급을 시작한 것이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 후 총선거가 거부된 직후에 일어난 이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960년쯤에는 1년에 약 2,000명 정도가 북베트남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이들 거의 대부분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북쪽으로 이주·이동했던 남부 출신자들이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은 남부에서 가담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무기와 장비는 사이공 정부군에게 빼앗은 것들이었다(같은 곳).

제네바협정은 베트남인 군대에 속했으되 북쪽으로 가기를 원치않는 사람이 무장을 버리고 남부에 그대로 거주하는 문을 열어놓았다. 남쪽 출신이거나 남쪽에 가족이 있는 항불·독립 베트남 군인들의 상당수가 2년 후의 통일을 기다리면서 그대로 평민으로 남쪽에 정착하는 길을 택했다. 이들의 상당부분은 그러나 그 후 디엠 정부의 감시대상이 되었고 통일의 실패로 반정부적 자세를 굳히게 됐으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디엠 정부는 총선예정 날짜가 지난 후부터 강압정책으로 치달았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20년에 걸친 남베트남 사회의 핵심한 정치·경제·사회의 부패에 곁들인 이 정치적 탄압이 반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온건한 중간적 견해를 가진 논자들이 일치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 딘 디엠은 이미 1956년 1월 탄압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1월 11일 디엠은 강제집단수용소 설치령을 내려 그와 정부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흑독함에 놀란 미국 정부는 마침내 66년 5월 사이공 주재의 미국 정부 대표기관으로 하여금 베트남 사회에서는 처음부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즉 초기의 반정부세력은 공산주의자이기보다는 정치·종교적 소수파들이라는 사실을 사실대로 발표하게 했다. 카오다이교(高臺敎)를 구성하는 11개파 가운데 10개파가 디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초기의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지세력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또 호아하오교(和好敎)는 1952년에 이른바 사회민주주의당을 형성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기관으로 삼았다. 이것도 디엠에 반대했으며 56년에 이들은 디엠의 정부군에 의해서 소탕되었다. 카오다이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역시 초기 민족해방전선의 주력이 되었다. 세 번째의 소수파인 빈 수옌 파도 같은 입장과 같은 이유로 디엠 정권에 의해 탄압받아 초기의 민족해방전선과 협동했다(Bernard Fall, "Viet Nam in the Balance", Foreign Affairs, 1966년 9월호).

맺는 말

미국이 베트남 내란을 월맹과 공산주의자의 원조·지령·사주에 의해서 시작된 침략이라는 명분으로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하기까지의 베트남 정세는 대체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마디로 그것은 프랑스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해 싸운 베트남 인민의 80년 투쟁과 반민중적 권력에 대한 민중투쟁의 연장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전쟁이다.

• 『창작과비평』, 1972년 여름호

1-3. 「베트남 35년 전쟁의 총평가」*(1975년 『창작과 비평』, 우상)

“이게 어찌 된 셈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남베트남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주 너무도 급작스러운 사태 발전에 정신을 잃고 말했다. 그의 견잡을 수 없는 당혹감은,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군사력 앞에 사이공 정부군이 이렇다 할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순식간에 와해해버린 뒤에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한들, 국부적 예외는 있을지 모르지만, ‘베트남공화국’국군은 그들의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기는커녕, 완전 궤멸 상태가 되어 세계의 전쟁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패주해버렸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거의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다(『타임』 지, 1975.4.14).

1975년 5월 1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 정부 대통령이 민족해방전선군 대표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35년에 걸친 베트남 인민의 전쟁에 막이 내렸다. 베트남 사태는 그 긴 과정과 종결 형식에서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러나 그 교훈을 올바르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 인식

첫째는, 평가와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베트남 사태에 관한 편견과 선입관의 배제다. 20세기에 들어와서만도 35년의 역사를 가지는 이 전쟁은 그 성격이나 요인이나 과정에서 누구도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복잡한 내용을 띠고 있다. 판단의 토대는 정보다. 베트남 사태에 관한 보도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과 너무도 일방적으로 각색되어 전달되었다는 두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 사건마다의 단편적 정보에 압도된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파악할 수 없었고, 사태를 대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한 측면이 강조되고 또 측면은 애써 무시되는 보도 방식이 오랫동안 계속된 탓에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이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둘째는, 평가와 판단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민의 역사와 현실적 입장과 이해가 판단의 입장을 결정하는 조건이어야 할 것이다. 각기 어느 한쪽의 편에 섰던 미국이나 중국 및 소련의 입장이 건전할 수 없듯이, 한쪽을 지원한 관계자의 입장도 종합적일 수는 없다. 외부 세력은 어차피 제3자일 수밖에 없다. 전쟁에 운명을 걸었던 전쟁 당사자인 남·북 베트남 정부 및 민족해방전선 등의 세 입장도 다르고 보면, 그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실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각기의 정부 및 전쟁 지도층과 민중의 입장이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의 정전(停戰) 방식이나 전쟁 해결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최종적 판단자는 우리 자신이어야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제3자인 대한민국 또는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베트남 사태의 종결을 가장 정확하고 최종적 판단이라 고집한다면 한반도의 사태에 대해 외부의 어떤 제3자가 최종적이고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입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게 마련인 까닭이다. 베트남 사태의 종결은 베트남 인민의 역사와 현재 및 장래를 규정한 것이다. 미국, 소련, 중국의 그것도 아니고 한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몇만 또는 몇 천의 병력을 일방 당사자 편을 들어 일시적으로 파견 참전함으로써 잠시 당사자가 되었던 한 국가나 정부나 국민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역사적·현실적 의지의 최대공약수적 방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베트남전쟁의 현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노력이다. 그 본질적 성격의 규정이 가능하면, 그 토대 위에서 전쟁의 전체 과정, 각 국면, 그 종합적 종결의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세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베트남전쟁처럼 많은 성격과 이름으로 불린 전쟁은 역사상 없었다. 복잡한 제2차 대전 후의 가치관이 각기의 입장에 따라 투영된 전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공산주의 침략전쟁, 제국주의 전쟁, 신식민지 전쟁, 백인과 유색인종의 전쟁, 양대 정치 이데올로기의 투쟁, 후진·저개발 민족 대 선진문명 민족의 전쟁, 강대국의 대리전쟁, 민족해방전쟁, 혁명 또는 반(反)혁명전쟁 등이다. 그 각기일 수도 있고, 몇 성격의 복합일 수도 있고 그 전부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폭넓은 연구와 깊은 구명을 하려고 노력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긴 전쟁 역사를 통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두드러지고 굵은 하나의 민족적 의지를 말한다. 베트남 국민의 민족해방과 분단된 민족의 재통일이다.

베트남 사태의 결말에 대해 '비극'이라는 표현이 유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민족의 통일보다 정치이데올로기의 투쟁적 측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입장에게는 비극일 수 있다. 분단에서 기인하는 30여 년의 고통이 하루 속히 끝날 것을 갈구하는 사람이나 외국에 의존해서 살찌기보다는 차라리 통일민족사회 속에서 가난하지만 자신의 규범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내일이 비극일 것인지 그와 반대일 것인지를 단정할 자격은 제3자에게는 없을 것 같다. 또 그 어느 것일지는 오직 앞으로의 베트남 사태의 전개 양식에 달려있다.

파리휴전협정의 행방

베트남 사태의 급속한 결말은 파리휴전협정이 이행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과 방관자들은 각기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 불이행과 불성실의 책임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베트남 휴전협정의 특성과 항목별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로 나누어보는 것이 편리하다.

정치적 조항

파리휴전협정(1973.1.27 조인)은 공식적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이다.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을 종결시킨 제네바협정(1954.7.20 조인)의 공식 명칭은 '베트남에서의 적대행위의 종결에 관한 협정'이다. 두 협정의 명칭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제네바협정은 프랑스와 베트남 인민의 '적대행위'(전쟁)를 끝맺는 단순한 휴전 절차적 성격이었다. 실제로 정전 뒤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해결, 즉 평화의 회복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네바회의 참가국에 의한 '최종 공동선언'의 형식이 취해졌다. 그리고 미국과 남베트남(그 실태는 프랑스의 보호국)이 이 협정의 조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휴전에는 성공했으나 그 뒷마무리를 해야 할 정치적 해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파리협정은 미국과 남베트남 정부가 조인함으로써 제네바협정보다 강화되었다.

형식상으로 말해도 제네바협정은 군사 위주였던 것에 비해, 파리협정은 군사적 해결과 정치적 해결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킨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처리와 정치적 처리의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군사적 휴전 조항의 이행 의무는 정치문제의 해결 또는 이행을 조건으로 했다. 이 정치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공 정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민족해방전선),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적 제3세력, 이 셋으로 '민족화합협의회'를 정전 후 90일 내에 구성하는 합의다(제12조 B항). 이 3자 협의기구가 남베트남의 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준비 관리 실시하도록 쌍방은 합의했다. 이 정치적 해결의 주체가 될 3자 협의기구 구성에 선행되는 중도 제3세력의 형성에 어느 쪽이 적극적이고 어느 쪽이 소극적이었느냐, 또는

어느 쪽이 그 결성을 탄압으로 거부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군사 조항의 이행 여부의 책임 구명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한 듯하다. 다음은 파리협정의 해석이나 각 조항의 이행 여부의 구명은 20년 전에 체결되어 그대로 존속해온 제네바협정 체결의 정신과 배경 및 해석, 그리고 그 이행 여부의 책임 소재를 토대로 해서 보완된 사실이다. 파리협정의 역사, 협정의 정신적 모체는 제네바협정이다. 바로 그런 뜻에서 베트남 사태의 이해는 협정 해석면에서 미국 개입 이후, 즉 1964년이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서만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셋째로, 중요한 사실은 사이공 정부와 임시혁명정부는 동등한 조인주체라는 사실이다.

제3국이나 양자 사이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정상 양자는 완전히 동격·평등이다. 따라서 협정 이행의 의무에 관한 한 어느 정권이 타방 정권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일방적 권리의 주장을 내세웠다면 그것 자체가 협정 위반이다.

다음은 파리협정이 남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전체'의 정치적 해결을 규정한 것이지, 사이공 정부 관할권하의 베트남인이거나, 임시혁명정부 관할권하의 베트남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어느 한쪽 정부가 상대방 정부 지역의 주민을 자기 정부하의 합법적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협정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에 관한 파리회담 참가자(複數)는 베트남 인민의 민족적 기본권(fundamental national right)과 남베트남 인민의 자결권 존중을 토대로 해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며 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들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전문의 'fundamental national right'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문서나 신문기사가 다 같이 '국민적 기본권'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것은 오역이며 사소한 듯이 보이는 이 번역의 차이는 남베트남의 협정상 해결 방식과 의무 이행 여부를 가리는 데 중대한 착각의 원인이 된다. 원문의 'national right'는 'people of Vietnam', 즉 남북을 가리지 않는 남북 베트남 인민 전체의 '민족적 권리'(민주적 권리가 아님)를 말한다. 이것은 프랑스 식민지 전쟁을 승리로 끝낸 베트남 인민(전체)의 독립·통일을 규정했던 제네바협정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 것이다. 사이공 정부나 임시혁명정부 각기의 '국민'적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독립할 베트남 '민족'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people of Vietnam'을 '월남 인민'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이공 정부가 대표하던 '월남'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베트남', 즉 남북을 통틀어 '베트남'인민이다. '남베트남 인민의 자결권 존중'도 마찬가지로 사이공 정권이나 임시혁명정권이 각기 자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양자의 인민을 합친 '남베트남 전체 인민'의 남베트남에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이런 용어 사용의 혼란과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서 협정 이행 여부의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은 극히 제약되어왔다.

미국: 파리협정과 관계없이 미국은 앞으로도 베트남공화국정부(사이공)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계속 인정할 것이다(닉슨 대통령 가조인 후의 연설).

베트남: 파리협정은 베트남 인민의 기본적인 권리, 즉 남쪽 동포의 신성한 자결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법적 기초다. 베트남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다. 남베트남에는 임시혁명정부와 사이공 정부, 이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한다(노동당 중앙위원회 성명).

파리협정 전문을 통해서 특기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경합하는 남베트남 두 '정권' 가운데 어느 쪽에 대해서도 '정부'라는 말이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사실이다. 협정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도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적 발언이나 선전문구로서는 각기 상대방을 '괴뢰' 또는 '유령' 정권이라 부르고 스스로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해도 좋다. 그러나 협정으로는 그렇지 않다.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흡수하는 해결을 고집하는 것으로 협정 위반이다. 사이공 정부는 조인후에도 이 주장을 버리지 않았다.

협정에 의한 정치적 해결의 토대는 '민족화합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사이공 정권과 임시혁명정권을 두 '당사자'로 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 중도 제3세력을 합쳐서 구성될 이 협의체에 남베트남의 단일 합법정부를 구성하고 장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가 위임된 것이다. 협정 조인 후 90일 내, 즉 1973년 4월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쌍방은 합의한 것이다(제12조 B항).

민족화합협의회는 휴전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연립정부' 형식(라오스식)으로 하라는 북베트남 측과, 그것을 다만 남베트남의 단일 합법정부 수립을 위한 일시적인 협의기구로 하자는 미국 측의 주장이 맞서오다가 북베트남 측의 양보로 미국안대로 된 것이다. 이 협의체는 모든 결정에서 제3세력의 '만장일치' 합의제 때문에(제12조 A항), 창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협정이 위임한 단일 합법정부 수립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문제된 것은, 그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한 남베트남 전역에서의 민중·정치인·단체·개인의 자유 의사 표시와 시민적 권리의 보장 의무가 쌍방 정권에 의해서 이행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 남베트남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는 협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큼 상세히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11조: 종전 직후,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룩하고, 증오와 적의를 해소하고, 일방 또는 타방과 협력해온 개인 또는 단체·조직에 대한 모든 보복과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인민의 민주적 자유, 즉 개인적 자유, 언론의 자유, 신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지의 자유, 노동의 자유, 재산 보유의 권리, 자유기업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상세히 규정한 자유와 권리는 '재산 보유의 권리'와 '자유기업의 권리'까지 들어 있어 자본주의(적) 체제에 아무런 제약도 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이공 정부로서는 적어도 자유·민주·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 이 조항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이공 시에서는 1월 28일 휴전의 발효를 축하하는 모임도 시위도 금지했다. 쌍방에 다 같이 가해진 이 자유와 권리를 허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정부와 체제의 취약함을 뜻하거나 협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전후 정치 해결의 핵심이자 토대가 되는 이 조항의 이행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리 선의의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티우 대통령과 사이공 정부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 주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대변하는 한 미국 주간지는 정치적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휴전 직후의 상태를 이렇게 보도했다.

“티우, 기선을 제압하다”

티우 대통령은 자신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남베트남에서 새로운 큰 조치를 취했다. 전국에 걸친 강경한 비상조치를 명하고 이에 따라 군대와 경찰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주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혹하게 까부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시위대나 탈영병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남베트남에서는 더욱 강경한 경계조치가 취해졌다. 사이공과 그밖의 도시들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엄격히 시행되었다. 사이공 시에서는 밤 11시만 되면 일절 소리가 나지 않는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움직임의 원천이 되는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한 듯이 모든 움직임은 정지한다.

치안 예방조치는 공산주의 동조자들이 베트남 기(旗)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全國의 모든 상점과 창고에서 적·청·녹색 색깔의 천을 모두 압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모든 양복점·양장점에 대해서는 남베트남 정규군의 신분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양이건 유니폼 식의 옷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티우 대통령은 특히 언론기관, 정치정당 또는 정치단체 그리고 전국적 선거, 이 세 가지를 가장 싫어한다. 티우 대통령은 그 세 가지가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 영향의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휴전협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다.

휴전 조인 후 첫 몇 주 동안에 전국적인 예비검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갖가지 새로운 비상조치가 발해졌고 이에 따라 성(靑)장관에게는 누구든지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유 재량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사이공의 외국인 전문가들은 반정부적 또는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이 갖가지 죄명으로 무더기 체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범으로서가 아니라 각종 보통 법령의 위반자로서 투옥하는 이유는, 휴전협정이 정치범 석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범이 아니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다(US News and World Report, 1973년 2월 첫호).

이렇게 해서 투옥된 사람의 수는 확인된 바 없다. 모든 정치범은 서로 휴전협정 발효 15일 이내에 석방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상호간에 민간인 억류자(정치범)의 명단·억류 장소·석방 방식을 교환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이행되지 않고 말았다. 사이공 정부는 민간 억류인의 수를 5,081명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해방전선은 3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방전선이 억류하고 있는 수에 관해서 사이공 정부는 8,622명(지방관리)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 석방을 요구했다. 티우 대통령이 많은 민간인 억류자의 석방을 거부하면서 더 많은 민간인을 협정 발효 후에도 투옥한 것은 그들이 바로 해방전선을 지지하거나 민족화합협의회를 구성할 세력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중립적 또는 정부 비판 인사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한 티우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이 거의 확실해진 1972년 10월 12일, “휴전이 성립되기 전에 전선 전후방의 공산주의자를 최후의 1인까지 죽여놓고 조인하겠다”고 선언했다(휴전반대 청년대회 연설). 사이공 정부의 민간인석방 반대에 항의해서 북베트남은 미군 포로의 석방을 일시 중지했다(1973. 2.27). 당황한 미국 정부는 티우 대통령에 대해 민간인 억류자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압력을 가해야 했다.

결국 남베트남의 정치적 해결을 담당할 한 주체인 제3세력은 형성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결과로 민족화합정부 수립을 위한 모든 절차는 거부당하고 휴전 후의 새로운 남베트남을 구상한 모든 정치적 조항은 조인 이전에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외국(군대)의 주둔을 고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거부했느냐 하는 평가다. 협정 본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미합중국 및 그밖의 모든 국가는 베트남에 관한 제네바협정에 의해서 승인된 베트남의 독립·주권·통일·영토 통합을 존중한다.

전문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네바협정으로 승인된 베트남 인민의 민족적 일체성·불가분성이 파리협정의 기본정신이다. 제네바협정이 결정한 1956년 7월 예정의 통일선거를 거부하고 남북 베트남을 분리된 적대적·독립적 전정단위로 굳혀버린 외국, 즉 미국의 공작의 재판을 막기 위해서 6년의 협상 과정을 통해 북베트남이 일관되게 요구한 조항이다. 조항의 서두에서 구체적으로 미합중국을 지칭한 것이 그 과정과 동기를 말해준다. 미국이 미합중국을 이렇게 명시하는 데 동의한 것은 1954년 협정에 의한 총선거 실시의 거부책임을 묵시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남북 베트남의 분할 고정화나, 남베트남 일부의 분할·독립을 획책하는 기도는 이 협정 기본원칙인 제1조 위반이 된다. 어느 쪽이 더 남북 분할현상의 항구화·고정화 정책을 썼는가 협정 위반의 평가기준이 된다. 또 남베트남 전역에 대한 지배 확대가 불가능하면 현 지배 지역의 고정화에 의해서라도 남베트남의 분할적·독립적 정부의 유지를 정책으로 추구했느냐도 협정 위반의 기준이 된다. 정치적 해결의 합의사항을 주로 사이공 정부가 위반한 것은 티우 대통령의 주장이 협정에 덜 반영되었다는 데서 이해는 할 수 있다. 휴전협정의 골격으로 내세운 쌍방의 기본적 해결안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사이공 정부 입장

- ① 북베트남과의 대등한 직접 협상
 - ② 비무장지대의 복원, 남베트남의 영토 보유, 남베트남의 불간섭.
 - ③ 북베트남군과 파괴분자(민족해방전선을 가리킴-필자)의 북베트남으로의 철수 및 효과적 국제감시.
 - ④ 북베트남군의 철수 후, 그리고 무력활동이 저하한 연후에,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남베트남 철수.
 - ⑤ 평화 회복 후 남북 베트남 재통일을 위한 남북 베트남의 협의.
- (1968.9.4, 사이공 정부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정치해결에 관한 입장」)

민족해방전선의 입장

- ① 조국독립·민주평화·번영 및 궁극적·평화적 통일의 신성한 권리.
- ② 미국 침략전쟁의 정지, 모든 미국 군대와 그 위성국가 군대의 철수, 군사기지의 철거.
- ③ 외부 간섭 없는 남베트남 인민 자신에 의한 민족·민주연합정권의 수립과 자유선거를 통한 해결.
- ④ 외부 간섭 없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남베트남의 협의와 협정을 토대로 한 단계적 재통일의 실현.

⑥ 남베트남이여하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
(1968.11.3, 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의 「남베트남의 정치해결에 관한 성명」)

파리협정의 정치적 해결 방식의 구조는 대체로 임시 혁명정부의 해결안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1954년 제네바협정의 정치해결 구조를 따랐기 때문이다. 제네바협정에서 합의된 남북 베트남 통일을 위한 총선거가 미국과 남베트남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미국은 파리협정의 규정을 살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파리휴전협정의 해석이나 위반 여부의 검토에서 제네바협정과 그것이 깨진 역사 배경 및 책임 소재를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54년 제네바협정이 결정적으로 깨진 것은 미국과 남베트남이 양베트남 통일정부 수립을 규정한 총선거를 거부한 데서 비롯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약 약속한 대로 선거를 실시하면 80퍼센트의 남북 베트남인이 호치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이다(The Mandate of Change 참조). 파리협정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전체 구상도 제세력의 형성 허용과 3세력에 의한 민족화합정부 수립을 위한 남베트남 선거의 반대로 깨졌다. 그러면 군사적 측면은 어떠했는가.

군사적 조항

당연한 일이지만 파리협정 가운데 가장 깊고 세밀한 규정은 제6장의 군사조항이었다. 제네바협정에 의한 휴전 방식과 다르기 때문도 있었지만 제네바협정의 군사적 의무가 쌍방에 의해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실 때문에 그 내용은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짜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4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협정 위반의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그 전면적인 사실의 규정은 고사하고, 어느 한쪽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위반에 관한 부분적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사태가 계속되었다. 휴전의 방식이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을 끝맺은 제네바협정에 의한 휴전 방식과 몇 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사실도 그 사실의 적발과 책임 소재의 확인을 더욱 어렵게 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다.

남베트남의 쌍방 당사자, 또는 미국과 북베트남을 합친 4당사자 사이에 가장 말썽이 된 위반 사항들을 골라 검토하면 대체로 그 윤곽이 드러난다.

(1) 휴전선 침범, 영토 확장

1954년 휴전과 다른 방식의 하나는 교전 당시 군대가 그리니치 표준시 1973년 1월 27일 24시(한국 시간 28일 오전 8시)를 기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전투행동을 정지한 것이다(제2조). 이른바 ‘현상·현지’휴전이라는 것이다. 1954년에는 프랑스군(그 속의 베트남인 식민지 용병군 포함)과 항불(抗佛) 독립 베트남군이 북위 17도선 남·북으로 이동·재집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교전군대 사이의 휴전선은 분명했고, 그것이 그 후 통일총선 실시의 거부로 마치 남북 베트남 사이의 ‘국경’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전선이 분명한 정규전이기보다는 내란의 특색인 유격전이 13년이나 계속된 뒤의 전선은 이른바 ‘표범 무늬’처럼 걸잡을 수 없을 만큼 혼재하는 상태였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각 당사군대의 점령 지역, 그 병력, 그 경계를 확인하기란 제네바 휴전 때보다 훨씬 치밀하게 조직된 몇 겹의 감시제도와 접촉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전 5개월 후인 1973년 8월 말에는 벌써 휴전이 지켜질 희망이 사라진 듯했다. 이 첫 5개월 사이에 사이공 정부 측은 민족해방전선 측의 휴전 위반이 만 5,000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방전선측은 같은 기간의 사이공 정부의 휴전 위반만 만 2,000건이라고 임시기구에 보고했다. 실제로 그 후에는 쌍방의 휴전 위반은 집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감시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 해버렸다. 군사적 협정조항과 정치적 조항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 하나의 위반은 상대방에게 군사적 합의 하나를 위반할 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 상대방의 작은 군사적 위반으로 자기의 보다 큰 정치적 합의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사태가 되풀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한쪽만의 비난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더욱이 어느 한쪽이 협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거나 어느 한쪽에 협정 위반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식의 판단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협정이 발효한 직후의 현지 상황은 어떠했던가.

요란한 국제적 환호 속에 미국·남베트남·북베트남·임시혁명정부의 대표들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베트남에서 전쟁을 끝맺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관한 합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은 전투는 끝난 일이 없다. 사이공과 공산주의자 쌍방은 사실 협정 내용의 몇 가지 주요한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르는 형편이었다. 쌍방은 서로의 지배 지역을 명시한 지도를 교환한 일도 없다(이 각기의 지역에 대해서 각기 협정상항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남베트남 전역에 걸쳐서 각종 전국선거를 준비했어야 할 민족화합협의회도 창설되지 못했다. 그들은 군사보급의 대체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 공산 측 지배 지역의 한 지점에 재집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군부대가 이동을 시작하면 사이공 정부군은 베트남에 대해서 기습공격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하노이 측에서 본다면 협정의 모든 합의사항은 다만 호치민의 유훈(遺訓)-'미국인이 사라질 때까지 싸우라, 그리고 괴뢰정부가 쓰러지는 날까지 다시 싸우라'-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모든 조인 당사자가 협정을 위반했다. 미국은 휴전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단시일 내에 사이공 정부에 반입 양도함으로써 협정 문구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협정 정신을 위반했다. 휴전 후 1년 사이에 사이공 정부 군대는 군사행동으로 그 지배 지역을 20퍼센트나 확대했다. 그 결과 약 100만 이상의 주민이 사이공 정부의 깃발 아래 들어갔다. 그뿐 아니라 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티우 대통령은(거기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이 여러 조항으로 규정한 남베트남에서의 공개적 정치투쟁에 관한 합의사항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저지했다(「붕괴의 사후진단」, 『타임』 지, 1975.4.14).

휴전 성립 후 50일 사이에만 사이공 정부군 사망 5,000명 부상 2만 5,000명, 베트남 사살 2만 명, 부상 수만 명이라는 전투가 계속되었다(사이공 정부 발표, 1973.5.17). 이와 같은 혼란이 계속된 첫 1년 동안에 20퍼센트의 점령 지역을 확대하는 데 성공한 사이공 정부 측은 74년 후반부터는 민족해방전선군의 반격으로 확장한 지역을 잃었을 뿐 아니라 군사 형세는 거꾸로 사이공 정부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2) 남베트남의 북베트남 군대

사이공 정부군의 치욕스러운 붕괴나 베트남 사태의 종말에 관해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월맹군의 불법적 공격'설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고정적 이론이 되어 있다. 휴전 발효 이후에 남베트남에 '월맹군'이 있다는 것이 협정 위반이라는 해석에 입각해 있다.

협정의 제2장 '전쟁행위의 정지 및 군대의 철수'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모든 교전 당사자는 휴전을 유지하고 항구적이고도 안정된 평화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휴전이 발효되는 즉시, A. 미국군대, 미국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과 동맹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군대 및 베트남공화국 군대는 철수계획의 실시기간 중 현상을 유지한다. B.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의 군대는 현상을 유지한다. C. 남베트남의 양 당사자의 모든 병종(兵種)의 정규군과 부정규군 부대는 상호간 모든 공격행위를 정지한다.

제5조: 본 협정 조인 후 60일 이내에 기술군사요원 및 평정 계획에 관련한 군사요원을 포함해, 미국 및 제3조 A항에서 규정한 그밖의 외국의 군대·군사고문·군사요원, 그리고 무기·탄약·군사자재는 남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다. 또 이 기간 중에 상기 제국으로부터의 모든 민병조직에 대한 고문(顧問)요원과 경찰요원도 철수한다.

제6조: 제3조 A항에서 규정한 미국과 동맹국은 본 협정조인 날부터 60일 이내에 남베트남 군사기지의 철폐를 완료한다.

이상이 파리휴전협정의 남베트남에서의 '외국군, 그 유사·준군사적 요원, 무기·물자·기지 등'의 철수·철폐에 관한 조항이다. 그밖의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항에서도 남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할 군대 속에 북베트남(월맹) 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철수해야 할 군대는 제3조 A항에서 규정한 '미군과 그와 동맹한 제외국의 군대'로 되어 있다.

휴전 당시 남베트남에는 약 14만 5,000명의 북베트남 군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 발표). 남베트남에서의 북베트남 군대의 존재 여부와 법적 또는 조약상 지위는 베트남전쟁이 미국 전쟁화한 이후부터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주장되어왔다. 북베트남군 정규 부대의 존재는 확인되었고, 사이공 정부와 미국은 이것이 주권국가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에 대한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침략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이 '침략'을 물리치고 '침략군'을 북베트남으로 추방 또는 철수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그 침략과 침략군 격퇴 전쟁을 끝맺는 휴전협정에는 반드시 북베트남으로부터의 '침략군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조약상 상식이 아닌가? 파리휴전협정은 북베트남 군대의 남베트남 잔류를 '적극적 권리'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 없이 전(全) 휴전구조로 짊어지므로써 소극적으로 그 잔류를 묵인한 것이다. 그 토대 위에 휴전 후의 모든 해결방안의 구조에 대해 조인 당사자들이 합의를 본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파리협정은 제네바협정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베트남(남·북)의 문제는 승리한(프랑스에 대해서) 베트남 인민의 민족자결권에 의한다는 원칙이다. 둘째는, 북베트남 군대가 남베트남에 들어온 것은 제네바협정을 위반해서 미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개입한 '뒤'라는 주장을 미국이 오랜 거부 끝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셋째의 논리는 다소 복잡하다. 1954년 제네바휴전협정이 규정한 '휴전선'의 법적 성격의 해석문제다. 북위 17도선을 넘는 것이 한 국가와 국가간의 '국경'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침략행위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이 문제야말로 베트남의 '침략'여부를 가름하는 핵심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남베트남 측의 이론·주장·입장은 북위 17도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이라는

것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베트남의 학자·전문가·정치인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미국의 전문가·학자·정치인들도 나중에는 미국 및 남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대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즉 베트남전쟁은 ‘침략전’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해석이 대세가 된 것이다.

어쨌든, 북베트남의 주장과 이론은 이러했다.

제네바휴전협정과 최종 선언 제6항은 북위 17도선이 “일시적으로 프랑스 군대와 베트남 민족군대를 격리·재집결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일시적 군사분계선이니, 여하한 경우에도 정치적 또는 영토적 경계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군에 승리한 베트남인 군대가 그와 같은 성격의 선 이북으로 이동한 것은 휴전 조인 2년 후인 1956년 7월에 협정이 결정한 남북통일 총선거를 준비하기까지라는 조건부였다. 그 총선거가 어느 쪽에 의해서 거부되었건 그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군사분계선의 설치 근거는 조약상·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것이 북베트남의 시종일관한 주장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의 전체 상황은 1954년 7월 20일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북으로 이동한 군대의 협정 체결 전 상태로의 복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것을 막을 조약상 구속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4년간의 열띤 휴전협상과 북베트남이 미국의 전면적인 폭격으로 ‘석기시대’화해버리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가장 큰 원칙이다.

결국,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별개의 정치적 자결단위로 인정하는 양보(공극적으로는 하나지만, 그러나 남베트남의 3개 세력이 그 정치적 장래를 결정한다는 조건부로)를 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베트남 군대의 남베트남 잔류 권리를 인정하는 양보를 했다는 것이 파리휴전협정의 독특하고도 복잡한 합의인 것이다. 이 30년에 걸친 배경과 1954년 제네바휴전협정의 정신,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대체로 그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파리휴전협정의 전체적 정신과 원칙이다. 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협정 위반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티우 대통령과 남베트남 정부는 휴전협정의 정치 조항과 북베트남군의 잔류를 승인한 휴전협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때 이롭다고 인식하는 당사자와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어느 쪽이 그 이행을 거부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다. 티우 대통령과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이해관계만이 압도적으로 지배한 파리휴전협정에서 불리한 계약에 도장을 찍은 셈이다. 더욱이 54년 이후 30년간 남베트남에서 유일 정부를 자처해온 입장에서 보면 그 불리한 계약의 이행에 성의를 다하기를 요구하기란 가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협정’의 위반 여부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될 때에는 불리한 계약도 계약이라는 일반적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미국의 이해 계산을 앞세운 미국 정부의 조인 압력이 사이공 정부의 협정 이행의무의 면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었다).

(3) 병력·무기 증강

1975년 2월 사이공 정부군의 최북부 지방 철수로 시작된 대패주(大敗走)의 뒤에는 북베트남군 약 22만이 있다고 미국 정부는 비난했다. 휴전 당시의 14만 5,000보다 7만 5,000이 증가된 병력이다. 북베트남군과 해방전선군은 합계 200~400대의 여러 가지로 추산되는 탱크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밖에 각종 무기도 증강된 것이 확실하다. 휴전협정의 무기·장비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휴전 실시 이후 본협정 제9조 B(정치적 제한의) 및 제14조(남베트남 화해정부 수립 후의 외국의 군사·경제원조 수락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정부의 구성까지의 기간 중, 두 개의

남베트남 당사자는 부대·군사고문·기술군사요원을 포함하는 군사적 요원과 장비·탄약·군사물자를 남베트남에 도입하지 않는다.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는 두 개의 남베트남 당사자의 합동군 사위원회 및 국제적 관리·감시위원회의 감시하에, 휴전 후에 파괴·손상·소모 또는 폐품화한 장비·탄약·전쟁물자를 1대 1 기준으로 같은 특징과 성능을 가진 것으로 정기적으로 대체한다.

북베트남과 해방전선 측의 상당한 양의 무기가 사이공 정부군에게서 노획 또는 부패한 사이공군의 장병들이 팔아넘긴 무기·장비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이 내린 무기의 정보 평가를 토대로 할 때 신중·다량의 장비가 휴전 후에 들어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휴전협정 위반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

그러면 남베트남 정부와 미국 측은 어떤가?

휴전에 앞서는 전쟁 마지막 해인 1972년 말 현재 사이공 정부군의 병력과 무기는 다음과 같다.

육군: 정규군 41만, 지방군 28만, 국민군 24만, 국민자위대 140만, 야전경찰군 3만 5,000(계 236만 5,000). 탱크(중·경형 합계) 240대, 장갑차 250대, 기타형 105대.

해군: 병력 3만 9,000, 호위구축함 7척, 고속초계정 70척 및 하천초계정(100톤 미만) 500척,

공군: 병력 4만 1,000, 전투용 비행기 275대, 각종 수송기 약 510대, 헬리콥터 480대, 연습기 465대(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연감, 1972~73년의 군사력 비교, 남베트남 부분).

1972년 5월에 이미 레어드 미국방장관은 사이공 정부의 군사력, 특히 공군력은 미·소·중 3대국 다음가는 세계 제4위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휴전 직전에 미국은 비행기, 탱크 등 기본 무기를 단시일 내에 급속히 증강시켰다. 이것은 『타임』지가 지적했듯이 문구상으로는 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협정 정신의 위반이다. 소련·중국도 그랬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문제는 휴전 이후다. 미국 군대의 철수에 앞서 대부분의 중(重) 무기는 사이공 정부군에 이양되었다. 그 사실은 미국 정부의 발표나 보도로 확인되었지만 숫자는 밝혀진 바 없다.

임시혁명정부 대표는 그 수를 탱크 및 장갑차 600대, 야포 600문, 함정 200척, 포탄 50만 톤이라고 주장했다(4자 군사합동회담에 대한 항의보고, 1973.2.1). 이 항의에서 혁명정부 대표는 “휴전 이후 40일 동안 사이공 정부 공군의 대(對) 지상공격 400회”라고 보고하고, 공군기의 폭격하에 지상 점령지의 잠식과 대규모 공격전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전쟁요원의 잔류 또는 증강문제도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남베트남 동맹국의 각종 군사적 요원(협정 제2장 제3조 A항 규정)은 협정 조인 후 60일 내에 베트남에서 완전·전면 철수하게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베트남에는 정식으로 발표된 대사관 관계 직원 및 그 가족, 순수한 상인·민간인 기술자 등과 관광객이 있을 뿐이다. 이 조항은 남베트남에서의 미국의 군사관계의 ‘일절·전면’정지·철수·철폐이므로 민간인의 자격으로도 잔류하거나 증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1975년 4월 28일 미국이 미국인의 긴급 철수작전을 완료했다는 발표에서 미국인은 6,000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며, 현지에서 쏟아져 나온 미국 보도기관 특파원들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것 같다. 이에 관해서 임시혁명정부 대표는 그 규정된 60일이 지나는 날, 미국이 ‘위장 군사요원’을 다량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이 합동회의에 제출한 그 민간인을 가장한 수는 다음과 같다.

- ① 28성(省) 1시(市)(사이공)에 새로 영사관 부속 ‘성(省) 팀’(team)을 신설·배치. 평정계획 활동을 인계·수행.
 - ② 사이공 주재 대사관 무관(武官) 사무소(DAO)를 확장. 육해공군 무관의 중강 외에 병참 관계 국방성 요원 1,200명 새로 부임.
 - ③ 민간인 기술자의 민간사업계약을 가장한 병기·통신 보수 업무요원 5,000~6,000명 배치.
 - ④ 대사관 공보문화국 및 AID 관계 요원 1,300명.
 - ⑤ 그밖에 각종 명목 요원.
- 합계 8,500명

임시혁명정부 측은 휴전 2년이 가까워지는 1975년 초에는 미국의 위장 군사요원의 수가 1만 9,000명이 되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미국 국방장관 레어드가 이미 휴전 10개월 전 미국의 외교위원회 증언에서 남베트남군, 특히 공군이 세계 제4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베트남전쟁에서 사용하던 미국 군대의 중무기·최신장비가 휴전 바로 전후에 대량 양도된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유지·보수·훈련을 위한 상당한 기술요원이 필요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도 협정 조문상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정 위반의 책임을 밝히기란 어려운 것이고, 더욱이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혼란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상호불신-상호위반-위반의 순환적 확대-불신의 심화-공공연한 위반-전투의 계속-종말이라는 과정이 휴전 이후 2년간의 현실일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성격

1975년 5월 1일, 35년에 걸친 베트남전쟁은 끝났다. 남베트남의 정권도 갈리고 사회의 제도도 달라졌다. 베트남인 자신이나 외부의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각기의 입장·이해관계에 따라 남베트남전쟁을 해석하는 각도도 다를 것이고, 그 긴 전쟁 역사와 그 종말의 형태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도 극에서 극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극은 그 종말을 ‘비극’으로 표현하는 심정이고, 다른 극은 ‘환희’로 맞는 심정이다. 어느 반응이건 그 긴 세월의 극한적인 인간적 고통을 겪지 않은 방관자의 태도일 것만 같다. 대부분의 베트남인은 비극과 환희의 중간에서 이 날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베트남전쟁은 압도적으로 강대한 군사력과 보잘것없이 약한 인간집단의 싸움이었다. 세계 제1의 군사·경제·과학의 총력을 동원한 국가와 그 지원하에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을 가진 현지 집단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한 전쟁의 최초의 예로 전사(戰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 패배에서의 교훈은 단순히 ‘군사력’의강약이나 ‘군사적방위태세’의우열측면에서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외국에서의 반응은 거의 예외없이 그런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교훈을 배경하고 있다. 베트남 사태는 이 글 제1,2부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듯이 군대·군사력·군사적 방위 태세·양분법적 이데올로기·전쟁철학 외의 요인과 요소에서 더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베트남과 인도차이나에서 하나의 역사적 파탄을 겪었다. 1949년 중국대륙에서 일어난 사태의 어쩌면 그렇게도 완벽한 재현인가? 중국대륙 사태의 종말을

‘비극’이라고 본 사람들은 그 10년 뒤 다시 같은 함정에 빠지고, 25년 뒤에는 똑같은 비극의 연출로 아시아 대륙의 지도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원인을 무시한 탓이다. 수많은 요소의 동적 과정(dynamic process)에 무감각했던 탓이다. 그러면 베트남 사태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았던가?

베트남의 사태는 도시가 농촌을, 도시적 주민이 농촌 전체를 적으로 몰고 싸우는 전쟁이다. 이런 성격의 전쟁에서는 이기기 위한 유일한 전술은 오직 압도적인 물질적 중량으로 농민을 분쇄하는 것이다.

농업작물의 파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피난민만들기, 암살·고문의 피닉스(phoenix) 작전, 농촌·농가·농사시설의 전면적 파괴, 주민에 대한 공포적 강압..... 이것밖에 없다(로버트 코머 안(案), 1972년 5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베트남 사태의 원인·과정·교훈에 관한 청문회’의사록, p.81).”

로버트 코머는 미국 국무성 고위관리로 베트남전쟁의 수행 방안을 연구 건의하는 작업반의 책임자였다.

역대의 남베트남 정권은 그 어느 것이건 자발적인 민중의 가치를 못 받고 대중적 정치 토대가 없는 권력이었다. 사이공 정권은 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지체제의 계승자였다. 미국의 개입 이후에는 시급히 필요한 사회개혁은 모두 민족해방전선이 실시했고, 베트남 사회에서 그 사회개혁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이다. 소위 ‘베트남 정부’(government of Vietnam)는 민족해방전선과 도저히 정치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성격이었다. 이 사실은 사이공 정부 지도자들 자신이 자인하고 있다.

티우, 키, 키엠 등 남베트남군 최고의 사령관급은 모조리 자기 민족·국가의 해방·독립에 반대해서 식민지국가 프랑스 군대의 장교로 싸운 사람이다(노엄 촘스키 교수 증언, 같은 의사록, p.82).

레어드 국방장관(미국)은 남베트남 정부가 전투기 1,000대, 대형병력 수송용 헬리콥터 500대를 비롯해서 무제한의 탄약, 완벽한 제공권을 가진 세계 제4위의 군사력이라고 증언했다. 인구비율로 치면 세계에서 최강·최대의 육군·해군·공군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서도 사이공 정부가 견뎌내질 못한다면 그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문제는 군사력 요소가 아니라 딴 곳에 있다. 문제는 남베트남의 지도자들과 지도 역량의 성격 및 남베트남의 정치적 상황이다(Leslie Gelb 증언, 같은 의사록, p.42).

레슬리 겔브는 1960년대에 수년간 남베트남에서 사이공 정부를 도와 평정계획의 현지 총책임자로 일한 미국 국무성의 고위관리다.

이상은 남베트남의 사회·정부의 내부 실정을 진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한 주체를 도운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진단되고 있는가? 사태의 결말로 입증된 논리와 결과로 부정된 논리가 있다. 원인·과정·결과를 정확히 예견했던 쪽의 논리에 당연히 설득력이 있다.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서 솔레징거의 논리

- ① 반공군사적 집단안보의 두령 의식
- ② 외국에 대한 미국의 문명적 우월 의식과 미국식 민주주의 화의 사명감
- ③ 절대적 반공주의
- ④ 민족해방·독립투쟁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고, 그와 같은 투쟁을 일률적으로 소련·중공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본 잘못
- ⑤ 미국의 모든 제도·기구(행정부, 군, CIA, 민간기구.....)의 냉전포교(冷戰布教) 기구화
- ⑥ 경제적 제국주의(이 항목에 관해서는 시인·부인 반반의 증언)

솔레징거(뉴욕시립대학 교수)는 케네디, 존슨 두 대통령의 안보 특별고문이었고, 베트남 사태의 군사적 측면에 늘 회의적이었다.

레슬리 겔브의 논리

- ① 강대한 힘(국력)에의 도취·교만
- ② 한 가지밖에 못 보는 관료주의적 정치
- ③ 미국 국내정치의 요소와 영향
- ④ 제국주의
- ⑤ 현실 사태의 각 단계에 실효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면서 줄줄이 끌려 들어간 프래그머티즘
- ⑥ 강대국 간 '힘의 균형'위주 정책
- ⑦ 정부 각층 지도자급 사람들의 판단력 미숙과 부주의
- ⑧ 그러나 가장 큰 요소는 '공산주의를 저지한다는 도미노이론'(같은 곳)

휴전협정 위반의 각도에서는 쌍방의 책임의 질과 양을 거의 교량하기 어려울 만큼 상호적임을 보았다. 군사력과 군사적 기구의 측면에서는, 한쪽은 한 대의 전투기도 없고 한쪽은 세계 제4위의 공군력으로 완벽한 제공권을 누렸다는 사실 한 가지로도 결론은 분명하다. 더욱이 군대(군인)식 사고방식을 중요시한다면 그토록 막강한 사이공 정부군이 총 한 방 제대로 쏘지도 않고 물거품처럼 완전 붕괴된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남베트남 사태의 종말은 남베트남 사회에 내재하는 특수성·원인, 그 작용, 작용에 대한 반응형식, 그리고 30여 년에 걸친 긴 과정의 인과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베트남인의 민족주의

베트남인의 민족의식에는 베트남전쟁의 어느 편에 서는 입장이건 예외없이 감탄한다. 천 년에 걸친 중국과의 관계에서 베트남은 결코 예속된 일이 없었다. 베트남인의 높은 의식과 자질은 인도차이나의 다른 민족의 두려움이 되어왔다.

프랑스 식민정책은 이 강인한 민족의식을 거세하기 위해 베트남을 북부(통킹), 중부(안남), 남부(交趾支那)로 분할통치하는 방법을 취해왔다. 이것은 같은 제국주의·식민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의 아시아 식민지 운영방식과 대조적이다.

1858년의 프랑스 - 베트남전쟁, 1862년의 중부 베트남의 식민지화를 기점으로 한 프랑스에 의한 100년의 분열 지배정책은 이세 지역의 각각에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남긴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식민·외세가 조성한 지방적 차이점이나 특수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차이성을 과장하는 견지는 바로 베트남 인민의 분열 상태의 지속에서 이익을 얻는 외부세력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식민지 예속화와 그 가장 악랄한 지배 방법으로서의 분열통치는 오히려 국가통치의 제약적 요소이기보다는 민족적 통합과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에너지를 자극했다.

제2차 대전 후 전(前)프랑스 식민지 베트남의 전후처리 구상에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역시 분할통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일정한 신탁통치 기간 후의 통일·독립 베트남을 구상했다(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시 구상). 한 민족의 내부적·역사적(일시적) 차이성이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언제 어디서나 민족적 통합을 반대하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족 외부에서의 그런 논리는 그 민족의 분열·약화·예속적 상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민족 내부에서의 그런 논리는 분열·대립의 항구화에서 이익을 얻는 자의 꾀변이기 쉽다. 베트남전쟁의 긴 역사는 이것을 웅변으로 확인해주었다. 외국의 긴 지배를 겪은 베트남인의 민족주의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같은 동양인이고 같은 민족적 시련을 겪은 장개석인 듯하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는 처칠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탈린과 장개석의 동의를 얻어 프랑스를 배제한 베트남 신탁통치안을 성안시켰다. 이 안은 아시아에서의 전쟁 진전 상황에 따라 수정되었다. 대(對)일본 전쟁이 가열해진 1943년경에는 대일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 확대와 중국전선의 유지를 위해 인도차이나 '전역'(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를 합한)을 중국에 '증여'하는 안을 장개석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이 제의를 받은 장개석은 "베트남인은 결코 중국에 동화되지 않을 민족"이라고 답변하면서 루스벨트안을 사양했다(Henry Wallace, Toward World Peace, p.97).

1954년 제네바협정이 규정한 2년 후의 총선거가 예정대로 실시 되었다면 호치민이 80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판단은 호치민의 개인적 위대성도 있었겠지만, 그가 민족통합·해방·독립의 민족적 결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호치민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그밖에 미국이 불이기를 즐겨한 정치적 이념의 어떤 것이기에 앞서 베트남 인민의 민족주의의 권화(權化)였다. 남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권위는 전쟁 중에도 높이 평가되었다. 적어도 민중의 차원에서 베트남 사태의 본질은 흔히 외부에서 말하기 즐겨하듯 현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기보다는 민족의 해방·재통합을 위한 투쟁의 계속이라는 면이 기조였던 것 같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파탄을 결과했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건전한 의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남베트남 정부의 황제, 역대 대통령, 최고 지도자들은 이것을 국제공산주의 대 반공주의(자본주의)의 투쟁으로 해석했다. 그들이 외국의 총애와 지원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의 힘에 더 깊이 의존하면 할수록 대중의 눈에는 베트남 민족주의에 대한 적대적 존재로

비치게 되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는 하지만 베트남의 역사 및 정치 문화적 환경에서는 거역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면 남베트남의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대중과는 어떤 입장에 섰던 것인가?

민족적 지도역량

사이공 정권이 1954년 이후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수세 또는 열세에 놓여온 이유를 '지도자의 결핍'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제시한다.

월남의 국가 운영에서 또 하나의 곤란은 지도자의 결핍이다. 프랑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디엠 정부에 의해서 지도층이 거의 전멸되었다. 그리하여 정권의 지도자를 충원할 원천지는 군부가 유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지도자 또는 훈련된 관리의 부족은 정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M. Beacher,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New States of Asia", Comparative Politics, 『한국정치학회보』, 제6집, 156쪽에서 부분 인용).

이 견해를 인용하면서 남베트남(사이공 정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논술한 입장(민병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그러나 그 과정의 어려움은 남베트남의 또 하나의 지도역량인 민족해방전선(또는 임시혁명정부)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작용한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하고 있다. 소위 엘리트군의 형성이 그와 같은 요인으로 해서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은 오히려 해방전선쪽임은 모든 사실이 증명한다. 그러면 어째서 같은 조건환경에서 한쪽은 지도역량이 양성 강화되고 다른 한쪽은 계속 약화 쇠퇴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두 개의 권력(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토대의 성격, 최고 지도층의 성분 · 경력 ·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종교적 성분

인구 1,881만(1972)의 남베트남의 약 80퍼센트가 불교도이고, 11퍼센트가 가톨릭교다. 가톨릭 가운데는 1954년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가톨릭 신자 약 30만(전체 약 60~80만 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인구의 불과 11퍼센트밖에안 되는 가톨릭이 남베트남의 정부 · 군 · 관료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인구대비에서 극단적인 '과도권력집중'현상을 이루었다(Bernard Fall). 외래 종교인 가톨릭이 서양(非民族) 지향적이었음에 반해 불교도는 토착적이고 민족주의적이었다. 북베트남에서 도피해온 배경이 그 반공적 성격을 극대화했다. 그래서 사이공 군대 장교단의 50퍼센트 이상이 이 인구비 1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가톨릭이었다. 개중에는 최고 지도자 가운데 극소수의 불교도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소수의 가톨릭이 독점하게 되었다. 가톨릭은 교육과 사회적 기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운영의 엘리트를 형성했고 가톨릭 정권이 하는 일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토대가 되었다. 불교는 그 자체적 성격 때문에도 그랬지만 가톨릭 정권의 강력한 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반(反)가톨릭 정권, 즉 반사이공 정권적 성향을 짙게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서로 비교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가톨릭 불교도

도시세력 중심 농촌세력의 대중성
부유층 · 지식인 이익 옹호 피수탈대중 이익 옹호
서구적 외부 지향 민족적 내부 지향
외세 의존 현대화 우선 토착 · 민족적 통합 우선
철저한 반공주의 관념보다 현실 해결
소극적 민족해방 · 통일 의욕 전통적인반식민투쟁의 토대
현상유지 노선 사회개혁 촉구

사이공 정부와 민족해방전선의 정치적 토대 및 성격은 이런 것이었다. 국민 11퍼센트와 80퍼센트의 대결이라는 성격의 일면을 말해준다.

최고 지도자의 경력

대중적 기반이 지도자를 규정하는 일면과 함께 지도자의 성분이 투쟁의 성격과 지향을 규정했다.

의장(폴브라이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퍼시 상원의원이 방금 한 질문에 나도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남베트남 정부에 관해서인데, 키 장군(당시 부통령)이 1954년까지 베트남인의 대(對)프랑스 항전 시기에 프랑스 공군의 일원이었나요? 두 분 중에 아는 분이 있습니까?

겔브(증인)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툼슨(증인) 기억이 없습니다.

의장 그러면 키 장군은 어디서 비행기 타는 기술을 배웠나요? 우리 미국이 그에게 비행술을 가르쳤나요, 아니면 프랑스군이 가르쳤나요?

겔브 확실치는 않지만 프랑스군에서 배웠다고 믿습니다.

의장 티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키와 티우 두 사람은 각기 프랑스 공군과 프랑스 육군의 장교가 아니었나요?

겔브 제가 판단하는 한 그렇습니다.

의장 얼마 전까지의 디엠 대통령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정부의 한 성장(省長)이 아니었던가요? 아십니까?

겔브 예, 그랬습니다.

의장 내가 읽은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호치민은 이미 베르사유 회의 때부터 베트남 민족의 독립운동을 했고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베르사유 회의에서 각국 대표에게 호소하고 다니며 민족독립에 몸바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강은 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말이지요.

겔브 그렇습니다.

툼슨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태의 원인 · 과정 · 교훈에 관한 증문회(證問會)-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1972.5 의사록, pp.49~50)

사이공 정권의 역대 최고 지도자는 초기의 고 딘 디엠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군인이었다. 남베트남의 사태가 복잡해질수록 군대(군인)식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의 길을 찾기 어려워졌다. 대중을 세력기반으로 하여 사회혁명과 통일의 이념을 내걸어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민족해방전선에 대해서 무력과 탄압으로 대응하는 '반응 양식'은 날이 갈수록 대중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었다. 더욱이 그들이 거의 예외없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프랑스 식민군대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식민세력을 도운 프랑스군 현지인 장교였다는 경력은 그들의 의식 구조를 결정한 듯하다. 민족해방전선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정체 모를 사람들'(facelessness)로 알려져 있었다. 1975년 5월 초순, 사이공에서 임시혁명정부의 새로운 각료 명단이 부분적으로 발표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미 1965년 프랑스의 트론 푸(Tron Phu) 출판사에서 발행한 『남베트남 해방운동의 인물들』(Personalités du Mouvement de Libération du Sud Vietnam)이 밝혀낸 39명의 민족해방전선 지도자들과 일치한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남베트남 출신이고 각종 직업의 혼합을 이루고 있다. 여성까지도 저항전쟁 또는 독립투쟁의 경력을 가진 점에서 남성과 다름없다. 거의가 투쟁 과정에서 투옥의 경험이 있으며 지식, 교육, 출신 성분 등에서도 다양하다. 사이공 정부 지도자들에 비해서 어떤 하나의 소수집단을 대표하지 않는 대중적 배경을 갖고 있다. 특기할 것은, 직업적 군인은 몇 명 없고 대부분이 학자, 변호사, 건축가, 의사, 간호원, 소수민족, 배우, 교사, 문인, 학생으로서 항불(抗佛)·독립전쟁에 참가한 '아마추어 독립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트론 푸 연감의 『공동연감』(共同年鑑), 1969판 베트남 특집 pp.84~85). 민족해방전선의 '통일전선'전략의 성공은 그들의 세력기반이 남베트남 사회의 모든 상하·좌우의 민중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와 같은 대중적 정치토대 없이 '전략'만으로는 성공이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남베트남에 형성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의 세력에 관해서는 해리만(존슨 대통령의 파리휴전협상 미국 수석대표)의 예언이 너무도 적중했다는 감이 있다.

남베트남에서의 투쟁은 이미 승부가 난 것이나 다름없다. 한쪽은 자기 민족을 억압한 식민지 세력에 협력한 사람들이 이끄는 집단이고 또 한쪽은 긴 독립·반식민지 투쟁에 몸바쳐 싸운 사람들이 이끄는 집단이다. 어느 쪽 지도자들이 베트남인을 더 사랑하는가는 분명한 사실이다. 민중의 사랑을 받는 쪽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1969.1.20 협상 수석대표직을 사임하고 나서의 기자회견).

외부원조의 기능과 역기능

미국의 남베트남 정부 원조 부족이 패배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사이공 정부에 대한 지도자들의 입장이 그렇고, 미국 대통령과 군부 일부의 주장도 그렇다. 남베트남의 반공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쓴 미국의 군사비는 약 1,500억 달러로 알려졌다. 이것은 군사비만이다. 경제원조는 다음과 같다.

1950~54년(프랑스-인도차이나전쟁 지원) 27억 달러
1954~65년(제네바휴전 이후) 20억 달러

1966~74년(미국 전쟁화한 이후) 50억 달러
합계 97억 달러
(앞의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의사록과 AID 연간보고 종합)

이밖에 민간단체 원조, 미국 군인 및 가족·현지 기관이 남베트남 현지에서 소비한 막대한 금액과 각종 미분류 사용 금액이 있다. 그 액수는 어느 기록에서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으나 이 항목의 경제원조적 효과는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쨌든 미국만의 경제원조도 100억 달러를 넘는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의 경제물자 지원은 전적으로 도외시키고서도 그렇다.

이것을 장개석 국민당 정권에 쏟아부은 군사원조·경제원조의 합계와 비교해보자. 미국은 1937년 7월, 일본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하여 49년 사실상 장개석 정권의 운명이 결정나서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12년간 경제·군사 목적의 무상공여와 차관 등 각종 지원 합계 35억 2,300만 달러, 주로 현물 또는 군사비 대충자금으로 사용된 10억 7,810만 달러, 합계 46억 110만 달러를 주었다. 각종 잡항을 합치면 50억 달러로 추산된다(미국 정부발행, 『중국백서』 원조부).

중국의 광대한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약 50억 달러(그것도 군사·경제 합계)에 비해서 1,500억 달러의 직접 군사비를 제외하고도 경제적 지원만을 위해 100억 달러가 남베트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원조가 전쟁수행 능력의 일시적 효과라는 적극적 기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반면 외국 경제의 압도적인 작용은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베트남의 사회·경제·문화적 구조와 남베트남인의 도의적·정신적 바탕에 역기능으로 작용했다. 국가의 전체 기능이 외국원조(따라서 외세) 의존적이 된 것이다. 전쟁경제는 극소수의 권력층에 부를 집중시킨 반면 대중의 복지는 거의 무시되었다. 도시 위주의 경제구조가 형성되고, 따라서 전쟁경기에 접하는 부유권력층의 사치풍조는 불교·가톨릭적인 본래의 검소한 생활양식을 파괴했다. 무한한 듯 보이는 물질의 충격으로 부패·타락은 남베트남 사회의 대명사가 되었다. 가장 심한 것이 사이공 정부 군대였다. 전통적으로 남베트남 사회의 조직적 토대였던 지방의 자치적 생활방식은 깨어지고 미국식 개인주의가 생존의 신조가 되었다. 사이공 정부 군대의 장교와 사병이 군수물자와 무기를 민족해방전선에 팔아넘기는 데서 수입을 잡는 사태가 일반화했다. 무기를 적재한 배, 트럭의 대열이 송두리째 해방전선으로 넘어가는 일에 관해서는 외국의 특파원도 나중에는 관심이 없을 만큼 생활화했다.

이 모든, 그리고 그밖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상은 한마디로 베트남 민족의 인간적·사회적 타락을 초래했다. 그럴수록 그것은 긴 항불·독립·통일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는 민족해방전선에서는 세력확장의 기회가 되었다.

사이공 정권과 미국이 남베트남에서 ‘공산주의’라고 단정한 민족해방전선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장기적으로 농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의 속성은 바로 그 반대 방향을 치달은 것 같다. 그 책임과 과오는 미국도 분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그런대로 베트남 인민의 전통을 존중했다. 프랑스에 비해서 미국은 베트남 민족의 전통을 무시했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가난했다. 미국의 경제력이 프랑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대할수록 그 물량적 중압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눌러 베트남 사회의 고유 윤리는 붕괴해버렸다. 미국인은 동양인 특히 그들의 문화와 이질적인 베트남의 불교적

생활양식·가치관을 멸시했다. 베트남의 불교도에게는 독재·탄압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이 베트남의 파괴자로 비친 것이다(트리 쿡 僧, War, Crimes and the American Conscience, Erwin Knoll 역음. pp.133~134).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미국과 사이공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도와 민중

서로 경쟁하는 상이한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가 투쟁할 때, 후진적 농업국가에서 승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는 가난한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지지임을 남베트남은 실증했다. 1949년 중국의 결과가 그에 앞서는 좋은 예다.

남베트남의 농업(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80퍼센트면서 국가 수입 면에서는 30퍼센트를 차지할 뿐이다. 공업이란 초보적인 상태여서 전체 제조공업의 고용인구는 12만(사이공 6만, 전 지방 6만)이다. 이밖에 5명 미만 고용의 가내공업 인구가 16만 8,000명이었다(「베트남 전후개발」-미월(美越) 합동개발조사반 보고).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만 보아도 남베트남의 제도가 특권·권력층 지향이지 대중·농민복지 지향이 아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 딘 디엠 대통령 시대인 1956년 농지 소유 100헥타르를 상한으로 하는 농지개혁(분배)법이 성립했다. 이것은 디엠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정책의 일면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동기는 남북 총선거를 거부한 후 남베트남에서의 대중적 정치 기반을 굳히는 것이었다.

북베트남의 사회주의적 토지분배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전(前) 식민권력 프랑스의 정부·프랑스인 지주·공인·개인의 소유였던 농지 41만 5,000헥타르가 베트남공화국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구적산'(舊敵産)인 이 농지 가운데 1970년까지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약 7만 헥타르에 불과했고, 34만 5,000헥타르는 1970년 3월까지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토지는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최근까지 베트남 정부의 고문으로 현지에서 근무한 미국 관리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분배 토지는 '정부 관리'하에 있었고, 정부 고위 권력자들이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그 땅을 도지(賭地)주고 있다. 지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은 토지분배의 이상적인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농토 없는 빈농은 사이공 군대가 농촌 지방의 지배권을 다시 장악하면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곤 했다. (베트남에 의해서 분배된 농토는) 정부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 다시 정부군에 의해서 과거와 같은 낡은 소작제도가 복구되기 때문이다. 정부군이 점령하고 들어온 지역에서는 실제로 군부대의 보급트럭에 구지주가 함께 타고 들어와 부대장과 이익금을 분할한다는 계약으로 자기 소유 농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명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의해서 이미 분배된 농지 소유권을 차라리 그대로 기정사실화 하는 방식을 포함한 농민 지향적 농지개혁을 하는 것이 어떤 한가지의 반란 진압 방법보다도 농민의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사이공에 앉아 있는 '지주 지향적 지도층'이 진정 그와 같은 농지개혁을 지적(知的)으로 구상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다. 그들은 사이공의 군장성과 의사들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Bernard Fall, "Vietnam in the Ballance", Foreign Affairs, 1996년 10월호, p.5).

1970년 미국은 농지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느껴 사이공 정부에 '무상분배'를 위한 재정원조 제공과 동시에 그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외국인 특파원의 현지 보도는 정부관리와 군장교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유상금'을 뇌물로 바쳐야 '무상'분배분의 명의변경이 되는 부패상을 알려주었다.

미국의 기본적 구상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쟁의 주도적 사회집단이 가톨릭·부유층·군장교단, 도시생활 기반의 주민, 외세 지향적 반공 지식인이었던 까닭에 베트남 농민의 복지는 거의 무시되게 마련이었다. 미국 정부와 사이공 정부는 베트남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을 예상했다. 그 승리를 토대로 남베트남의 '10년 경제복구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했다. 웅장한 남베트남의 미래상을 국가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집대성한 것이 「베트남 공화국의 전후개발:정책과 계획」("The Postwar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Policies and Programs", March 1969)이다. 이 계획서는 농업·농촌의 부흥에 관해 이렇게 결론짓고, 정책화를 권고하고 있다.

.....생산과 농가 수입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토지 보유를 소단위로 분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작물은 (농지 소유를 분해하면) 대규모의 농지 보유 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경작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 개량은 그와 같은 유리한 기업이나 노동이 불가능한 잠재적 사용자를 창조해내는 데까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적으로는 농업과 농민의 빈곤 해결은 작은 자가경작 방식보다 경제성이 높은 유효한 농업 노동력에서 찾을 수 있다(종합적 권고, 제7장 농업개발).

대단위 농지보유제도가 경제성·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다. 그러나 농민을 농업노동자화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농촌·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견해야말로 땅에 굶주린 베트남 농민의 염원을 완전 무시한 것이다. 대단위 농업이란 농장을 뜻한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역사상 그와 같은 제도가 무엇을 뜻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가난한 농민과 토지 사이의 정신적·정서적 관계를 일절 고려하지도 않은 태도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농민 1세대의 생계는 1헥타르의 땅이면 된다고 한다. 농지개혁 법안이 통과된 1956년 이후 70년까지 15년간 국가에 수용되어 권력자와 군장성들이 입찰자에게 임대해서 사복을 채워온 40만 헥타르를 처음부터 농민에게 분배했다라면 40만 세대의 생존이 확보되었으리라는 뜻이 된다. 토지 분배를 제네바휴전협정 이후, 상황이 평온할 때 즉시 실시했다라면, 1세대 5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200만의 농민이 정부를 지지했음은지도 모른다. 그것은 전체 농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지지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며 베트남이 생겨날 근거를 없애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제도와 지도층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 같다.

도시 주민의 복지정책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면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문제가 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외과의사인 아르츠(Harold Arts) 부처의 남·북 베트남 방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1972년 8월 북베트남 방문과 73년 초의 남베트남 방문 기간중 의료 관계 사업과 지방을 조사한 결과 남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의료복지에 대해서 북베트남 정부보다 훨씬 성의도 관심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북베트남에서는 인구 7,000명에 유자격 의사 1인꼴인데, 남베트남에서는 인구 5만 명에 1인꼴이다.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은 혜택조차 받기 어렵다. 남베트남에서는 전쟁 그 자체로 인한 희생자 수보다 사이공 정부와 미국 정부의 민중의료·복지에 대한 무관심 탓으로 인해 생기는 환자 쪽이 더 많다는, 남베트남 근무 6년 경력의 미국 정부 파견의사의 결론에 동의한다(日本東京, 共同通信社 발행, 『世界週報』, 1973.4.17, pp.62~73).

그밖에도 많은 요인이 있다. 모든 것을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로 양분해버리는 사고방식도 그 하나임은 거의 모든 권위 있는 관측자들의 일치된 결론이다. 미군의 군사개입이 오히려 남베트남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건전한 감각을 지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의 견해도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다. 베트남인은 그런 성격의 민족인 것이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간곡히 충고한 대로 사태는 미국의 '비극'으로 끝났다. 베트남 사태는 그 종말의 형태에서보다 남베트남의 내부적 특수성·인과관계에서 더 많은 참된 교훈을 주는 전쟁이었다.

• 1975

*이 글은 앞서 『창작과비평』에 실린 「베트남전쟁」 I, II에 이은 제3부다. 제1부는 1972년 여름호, 제2부는 1973년 여름호에 각각 발표되었다. 이 제3부는 제1부와 제2부를 합친 35년간의 베트남 사태의 총평이며, 특히 파리휴전협정 조인(1973. 1.27) 후부터 전쟁 종결(1975.4.30)까지의 사태 발전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사태의 전 과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책 『전환시대의 논리』, 「베트남전쟁(I)」과 「베트남전쟁(II)」를 참고하기 바란다.

1-4. 베트남, 그 후* (1984년, 80년대)

하노이, 빈곤과 정치선전의 거리

희미한 가로등이 새벽 햇살에 밀려나면 하노이는 숨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아침 잠을 깬다. 100만 대도 넘어 보이는 자전거가 길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끔 가다 몇 대씩 관용 승용차도 나타나고 얼마 안 되는 오토바이도 눈에 띈다. 고색 창연한 버스, 그보다도 더 낡아 보이는 전차가 공손하고 예절 바르며 절도 있는 시민들을 콩나물처럼 빼곡히 태우고 먼지 많고 초라한 시내를 덜컥거리면서 달려간다. 상점·사무실·시장이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시간부터 하노이에는 또 하루의 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이 콩나물 전차의 풍경 사진을 찍거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누추하고, 조금도 나아진 흔적이 안 보이는 빈곤 - 이것을 정부는 '서로 나누는 가난'이라고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 은 어디서나 역연하다. 시(市)는 어떤 기준에서 말하든 지저분하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그런대로 번들거린다. 그 중앙부는 가히 하나의 건축물 박물관이라고나 할까. 수많은 호수와 공원으로 이름났던 1930년대의 프랑스 식민지의 성도(省都), 다 낡은

황토색의 2층 별장식 빌라, 일본군의점령과 30년 전쟁의 온갖 소모와 파괴를 옹케도 견디어낸 녹색의 셔터(겉문)와 가로수로 장식된 시가.....

이 도시의 120만 시민의 대부분에게는 나날의 생활이 스파르타식이다.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옷차림은 지극히 검소하다. 임금은 싸고, 상점에도 살 만한 것은 별로 없으며, 상점에 물건이 있어도 살 돈도 없다. 베트남인들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가지고 생활하지도 않고 오락이나 위안이라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 탓인지 베트남의 국영방송, 텔레비전, 신문에서는 정부의 선전들만이 억척스럽게 떠들어댄다. 그토록 오랜 세월의 궁핍과 투쟁을 겪고도 왜 여태껏 물자가 이렇게 부족한가, 어째서 시내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종류와 물량이 이렇게 부족한가 등등을 끊임없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평균 월수입(임금)은 100동(dong)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공식 환율로는 미화(美貨) 10달러이고 암시장에서는 1달러에 해당한다. 그런 것이 있지도 않지만, 만약 있다면 던힐(Dunhill) 담배 한 갑이 10동은 할 것이다.

고아원, 식당, 집단농장, 군(軍)신문사, 전쟁박물관 등 어디를 방문하든, 또 정치가를 만나건 관리를 만나건, 선전 - 은밀하건 노골적이건 - 은 방문의 구성요소가 된다(일반적으로는 영어를 말하는 안내원의 빈틈없는 안내를 받게 마련이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대충 비슷하다. 중국은 천 년 동안 언제나 그러했듯이 지금도 인도차이나를, 특히 베트남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진짜 적(敵)이다. 소련만이 친구, 그것도 진정한 사회주의적 친구다. 미국의 간섭을 받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 5개국 연합기구)이, 베트남 관리들이 키우 삼판 · 노로돔 시아누크 · 손산의 흉악한 결합체라고 말하는 단체(캄보디아의 반베트남 세력)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한, 캄보디아문제를 놓고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이런 이야기들이다).

베트남으로서는 캄보디아가 짐이 될 뿐이며, 따라서 그곳에 주저앉을 생각은 없다고 베트남인들은 주장한다. 중국이 대량학살자 폴 포트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고 철수하면, 베트남은 하루 이르지도 않고 하루 늦지도 않은 바로 그날로 철수할 것이다. 베트남의 궁핍, 재정적 부담, 남부(베트남)의 재건사업의 어려움,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전쟁의 피해..... 등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있을까? 외상(外相) 구엔 코 타크가 얼마 전 “간신히 지탱할 수 있는”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힘겨운 경제와, 각종 사회적 시설의 핵심한 전쟁 피해의 생생한 물증들은 누구에게나 역력하다.

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다리들

우리 일행은 새벽 5시, 중국 국경선을 향해 출발했는데 하노이의 롱빈 교(橋)를 건너기 위해서 한 시간을 지체했다. 이 다리는, 이름 그대로 ‘붉은 강(홍하)’의 넓디넓은 폭을 가로지른 다리다. 1896년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이 다리는 현재 이 도시의 소요(所要)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다. 트럭 한 대가 그 위에서 고장나 서버리면 이 다리는 거의 영원토록 제구실을 못 할 것 같은 상태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이퐁 항(港)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했지만, 주로 이 다리를 통해서 북베트남인들이 미국 군대와 남베트남과 싸우고 승리한 그 처참한 전쟁을 이끌고 나가게 해준 식량 · 기계류 · 무기류 등이 중국으로부터 북베트남에 들어왔던 것이다.

공습으로 무너진 다리의 잔해가 저 아래 홍하의 모래 속에 여기저기 묻혀서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인다. 전쟁의 발톱자국은 어디를 가나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 국경까지 좁은 도로의 주변은 아직도 폭탄 웅덩이로 곰보처럼 패어 있고, 완전히 파괴됐거나 크게 무너졌던 다리가 적어도

16개가 된다. 지금도 그중 몇 개는 완전 복구되지 못한채,아직도 응급용 가교로 이용되고 있다.그 모두가 미국의 폭격이나 1979년 잠시 동안 있었던 중국 침공군의 포격흔적들이다.

시골과 촌음

시골 풍경은 황홀하다. 층층을 이루어 높이 쌓여 있는 듯한 건담(乾澗)과 수담(水澗), 고구마와 그밖의 야채류의 밭들, 톱날처럼 깎아세운 석회질 절벽을 가진 산을 배경으로 흐르는 강물과 골짜기, 이 절벽과 강, 그리고 골짜기들은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자연적 요새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 일행에는 베트남군의 중령 한 사람이 동행했다. 그는 22년간 군복무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생 동안을 오직 전쟁으로, 처음에는 프랑스인, 다음에는 미국인,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인과의 전쟁으로 지냈다고 말한다.

“중국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상대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 중령은, “중국인은 본래가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였고.....”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베트남군의 (여름용) 정규 군모인 별표 달린 수피(樹皮) 헬멧을 벗더니 나더러 쓰라고 전한다. 내가 지난달 베트남 경찰에 지급된 볼품없는 소련식 새 정복과 모자에 관해서 한마디 하니까 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그것을 지급받고 있지요.” 나는 그가 그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눈치를 챘다.

상당히 큰 읍에 들어섰다. 나는 아이스박스 속에서 얼음에 재웠던 아사히 비루(일본 아사히 맥주)와 코카콜라를 꺼내 중령·운전사·안내원에게 하나씩 내밀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싸고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다.

“리엔 소(소련=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내가 대답했지만 그들은 그런 나라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강통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한 아이에게 코카콜라를 주었다. 맛을 보더니 언짢은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반짝거리는 빈 강통이었다. 장난감이 없는 나라에서 무엇인가 새롭고 반짝거리는 물건을 갖고 싶은 것이다!

중국은, 동 당(Dong Dang)에서 끝나는 도로의 저쪽에, 깜짝 놀랄 만큼 느닷없이 나타났다. 이곳은 한때는 주민 5천을 헤아리는 제법 큰 국경도시였지만 1979년의 1개월 전쟁에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다. 나는 잿더미로 남아 있는 이곳을 굽어보고 있는 1,000피트 높이의 산을 올라다보았다. 그 꼭대기에서 중국 측 레이더 반사판이 재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의 초점을 그것에 맞추었다.순간적으로 중령의손바닥이렌즈를 가로막았다.

“촬영 금지!”

하노이의 전쟁박물관

우리는 길을 걸어 내려왔다. 동 당에서 비교적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는 유일한 건조물은 탑의 일부였다. 그밖에는 모두가 껍질뿐이었다. 그중의 한 담벼락에 중국인의 짓인지 베트남인의 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음탕한 그림 하나가 아주 뚜렷하게 스케치되어 남아 있었다. 나는 보라는 듯이 그것을 손가락질했지만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북쪽은 상당히 청교도적이다. 나는 동당에 누가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중령이 정말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대부분이 중국계들이라고 답변했다.

“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면, 중국인은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죽여버리지요. 심지어 자기 동족까지도 말이예요. 그놈들은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두고 보시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고 말거예요.”

멀리 보이는 논에서 베트남의 한 소수민족인 농족의 여인들이 푸른 목뎡기를 한 모습으로, 찌는 더위 속에서 개미같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다.

이튿날, 하노이에 돌아온 나는 전쟁박물관을 관람했다. 광장에는 미국·남베트남·중국의 군대에서 노획한 탱크, 각종 포, 헬리콥터, 각종 소형 무기들이 진열돼 있었다.

베트남어·영어·러시아어로 쓰인 한 플래카드는 베트남인 300만이 목숨을 잃고, 미국인은 90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른 플래카드는 격추된 미국 비행기의 숫자에서 허황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나의 안내원은 팔에 상처 자국이 있었는데, 그의 말로는 대공포부대의 장교였을 때 B-52 폭격기의 폭탄 파편에 다친 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네 차례나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유명한 디엔 비엔푸 디오라마(투시화관)를 찾았다. 그것은 큰 규모의 수영장만한 크기였다. 불을 끈 실내에서는 영어로 녹음된 설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디엔 비엔푸의 언덕, 계곡, 평야 등이 작은 등(燈)의 선광(線光)으로 비쳐졌다. 베트남군의 야포공격이다. 베트남군의 참호는 주변의 짙은 녹색의 넓은 논 속에 가느다란 금실로 표시되어 있다. 성냥갑만한 크기의 탱크들이 프랑스군 비행장을 향해 전진해간다. 프랑스군 부대의 지휘소 하나가 유린되고, 뒤따라 다른 지휘소가 괴멸된다. 백기(白旗)가 나타난다. “프랑스군 장군 하나가 자결했다”고 녹음된 목소리가 말한다. 프랑스군은 지리멸렬하여 도주한다. 이때 갑자기 조금 전까지 3색기(프랑스 국기)가 게양돼 있던 곳에 베트남기가 펄럭인다. 금세기의 한 역사를 바꾼 치열한 전투의 하나가 끝난 것이다.

하노이의 실상 - 사회주의의 허상

한 친구가 하노이에 지금도 남아 있는 4개의 프랑스 요리 식당 가운데 하나에 나를 안내해주었다. 그는 절대로 그 자신은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승용차를 갖고 있다. 그는 차창을 열어놓은 채 한길에 놓고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도 손대지 않으니까. 남쪽에서는 그렇지 않지”라고 말한다. 음식은 좋고, 주변은 지저분하고, 식당 주인은 철학적이다. 식당은 그의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무거운 세금을 낸다.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유제(遺制)이니 별도로 있느냐고 그는 체념하고 있다. 그 프랑스인 식당주인은 이제 낫설어진 프랑스로 돌아가기보다는 여기서 이 사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승용차로 돌아가니 차주인이 그 날 시장 본 물건들이 뒷자리에 놓인 그대로 정확히 남아 있었다.

하노이에서 본 공중적 정직성의 수준은 내가 경험한 아시아의 어떤 도시의 그것과도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지않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째는, 부패가 실제로는 이미 지방병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남부(베트남) 전염병’이라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외국산 담배에 대한 광장한 웃돈 거래를 보기만해도 이것을 알 수 있다. 담배는 베트남의 화폐 대용이다. 둘째는, 서구인들에게 억압으로 느껴지는 은근한 감시의 태도다. 사람들은 감시받고 있다. 한 서구인은 나에게 하인들 앞에서는 말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심부름꾼들은 정기적으로 우리의 거동에 관해서 치안경찰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들끼리 서로를 보고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한 하인이 빈 아이스크림 깡통을 달란다고 합시다. 그것을 가져다 자기 집에서 무슨 용도엔가 쓰겠지요. 그런데 다른 하인은 같은 물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인이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제문제

나는 어떤 농업전문가 회의를 참관했다. 그들은 농지 분배, 비료, 살충제, 협동농장과 자유농업 등등의 문제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나에게 설명했다. 누구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인구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정부 간행 공식문서에 의하면 인구 증가율이 연 2.6퍼센트로, 그것이 당장 내일부터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질 까닭이 없지만 금세기 말까지 현재 인구 5,300만에서 9,000만,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것은 베트남 인구가 거의 배가한다는 뜻이며, 불가피하게 식량생산이 배가돼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업자원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회 간접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베트남은 앞으로 거액의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베트남 비극 후의 사이공 모습

소련제 제트여객기로 보는 남쪽의 풍경은 전혀 다르다. 탄손누트 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은 눈에 익은 나라의 모습이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책의 경우처럼, 여러 해 전의 기억과 같지만은 않다. 사이공 - 누구도 여기를 호치민 시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 에는 지금도 제법 화려한 장식으로 영업 중인 옛날 그대로의 자본주의적 호텔이 적어도 두 개가 있다. 그중 하나에서는 별로 식사를 하지 않지만 그곳의 생활양식은 이상하리 만큼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기주의적 분위기를 풍겨서, 북쪽의 내핍, 검소, 극기(克己)의 생활을 경험하고 온 사람에게는 얼굴에 한 방 얻어맞은 것과 같은 당혹감과 놀라움을 준다.

하노이의 여성들은 작업복 같은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다. 사이공에는 지금도 그 화사하고 풍부한 색채의 아오다이 - 날씬하게 길며 옆이 트인 스커트 속의 검은 바지 - 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노이를 보고 온 눈에는 사이공의 교통은 거의 살인적이다. 상점과 시장은 웬만한 상품을 다 갖추고 있다. 마침 인도차이나 3국 외상회의가 개최 중이어서, 방콕에 사무소를 둔 서방세계의 기자들 30여 명이 몰려와 있었다. 이렇게 수많은 서방 특파원을 맞이하고 보니 당국의 감시의 눈도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안내원이자 고문과 스승을 겸한 격인 베트남인은 남부에 왔다고 해서 암시장에서의 외환 암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의 경제를 사보타주하기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안내원은 사회주의자적 냉소를 띠며 말했다. “예, 그러지요”하고는 싶지만, 암시장 시세가 워낙 구미가 당기는데야 어쩔 것인가!

하이네켄 맥주 한 깡통 값이 미화 1달러, 호텔 요금도 달러로 요구된다. 굉장히 비싼 자동차 요금 역시 ‘그린백’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밖에는 동이 사용된다. 외환 암시장 시세는 75~100동이 1달러다. 투 도 가(街)에서 트라 바이 등 가 사이의 어디에나 자리잡고 있는 암달러 시장에서 암시장 시세로 동을 받으면 외국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보통 안전하고 최저 레이트인 75동으로 바꾸어서는 유럽인 친구를 데리고 호화스러운 프랑스식 식당에가곤 했다. 거기서 음악을 감상하면서, 단맛으로 껌질이 씹워진 공기보다도 가벼운 수플레(달걀 흰자를 섞어 부서부서하게 부풀도록 구운 요리)를 깊숙이 푹 떠 먹고는, 기가 막히게 맛 좋은 알자스산 백포도주로 씻어 내려 보내는 것이 낙이었다.

사이공은 베트남이 통일된 지 7년이나 지난 지금도 뒤죽박죽이다. 어떤 문제들은 완화되었고 어떤 문제들은 더 나빠진 상태다. 내가 남베트남의 수도에 있었던 8년 전에는 시의 안팎에 거의가 전쟁 피난민인 집 없는 인구가 적어도 100만이 넘었다. 초인적인 노력과 조치로 그것은 지금

10만가량으로 줄어든 듯하며, 그 당시 450만의 시 인구는 350만 정도로 줄어 있다. 이것은 상당한 수의 사이공 주민이 교회나 농촌에 건설된 '신경제지구'로 이사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아직 그 당시의 추잡한 풍경은 여전하여, 거지들과 실업자들이 해가 저물면 골목길이나 뒷길뿐만 아니라, 대로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왕년의 자본주의적 건물들의 지붕 있는 석조 기둥(주랑) 아래 자리를 펴고 누워 있다.

길거리에 나가면 매일같이 미국인 아이들에게 포위된다. 남베트남에는 지금 미국인 아버지와 남베트남 여인 사이에 생긴 혼혈아가 8,000명가량 있는데 대부분은 백인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난 아이들이다. 백인 아버지건 흑인 아버지건 관계없이 이들이 오늘날의 베트남에서 가장 푸대접받는 인종이다. 주위 사람들보다 덜 짙은 색깔의 부드러운 머리칼에, 가끔 푸른 눈동자의 이 아이들은 비극적 운명을 타고났다. 이 미국인 혼혈아들은 어머니가 서명을 하긴 했지만 직업적 대서사(代書司)가 작성한, 하소연하는 문장이 적힌 종잇조각을 가지고 다닌다.

그 글의 사연은 가지각색이다. 어떤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제가 1973년, 미국인과 동거하다가 낳은 아이인데 이름은 구엔이라 합니다. 구엔은 미국인 피가 섞인 얼굴 때문에 학교 가기를 부끄러워합니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메레시안'(Amerasian) 아이가 나의 손에 쑤셔 넣어주는 것을 보면, "그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올 때마다 환영을 했더니 그 후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누구도 이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의 나라도 원하지 않고, 어머니의 나라는 더욱이나 원하지 않는다. 취재차 잠시 왔던 유럽인 특파원들이 그들의 본거지인 방콕으로 돌아가버린 뒤에는 이 '미국-아시아' 혼혈아 거지들의 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시내에 나타나면 어딘가에서 두셋이 다가오지만, 그 많던 거지 아이들은 백인들이 가버린 것을 알고 대부분 어디론가 뿔뿔이 사라져버렸다.

사회주의적 질병의 도시

그렇지만 이 미국인계 거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질병이 깃들여 있는 도시의 상징적 존재다. 그 한 예로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있고, 먹고 살아갈 기술과 기능, 산업시설(남부 베트남에서는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식료품 공급, 전력, 의사와 진료시설, 치과 의사, 부속품과 예비부품 등 모든 것이 태부족한 상태다. 남부 베트남은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의 각종 문제를 놓고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이율배반적인 일이 많았다.

70대의 정치국 강경파 지도자들은 남부의 강제적 통합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총으로 다스려야 하고, 그것은 남부 베트남인들의 자업자득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북부가 남부의 절반을 투옥하거나 몰살해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모르되, 남부 전체도 그렇거니와 특히 사이공이 실제로 그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보면, 그런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타크와 국가기획원의 신임 원장인 실용주의자 보반 키에트 같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하노이의 계획 수립가들은, 남·북부 베트남의 서로 다른 국가·협동조합·협동농장·반사유(半社有)·반사유(半私有)·개인 소유 등 각종 형태의 제도를 여러 가지로 결합·혼합시키는 방법으로 남베트남을 한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공산주의로 바꾸어가는 통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나는 제법 현대적인 4색 인쇄소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국가-개인'공영식(共營式) 기업체를 방문·시찰했다. 이 인쇄소는 정부가 임명한 다소 교조주의적인 남부 베트남 임시 혁명정부의 전(前) 간부 2명이 관리인이 되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전(前) 공동소유자의 한 사람인 전무가 운영하는 형식이었다. 이 인쇄소는 아주 능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관리

방침에 따라서였다. 경영의 사(私)기업적 측면에서 제시되는 생산 유인이라고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대부분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다소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일의 무료 점심식사와 여분의 쌀 배급 정도였다. 이전 공동소유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북베트남은 남에 대해서 부르주아적 생활수준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한때 남부 베트남인들이 몸에 익혔던 정도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

돈만 있으면 화이트 호스 위스키 한 병을 7달러에 살 수 있고, 원색 필름을 암시장에서 300동 또는 4달러에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사치품 매매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남 · 북 베트남의 이질성

사이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능하고, 상당히 실용적 · 현실주의적 공산주의 이론가들이다. 다만 그들은 내가 사이공 시내에서 테니스 라켓을 걸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한 소녀의 눈치를 볼 때 위스키나 원색 필름 같은 것을 부르주아적 퇴폐의 상징으로 멸시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으로 달라진단 말인가? '우정 어린 값'으로 도입했다는 초만원을 이론 사이공발 하노이행 구식 소련제 여객기의 승객은 비행기 안에 짝 찬 남쪽의 잡화로 발을 옮겨놓기 힘들 정도다. 그것들은 대부분 장난감 · 선풍기 · 비스킷 · 초콜릿 · 혼다(일본제 오토바이) 부속품 · 옷감에다 심지어 코냑 병도 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비공산주의로서 통일된 유일한 국가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두 개의 독일이 통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베트남은 유일한 그런 융합이라 할 것이다.

한 세대쯤 후에 변해 있을 베트남은 하노이에 있는 노령의 당지도자들이 꿈에 그리는 형태의 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반대로 아직도 사이공에서 몇몇 사람들이 못 잊어 그리워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자유경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두 체제의 튀기 같은 것이 될 전망이 가장 크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적 순응성을 질게 띠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되리라는 것이 제일 큰 가능성으로 보인다. 정치체제는, 어떤 변화된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필경 공산주의적이다. 외국인으로서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인상은 주로 꾸준한 설득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카오다이교

나는 (베트남전쟁기간의) 옛 추억에 끌려 다시 카오다이교(Cao Dai 教) 사원을 구경할 셈으로 사이공 북서방의 타이닌으로 가기 위해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때 보았던 흉악한 용(龍)들이 지금도 그대로 거대한 기둥을 휘감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상당히 큰 가스 미터기만한 크기로 부릅뜬 눈알이 여전히 높은 제단 위에서 속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나 다름없이 흰 법복을 입은 무식한 중이 의식을 집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톱도 그때나 다름없이 더러웠다. 부처님을 가리고 있는 금색의 높은 차양(해가리개)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날아갔다 왔다 하는 참새들도 그때의 그 참새들이었다.

빅토르 위고가 두루마리 위에 “Dieu et humanité, amour et justice”(신과 인간, 사랑과 정의)라고 펜으로 적고 있는 것을 손문(孫文)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의 벽화도 훼손된 흔적 없이 그대로 있었다. 1930년에 한 괴이한 프랑스 식민지 공무원에 의해 서 창시된 카오다이교는 절충주의적 종교이고 교리는 일관성이 없다. 그 후 이 종교는 반(反)프랑스, 반고딘 디엠(정권), 반구엔 반 티우(정권)로 일관했다. 그러나 틀림없이 반공산주의다.

70만 타이닌 주민의 거의 60퍼센트가 카오다이교도다. 성인민위원회(省人民委員會)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모든 정황을 살펴본 결과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손을 댄 것은 다만 이 종파의 병원, 후생사업,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그들의 학교를 폐지한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조치로, 크리스천계 학교를 폐지하면서 희망했던 것과 같이, 카오다이교가 말썽 없이 사그라져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반공산주의적 반체제파에 대한 탄압

그러나 그밖의 다른 반공산주의적 반체제파, 그중에서도 ‘앙시앵 레짐’의 상부층에 대해서 취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렇게 유순한 것이 아니다. 구정권 지도자들의 얼마쯤은, 영화를 누리던 때보다는 훨씬 못한 형편이지만 지금도 사이공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 그들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공개적 화젯거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들은 관심의 각광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과 접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들에 관한 조처는 종잡을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구(舊)체제에 대한 강력한 탄핵이라 할 수 있다. 종전 이후, 반체제자 중 약 10만 명 - 그중 약 2만 5,000명은 개전의 정이 없는 극렬분자 - 은 재교육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가장 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반체제파라고 불리는 집단의 숫자는 분명치 않지만 전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요원들, 왕년의 공산주의자로서 지금 환멸을 느낀 사람들, 해방투쟁 기간 중의 공산주의 동조자들이다. 그들의 반감은, 돈을 받고 캄보디아 침공군의 복무에서 친구들 또는 친척들을 빼내기도 하고, 이력저력해서 쌀 배급, 더 나은 직장, 가끔 있는 해외여행을 울궈내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을 더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분망하는 당간부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의 말인즉, 자기들은 공안경찰, 억압적인 당간부들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은 투쟁 기간에 동지들을 믿었던 것만큼 옛 동지들조차 믿지 못하며, 자신의 자식이나 친구의 자식들은 더군다나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런 것을 통틀어서, 남에서는 지금의 공산주의 대 반(反)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정직 대 부정직이 문제라고 말한다.

글쎄,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있고, 그중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과장돼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변화의 긴장상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어떤 이의 웅변을 빌려 표현하자면 “Très triste, monsieur, très fatigué”(몹시 괴로워요. 선생님, 정말 피곤해요)의 상태다.

*역은이주: ‘30년 전쟁’이 끝난 1975년, 베트남은 북부 베트남에 의해서 통합되었으나 그 후의 소식은 묘연하다. 수많은 베트남 탈출 피난민, 그리고 캄보디아 피난민의 참상은 세계의 인도적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객관적 입장의 현지보고가 궁극할 때다. 타이의 수도 방콕에 인도차이나 및 동남아시아 취재본부를 두고 있는 서방국가 언론기관의 특파원 20여 명이 전쟁 종결 8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남북을 통한 취재여행을 하도록 허용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아시아의

권위 있는 경제지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Far Eastern Economic Review) 특파원 피터 헤이스팅즈(Peter Hastings)는 오스트레일리아인 기자의 눈으로 남·북부 베트남의 대조적 모습을 생생하게 들춰내준다(『리뷰』 지, 1982.8.27).

1-5. 「베트남에 먼저 사죄를 하자」 (1999년, 반세기)

-한국과 베트남, 그 바람직한 관계를 위하여¹⁾문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민족적 양심에 가시처럼 꽃혀 있는 베트남전쟁을 놓고서 지난날의 한국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워서 정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가끔 집으로 보내오는 이 모임의 팸플릿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모임이 시작되었는가 하고 늘 궁금히 생각하던 터에, 오늘 이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우리 한국인들은 지난날 일본인들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그들이 역사적 교훈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곤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베트남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일본이 되어 있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0여 명의 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니 정말 깊은 감회와 아울러 나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여러분이 내개 보내준 강의 요청에 관한 팩스를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항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베트남전쟁이란 무엇이나,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의미, 한국참전의 의미, 그리고 이런 과거사와 앞으로의 베트남문제를 보는 시각 등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의 항목들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 조목조목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하는 식으로, 오늘 하루 종일 100여 건의 기록과 문헌을 찾아보면서, 꽤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에 나와보니 내가 준비한 식으로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당황하게 됩니다(웃음).이러테면 내가 조사한 문헌 중에 하나는 작년(1996)에 출간된 미국의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입니다. 이 사람은 그토록 무모하게 베트남전쟁을 치른 미국의 베트남전쟁 최고 정책수립가이자 전략가죠. 나는 이 문헌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었고, 베트남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 내의 초극비문서들을 다룬 '펜타곤 페이퍼'(미국 국방성 보존 최고 기밀문서), 미국 상원 청문회 기록, 국제법적 조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룬 강의를 될 뻔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좀 당황한 것입니다.나도 금년(1997) 4월에 베트남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이 베트남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해소하는, 그런 여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불교 스님들이 베트남의 불교를 도우러 가는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님사절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로 베트남 불교와 그 사찰 쪽만 구경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알고 싶어했고가 보고 싶어했던 현장, 베트남 인민의 사회 혁명, 반외세·반제국주의 투쟁, 베트남전쟁의 현장들에는 들르지 못했어요. 그런 여행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그리고 더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이 되는군요. 정확하게 1965년 2월 10일에 미국은 베트남에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공군력을 가지고 월맹, 북베트남 전체에 무차별하고 무차별적인 폭격을 했습니다. '북폭'(北暴)이라는 전면전쟁이지요. 그때 나는 『조선일보』의 외신부장이었는데, 그날부터 전쟁이 끝나는 1975년까지 정확하게 10년 동안 단 하루밤도 미국의 포탄 밑에서 죽어가는 베트남인들의 고통, 비참, 생명, 피흘림..... 그것들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는 미군들의 죽음과 우리 파월국군들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생각할 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사용한 포탄과 폭탄의 합계 600만 톤보다 1.5배나 많은 약 1,000만 톤

이상의 포탄을 퍼부은 그 좁은 땅에, 그 엄청난 포탄 밑에서 심장이 터지고 머리가 으스러지고 팔다리가 찢겨나간 채 죽어가는 가난하고 순진한 베트남인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10년 동안을 괴로워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외신부장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 뉴스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기사를 만들어 집어넣고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술도 많이 마신 때였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죽어가는 베트남인들을 생각했던 겁니다.이제는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베트남전쟁, 한국군의 월남파병, 베트남사태의 성격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그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약 400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인의 생명과 육체, 국토의 전면적 파괴를 거친 뒤에야 미국과 한국이 저지른 그 엄청난 비극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공 성전'이라는 똥딴지 같은 선전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은 한국 사회에 전혀 없었습니다.그 한 예로, 1965년 4월,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봅시다. 이때 국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는 박종태라는 분과 서인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당인 공화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박종태 씨의 경우는 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내 부표를 고집했고, 서인석 씨는 투표가 끝난 뒤 검표 과정에서 자기는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즉 기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국회의 반대표로 역사의 기록에 남은 것은 단지 한 표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초강대국 군대의 보조물로서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투표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 반대표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우리 남한의 정치인, 지식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61년 11월 1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년 5월에 무력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한국의 군부와 그 대표자인 박정희 소장이 정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조공을 바치러 갔는데, 그때 정권 승인의 조건이 네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단행할 것, 즉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한일회담을 타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경제권 안에 한국을 편입시킬 것이며, 셋째는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 군대의 죽음을 대신할 것, 그리고 넷째는 형식상 최소한의 선거를 실시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민정이양'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도 군사정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그 박정희 씨의 와싱턴 방문에는 리승만 정권 시대와 민주당 정권 시대에 부패·타락하지 않은 기자 세 사람만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통일원장관이 되어 있는 권오기 씨와 합동통신의 나,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또 한 사람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와싱턴 방문현장을 취재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때 나는 앞으로 '베트남전쟁에서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겠구나'하는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때는 파병 결정을 내리기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트남전쟁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지고 베트남 사태와 역사를 혼자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인이나 언론인, 학자, 전문가들이 전혀 엉뚱한 각도로 베트남 사태를 보고 있을 때, 내 나름대로 외롭게 베트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쓰고, 발언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다음은 베트남전쟁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오랜 외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에 반항하고 민족해방과 독립을 추구하고 싸운 애국지사들과 역대 외세에 빌붙어서 일신의 영달을 꾀해온 민족반역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하에서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자들과 달리, 민족을 팔아먹고 일본에 부역을 했던 자들이 해방 후에 한국의 총체적인 지배권력을 장악했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즉 해방 신생 독립민족 내의 민족 양심세력과 민족 반역세력의 싸움이었습니다.재미나는 것은,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미국인과 한국인이 업신여겨서 '베트콩'이라고 부르는)의 중앙위원회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39명

가운데는 100년 이상의 과거 프랑스 식민지와 그 뒤를 이은 3년 동안의 일본 통치하에서 민족해방과 반외세 항쟁을 벌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여성위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징역살이의 투쟁경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만 명의 미국인과 한국인 청년이 10년 동안 많은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도운 남베트남의 소위 “반공 자유 월남 사이공 ‘반공·우익·친미’정권”에는, 과거 민족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곤 육군 중령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구엔 가오키 수상, 구엔 반티우 대통령, 구엔 관 등 우리가 아름을 들 수 있는 모든 베트남의 ‘친미·반공’적 군장성들은 예외없이 프랑스 식민지 통치 군대의 육군 중위, 공군 소위 따위들이었습니다.

정치·사회·경제적 지배계층 역시 그러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베트남전쟁이 민족 내부에서 어떤 성격을 지닌 싸움인가 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개혁과 혁명을 지향하는 민중에 바탕을 둔 현상타파 세력과 식민지하에서 치부하고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자들, 즉 현상유지 세력과의 투쟁이었습니다. 또 사회계층적인 성격으로 말하자면 농민 대 관료, 지주, 상인 등 농민에 반하는 세력들과의 대립이었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80퍼센트의 토착 불교세력과 11퍼센트의 서양 지향적 외래 종교(주로 가톨릭) 세력과의 대립이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물론 사회주의·진보세력·공산주의와 자본주의·반공주의로 대별되겠지요. 그밖에 미국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약소국가를 침탈한 신제국주의가 있겠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당시에 세계적인 반공 포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허구적인 ‘도미노 이론’을 가지고 미국송배적인 어리석은 동맹국가들의 정부와 국민대중의 건전한 판단의식을 마비시켜버렸던 자기기만적 사상풍조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패망한 1945년에, 전 식민 지배자인 프랑스가 다시 들어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벌인 9년간의 제1차 베트남전쟁이 끝난 1954년에 ‘제네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2년 뒤인 1956년에 남북을 통틀은 총선을 치러서 통일 국가를 수립한다는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제네바 휴전협정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이든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제네바 정전협정에 의해서 1956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남북통일·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 실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휴전협정대로 1년 뒤에 통일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베트남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호치민과 공산당을 지지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의장국 영국은 이에 굴복했고 통일선거 실시 합의는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이젠하워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1954년 제1차 베트남전쟁 휴전협정에서 결정된 남·북 통일선거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남베트남을 미국의 동남아시아 군사망의 전방기지와 반공진영 속으로 굳히는 정책의 결과로서, 제2차 베트남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군사전문가들이나 군 역사학자, 정치학자 등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생각할 때, ‘베트남전쟁’의 성격은 민족자결이라는 내셔널리즘 대 미국의 반공주의적 패권주의 사이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는 미국적 관점에서 전쟁을 지배했던 이념인 무력·힘·군사력·과학기술 등 물질력의 돈 만능주의에 대해서, 베트남의 민족적 해방, 사회혁명·공산당 조직의 헌신적 지도역량, 사회주의적 일체감, 민족독립심, 정신주의, 인구 80퍼센트의 불교신자의 반외세 의식의 역량·토착적 농민들의 주인의식·지도자의 자질·역량·애국심, 이런 요소들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군대의 정규전에 맞서 베트남 농민 사회가 벌인 게릴라전이었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국가 이기주의·반공 간섭정책 등에 대해서 당시 제3세계와 비동맹세계에 팽배했던 시대적 사조로서 반서방적 사회혁명·민족자주 정신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성격을 지닌 전쟁임으로 해서, 전쟁이 최고조로 달했던 196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미군 탈주병이 5만 3,352명이나 되었습니다. 미국이 국가를 건설한

이래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왔지만, 이처럼 미국 군인들이 자기 국가의 전쟁을 거부하면서 이처럼 대량으로 탈주한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1961년부터 7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또는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57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숫자를 들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까닭은 이런 전례가 세계의 전쟁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과는 정반대로 윤리성과 도덕성이, 바로 자신의 국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남한국민만이 이런 진실을 몰랐고, 베트남전쟁을 '반공·자유를 위한 성전'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모임은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얘기가 과거의 정책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좀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알려면 과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월남전 파병에 관해서 말해봅시다. 주로 참전을 주장하는 쪽에서 정당화하는 논리이지만, 흔히 미국에 대해 우리나라가 신세를 진 까닭에 그 신세를 갚기 위해 참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는 반공의 '전쟁'이니까 참전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나름대로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6·25전쟁과 그 후의 경제적 원조 등 미국에 대해 신세진 점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세계에서 미국의 신세를 가장 많이 진 국가는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조상이 같은 형제국가이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렇거니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야말로 영국이 멸망할 것 같은 단말마적인 순간에 미국이 구출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경제와 생활이 총체적으로 파탄되어 삼류국가로 떨어진 영국이 다시 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은, '마셜 플랜'에 의해 도움을 준 미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와 같이 신세를 진 것을 질이나 양으로 따지더라도 우리보다 영국이 몇십 배로 컸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미국에 신세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처음에 200명을 보냈다가 나중에 2,000명을, 뉴질랜드가 30명에서 500명을, 대만이 30명을, 필리핀이 17명으로 출발해 2,000명을, 태국이 1만 1,000명을 보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대부분이 포병대와 공병대, 민간봉사대, 후방기지 경비대들이었습니다. 피난민 구호 등 간접적이거나 아니면 복구작업을 위해 보낸 공병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만이 전투병으로 5만 명을 베트남 전선에 상주시킨 겁니다(전쟁기간 중 연 50만 명). 내가 좀 전에 영국의 예를 든 까닭은, 미국이 자기들에게 신세를 진 모든 예하 국가, 아시아의 거의 반예속적 동맹국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 군대를 파견하게 했지만,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처지가 못 되는 영국이 끝끝내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들어와서 영국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춰달라는 미국의 거듭된 애원에 못 이겨 겨우 의장대 6명을 탄슨누트 공항에 파견했을 뿐입니다! 외국 귀빈들이 사이공 공항에 도착할 때 열병·사열에 영국기와 6명의 의장대가 들어 있음으로써, 마치 영국(군대)도 미국을 도와서 베트남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걸치레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지닙니다. 의장대 6명! 영국 정부, 정치인, 지식인 들, 그리고 영국 시민들은 베트남 사태와 미국의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내가 강조한 것처럼, 미국에 신세를 가장 많이 진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투부대 파견은 끝내 거부했어요. 의장대 6명 파견으로 영국 국민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면서 미국의 체면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양면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미국의 케네디와 박정희 육군 소장의 합의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베트남 파병으로 한국 군부의 쿠데타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해방 이후 최초의 군인국가를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문화·정치 등 모든 차원에서 국가의 군사화를

이룩하게 된, 그 후 30년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문제의 모순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전쟁의 파병으로 인해 20억 달러의 경제특수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발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일본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국전쟁을 기화로 돈벌이를 한 게 아니냐고 비난을 합니다. 일본은 베트남전쟁에 군인 한 사람 보내지 않고도 미군 군수품 생산이나 용역으로 직접 획득한 이득이 32억 달러, 간접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 20억 달러로, 가만히 앉아서 52억 달러의 특수라는 결과를 누렸습니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세요. 또 하나는, 우리 군대의 작전 훈련과 실전 경험을 높은 군사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한국군의 무기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이 플러스적인 측면입니다. 문제는 한국전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특수경기를 비도덕적 행위라고 우리가 공격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군사·무기·경제개발 계획의 공은 한쪽으로는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겠지요. 윤리성이란 계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양을 화폐로 바꾸어 내면화하고 물질화해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부의(不義)·부정(不正)스러운 전쟁의 '용병' 역할로 황폐화한 국가와 국민의 윤리·도덕적 타락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니다. 구체적 한 예로, 과거에 독립운동가였다가 뒤에 우리 야당의 정치지도자가 된 박순천 여사가 베트남에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광활한 토지를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공항에 내려서자 베트남의 땅에 입을 맞추면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 민족의 위력을 발휘한 이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 우리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하고 감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이 자리해왔던 겁니다. 베트남 인민의 땅을 군사력으로 탐내는 그 수준의, 그런 종류의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까닭은, 미국과 한국 정부·군대·극우 반공주의자들의 모략·선동·선전과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무식한 우리 언론기관들이 그 비판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반공주의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되었지요. 세계의 누구나 알고 있는 베트남 민족의 염원과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와 패권주의의 본질을 한국 국민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리승만 정권 말기까지는 우리 언론이 상당히 비판적 균형을 발휘했는데, 군부 폭력 밑에서 극우 반공주의와 미국의 선전에 의식이 마비되어, 언론기관과 언론인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로서의 비판기능을 맡지 못했습니다. 그 뒤의 결과가 우리가 몇 세대에 이어서 군사정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나 개인으로 말하면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 때문에 정부의 압력을 받아 『조선일보』의 직을 강제해임당했습니다. 그 반면, 비판의식을 지닌 세계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에게는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의 성격이 분명했습니다. 그 오랜 20년 동안에 걸쳐서 직접적으로 베트남에 죽음과 황폐를 안겨준 당시 미국의 전쟁정책 최고 결정권자이자 전략가인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미국과 한국 지식인들은 '걸어가는 사전', '워킹 컴퓨터', 또는 '면도날 같은 두뇌'라고 불렀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군사적 천재라고 미국과 한국의 신문·방송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재적인 맥나마라 장관이 종전 20년 후인 1995년에 저술한 회고록(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아니, 차라리 한심하다고 해야겠지요.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베트남 민족과 '반공전선'이라는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그는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남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 소위 베트콩이라고 경멸했던 사람들과 북베트남 사람들의 탁월한 자질과 능력을 완전히 오판했다. 둘째, 친미국적인 남베트남 사이공 반공 정부 지도자들의 반민족·반민주적 과거경력과 무능력을 오판했다. 셋째, 아무리 약소하더라도 각성한 민족이 발휘하는 내셔널리즘의 역량에 대해 무지했다. 넷째, 베트남의 역사·문화·인민·정치 특성과 그 지도자들의 인간적

요소 등을 미국의 정책 수립자들이 무시했다.다섯째,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지식·미국적 물질의 힘을 과대평가했다. 반면에 의식화된 인민의 정신적·도덕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다.여섯째, 미국 시민의 전쟁열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 즉 미국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일곱째,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얻는 데 실패했다.여덟째, 미국식 사명감의 독선에 빠져 있었다. 즉 미국식 제도를 이상화해서 세계 어디서나 미국식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독선에 빠져 있었다.아홉째, 세계 우방국가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얻지 못했고, 그런 협력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간 무모함을 범했다.열째, 미국 국력의 무적성(無敵性)에 도취된 나머지 이런 불합리한 정황 속에서 다급하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 실수였다.열한째, 마지막으로 군사력이 아닌 방법, 즉 협상이나 상황을 적절히 조성하거나 평화적인 조건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경시했다.이렇게 11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자기 자랑이 될까 좀 면구스럽지만, 나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입의 첫날부터 그 사실들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수백만의 베트남인이 죽어야 했고, 병신이 되어야 했고, 국토가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미국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이 맥나마라라는, 전쟁을 벌인 당사자, 유일 최고 정책수립자 자신이 이제 와서 반성하며 제시한 11개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항목은 여러분이 베트남전쟁을 뒤늦게라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그렇다면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쟁이 계속되었던, 그 30년 동안에 미국 정부 내에서 작성되고 교환된 극비사항을 다룬 문서가 이른바 '국방성 극비문서집'(펜타곤 페이퍼)입니다. 이 최고급 비밀문서집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면서 미국이 북베트남 전역에 전쟁을 확대한 행동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던 소위 퉁킹만 사건이 미국 군부와 정보당국이 합작한 완전 조작극이었음이 백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월맹 해군 어뢰정이 공해상에서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그래서 북쪽의 구실이 된 것이 그 유명한 '퉁킹만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월맹에 대한 미국의 북쪽을 정당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펜타곤 페이퍼에서는 이 사건이 미국 해군과 CIA가 협력해서 조작한 사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전쟁 중 수없이 많은 조작공작 중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지만요. 이처럼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맥나마라 장관 자신 스스로 20년이 지난 후에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밖에도 전쟁기간에 은폐되었던 많은 사실을 이 회고록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집권층 집단의 오만과 무지 때문에 죽은 베트남인이 몇백만이며, 포탄과 고엽제로 병신이 된 사람이 몇십만이며, 파괴된 토지와 재화가 얼마이겠습니까? 그 가난한 베트남 인민의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요?그렇다면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왜 했는가? 물론 미국의 입장은 그것이 반공, 아시아 민족의 자유, 베트남 정부와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펜타곤 페이퍼의 극비문서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당시 맥노튼 국방차관보가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보낸 "베트남을 위한 행동계획", 다시 말해 1965년 3월 24일에 나오는 대목을 한 예로 들면,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 목적' 중에서 70퍼센트는 세계에서 미국의 굴욕적인 패배를 저지하기 위해서, 즉 오로지 미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였고, 20퍼센트만이 남베트남 및 이웃 나라를 중공의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과 정부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10퍼센트,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나는 대한민국이 통일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한 그해에 『한겨레신문』 논단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들추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그 원한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가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이 단계에서 베트남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적으로 속죄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현재,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과거 월남 파병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행위로 태어난

흔혈아들의 딱한 처지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별로 속죄행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파병한 우리 군대에 의해서 죽거나 부상한 베트남 국민의 아들이나 딸이 대학에 간다거나 할 적에 학비를 대고 싶다고 베트남 대사에게 그 선정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나로서는 한국인으로서의 경건한 속죄의 표시로 학생 한 명의 학비를 돕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밖에 문화적으로는 베트남전쟁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참전이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보기가 딱한 베트남의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구자와 거지들, 직접적으로는 전쟁의 총탄에 의해 화상을 입은 불구자와 간접적으로 고엽제로 인한 불구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처절하고 불행했던 지난날의 한국(인)의 행동과 의식을 소재로 한 좋은 문학작품이 많이 창작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개인·민간단체·정부가 베트남에 원조를 하고 지난날을 씻으려고 하는 노력이, 미국의 극우 반공 입장의 단체인 재향군인회에서조차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인이 우리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그런 방법과 형태로 베트남에 대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그중에서도, 국가적이고 국민적으로 할 일은 베트남전쟁의 피해자들, 즉 불구자들과 고엽제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큰 병원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건설하고, 거기에 의사들이 지원해서 가고,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베트남전쟁 파병의 역사를 씻는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이나 경제, 합작회사나 노동력 원조라는 경제적인 돈벌이에 힘을 쏟기보다도, 나는 그런 것을 더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 강의는 끝나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1\) 이 글은 '베트남을 생각하는 젊은 문인들의 모임'이 주최한 '제2회 베트남 연대의 밤' 행사\(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 1997.10.20\)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